

새문안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문안교회

창립 1887~2012

2012년도 표어 |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벧전 2:12)



한태선교관 10주년 기념식 중계
삼일운동과 통일의 준비 좌담회
나그네된 자기 민족을 인도하는 외국 목사들
지금 학원에서는 무슨 일이?
멀티미디어 선교전략 관련 부서장 연석회의

2012
03



특별기획 <하나님이 주시는 새문안의 새성전>(3)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새문안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새성전을 예비하고 계신다. 기본 설계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 수정과 본격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새성전 건축의 전과정을 성도들과 지상으로 보다 현장감 있게 나누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문안의 새성전> 코너를 신설한다. 전체 구조와 활용에 대한 내용을 부분 별로 나누어 안내한다.(편집자 주)

소통의 실내 광장과 기념 예배실



새성전 건축과 더불어 현대 한국 사회가 비난하는 개신교회의 폐쇄성을 우리 새문안교회는 잘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 광장의 십자가와 수공간을 가로질러서 성전의 1층 내부로 들어오면, 통상 로비라 불리는 넓고 높은 실내 광장에 이르게 된다. 이 광장은 공간의 다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복합적인 3차원 공간이다.

첫째는 새문안 길로부터 들어오는 활기찬 도시 분위기가 이 실내광장을 관통하여 신설될 동측의 도심공원과 북측 세종로까지 연결되는 개방성이다. 둘째는 대예배실의 한 층 아래인 중간층의 존재로 인해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고 광장을 내려보기도 하는 10미터 높이의 웅장한 홀의 효과이다. 셋째는 좌측의 비스듬한 틈새의 공간에 겹겹이 쌓인 커로 표현되는 새문안교회 역사의 볼륨벽과 시민들의 수월한 접근이 가능한 열린 사료관 공간이 그 곁에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열린 실내광장의 핵심이 되고, 교회의 사회적 봉사의 장이 되는 약 300석 규모의 광장 예배실이 중앙에 비스듬히 놓인다. 남북의 출입구 들로부터 동선이 서로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비껴 서있는 형국인데 이는 현재 새문안교회 정면의 십자가 문양이 적용된 거대한 문과 역사적인 기품을 갖춘 내외부 벽체로 디자인 되었다. 이 공간은 예배는 물론, 다양한 예식이 거행될 수 있고 교회의 내외부를 통하여 만남과 교류의 행사도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집회실이다. 이와 연계된 실내의 광장은 평일에는 시민들과 교회 구성원들의 휴식 테라스가 되고 행사가 진행될 시간에는 풍부한 전시행사나 리셉션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처럼 실내 광장은 새문안교회가 대한민국과 글로벌 사회를 향해 다가갈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소통의 장소가 될 것이다. **세 글 | 이은석** 설계자(경희대학교 건축과 교수)

새성전 건축 소식 _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성전 헌금 약정(1구좌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약정 바랍니다. (문의 : 02-732-1009 사무처)
건축헌금 구좌번호 : 국민은행 293801-01-088615 새문안교회



연중기획 교회소식

선교섹션 망끝까지

교회학교 코너

새문안 울타리

젊은이 광장 믿음으로 사는 삶

찬양하며 감사하며

새문안 문화마당

02	새문안강단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 · 이수영 담임목사
08	특집 좌담회 3.1 정신과 한국교회의 사명 · 윤경로 장로
12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도편수 임급수 공로장로 · 유재현 장로
16	건축위원장 은퇴장로회에서 건축설명회 · 원영희 권사
18	새성전건축 NEWS · 새성전건축위 홍보팀장 원영희 권사
20	새성전 건축 제1차 새성전 기획행정 간담회 · 김홍배 집사
22	건축을 위한 기도문 · 차혜경 권사
23	새문안의 보물⑧ 정초석 · 표지석 · 김홍배 집사
24	양육과 섬김 최연자 권사 인터뷰 · 편집부 기드온전대 발대식 · 손세창 집사
112	새교우앨범
04	우리교회 선교지 소식 메추어이 개교 10주년 · 나영호 집사 태국에서 온 편지 · 김장원 선교사
32	우리교회 선교지 소식 몽골 소식 · 안경덕 오가실 선교사 부부
28	텐트메이커 선교사 손창남 선교사 · 김두연 집사
34	평신도 단기선교사 소식 네팔 소식 · 이광석 감지인 선교사
36	북한선교현장 민족사랑나눔 정기총회 · 이종범 집사
38	선교현장 외국인 선교사와의 대담 · 이철용 집사
44	일본선교현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이승리 권사
46	청소년문화선교부 소식 음악과 함께하는 주일 오후, 좋은 부모 교실
47	교회학교 뉴스 · 최요한 전도사
48	교회학교 화보 유아부, 유치부, 초등1231부, 초등12311부, 초등4561부, 초등45611부,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후기
60	이야기터 윤옥균 권사 인터뷰 · 이순자 권사 어린이 빛 도서관 · 최효정 전도사
64	교회학교 소식 어울림 단계별 통합교육 · 교육1부 제공 어울림 가정예배 현장을 찾아 · 박주은 어린이 가정
66	사회와 기독교 학원 폭력 · 우수호 목사
68	학교좌담 지금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 이순자 권사
75	학원현장 학생인권조례안 스케치 · 김선영 토론자의 글 · 송태규, 육근선, 최용원
82	특별좌담 디지털 시대의 멀티미디어 선교전략 · 유재현 장로
88	특별기고 SNS로 통하다 · 황귀연
90	나의 제언 새문안동산 · 김수문 안수집사
91	현장스케치 10교구 헌신예배 · 이자숙 권사
92	새청선교현장 5부예배 · 김호진
94	생활속의 신앙 아버지의 노래 · 안상은 집사 수난의 세가지 의미 · 최재숙 집사
96	수난절 기도 사순절 묵상지 · 강동협 목사
98	조사 고 강상복 장로 장례예식 · 변우량 장로
101	믿음으로 강건하게 교정치료와 위생관 · 윤형철 집사
102	만나고 싶은 사람 황산성 권사 · 김홍배 집사
104	찬양대소식 신동일 반주자 박동희 지휘자, 찬양대 연합 헌신예배 · 김현찬 권사
109	기독교와 한국의 근대음악(6) · 민경찬 성도
81	인물탐구 예수의 공생애 · 강동협 목사
115	성경퀴즈(196) · 서경애 권사
113	변경된 기독교 용어 바로쓰기(40) · 편집실
110	문예마당 두가지 보물 묵상과 산책 · 강경완 집사
108	성경의 지명 에덴동산은 어디인가? · 편집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

(창37:23-28)

이수영 담임목사

새문안교회가 태국 메썬어이에 세운 <한태 기독교교육센터>가 지난 2월 18일 팔백여 명의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설립 십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가졌습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게 된 열여덟 명의 남녀 라후족 아이들이 자기 부족 산지로 돌아가 야만에 가까운 삶을 살게할 수도 없고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매춘가로 팔려가고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길거리를 떠돌며 온갖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내버려둘 수도 없어서 그들을 위해 기숙사를 세워주려고 시작한 사역이 십년 만에 만오천 평의 대지 위에 예배당, 생활관, 교육관, 선교관, 기독교사관학교를 세우고 농사와 양어, 양돈까지 하는 종합 신앙생활 교육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현재 이 교육센터에는 라후족뿐 아니라 타이족과 여러 산지 부족의 초중고생들이 백십명 이상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교육센터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 신학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온 졸업생 중 열 명이 센터로 돌아와 교사로 상주하며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졸업생 중 세 명은 현재 한국에 유학을 와서 신학대학원이나 일반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 교육센터의 중간지도자들로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 교육센터의 사역은 한 단

계 더 안정되고 차원 높은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년간의 사역이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새 십년은 그들이 이 교육센터의 지도와 운영을 넘겨받아 책임있게 담당하며 완전한 자립과 독립을 향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경험이 축적되는 기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태국에서 우리 메썬어이 교육센터처럼 매일 전원이 새벽기도부터 밤예배까지 철저한 기독교신앙 교육을 실시하는 기숙사나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선교사의 확고한 비전과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고,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성원해준 태국기독교단의 협조의 산물이며 태국선교를 위해 늘 기도하며 조용히 후원해온 새문안교회 여러 교우들의 아낌없는 지원의 열매이고 우리 당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비 고비마다 고심 끝에 내려준 결단과 후원의 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불과 십년 만에 <메썬어이 한태기독교교육센터>는 명문 학사와 학교로서 튼튼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교육센터에 들어오려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개척한 많은 산지마을 교회 중에 시온교회가

있습니다. 그 마을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 학교를 염두에 두고 세운 교회이니만큼 그 옆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도 같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우선적으로 메썬어이 교육센터에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에 자녀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온기숙사에 들어가게 하느라고 부모들이 줄을 섭니다. 그 마을에서 두세시간 가야 할 만큼 떨어진 다른 산지마을 아이들조차 나중에 메썬어이 교육센터에 들어오기 위해 미리 시온기숙사에 들어오려고 자기 마을 학교를 안 다니고 두세시간 걸려 이 마을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 촌장은 자기 아들만 우리 기숙사에 받아주면 부족 전체가 다 예수 믿겠다고 한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육센터는 선교에 큰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허허벌판이었던 이 땅이 지금은 하나의 큰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메썬어이 교육센터에서 하룻밤을 자며 다시 모든 시설을 둘러보는 가운데 구약성경의 요셉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다가 평소에 그를 시기질투하며 미워하던 형들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나 얼굴도 모르는 상인에게 팔려 먼 이집트로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압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크고 높게 들어 쓰셔서 그의 아버지와 온 가족뿐 아니라 온 이집트와 주변 나라의 모든 백성을 칠 년간이나 지속된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살려내게 하셨으며 그의 온 가족과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처음 그 태국학교에서 쫓겨날 때는 황망하고 암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계속 해야 한다는 뜻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겠다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며 응답해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 들어가고 거기서 그의 신임을 얻어 그의 모든 소유를 위탁받은 가정총무가 될 때만 해도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되리라는 것을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신실한 사람에게서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곤 하십니다. 우리도 메썬어이에 터를 잡고 기숙사를 세울 때만 해도 오늘날과 같은 큰 교육사역을 행하게 되리라고 예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어린 심령들을 향한 우리 선교사의 그 뜨거운 신앙과 복음의 열정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메썬어이 한태기독교교육센터>를 통해서 태국 국민을 복음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킬 일꾼들을 양육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역경에 처하여 고초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들어 쓰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큰 뜻을 이루신다는 진리는 개인에게도 한 민족이나 국가 같은 집단에게도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월은 늘 우리에게 3.1 독립운동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의 침탈과 강압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교회와 신자들은 잔혹한 박해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며 수많은 순교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더욱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하셨고 격동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나라가 살아남게 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한국교회를 크고 귀하게 쓰시며 세계 제일의 기독교선교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더 힘쓰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겨레에게도 더욱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93년 전 3월 1일 일제의 억압에 항거하여 우리 민족이 분연히 일어났듯이 오늘날 교회를 비방하고 억압하며 파괴하려는 모든 세력에 맞서 - 우리가 바른 믿음과 선한 일로 - 힘 있게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이 겨레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새

95% 불교나라에서 예수의 깃발 펴는 힘이다



나영호 집사
(해외선교부 태국팀장)

지난 2월17일~20일 이수영 담임목사님, 정호영 해외선교부장님 그리고 신임장로님 등 9명이 태국선교지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 목적은 첫째, 메썬어이 한태기독교 교육센터 설립 10주년 감사예배에 참석하고 둘째, 기독교관학교 운영과 관련한 평화법인회의에 참석하여 작년도 사역보고와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셋째, 람퐁선교관 사역과 관련한 람퐁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작년도 사역보고 및 금년도 사역계획에 따른 예산안 확정과 주요사업에 관하여 토의하고 넷째, 산죽마을 빵후교회에서 주일예배 설교와 성찬식을 행하여 예배의 본을 보이고 다섯째, 골든트라이앵글(황금의 삼각주)지역을 방문하여 이 지역에 대한 선교비전을 고취하는 것 등이었다. 이번 태국 선교지 방문은 “-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태국땅을 향한 새문안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임을 확신하는 여행이었다. 필자는 은혜와 감동가운데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실감할 수 있었다.

첫째, 새문안교회의 태국 선교사역은 태국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위대한 사역이었다는 사실이다.

태국선교는 하나님께서 25여 년 전 새문안교회를 통해 귀한 일꾼들을 택하여 선교사로 파송케 하셨고 새문안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와 헌신으로 봉사케 함으로써 이루어진 값진 결정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메썬어이 기독교 교육센터 10주년 감사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마다 깊은 감격과 감동으로 이뤄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태국기독교인이 전체인구의 0.5%인데 반해 메썬어이 센터 10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800명이 넘었다는 사실은 놀라울 뿐이며 담임목사님의 설교말씀 전후하여 15차례 이상 찬양과 울동으로 하나님께

땅 끝까지





▲ 장로 피택자 교육의 일환으로 이번에 태국 선교지를 같이 방문한 신임장로들이 태국전통 주거인 오두막에 앉아 담임목사와 함께 산지 마을의 식사를 하고 있다.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감격과 감동의 연속이었다. 기독교관학교는 현지인과 산족마을출신 중고생 34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과 정규수업을 통해 영력, 심력, 지력, 자기관리능력, 인간관계능력 등을 고루 갖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지도자 양성학교로 세워졌다. 125년 전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새문안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뜻과 너무도 닮았지 않은가?

메수어이 한태기독교교육센터와 기독교관학교가 주로 산족마을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시설이라면 도시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태국 제1노회와 함께 세운 시설이 람퐁기독교관교회와 선교센터라 할 수 있다.

람퐁기독교관 중앙위원회에서 특히 금년에 실시키로 한 사업내용이 첫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사업이고 둘째, 교회 교사양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었다. 그들은 그 사업추진을 위하여 새문안교회의 전폭적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새문안교회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복지사업과 교사양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운영시스템이 향후에도 해외선교에 크게 작용할 무형자산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특히 6년 전 김장원 선교사의 안내로 산족(아카족)마을인 빵흑마을을 방문했던 당시 새문안교회 신임장로님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운 빵흑교회가 금년에 창립 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며 이 교회에서의 주일예배 역시 감동 그 자체였다. 하나님께서는 미신과 무지, 이웃으로부터 소외 당한 소수민족 아카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은 총 16 세대 가운데 14 세대가 하나

님 백성이 되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수마울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수영 담임목사님의 설교와 성찬식 인도, 새문안방문단 일동의 특송과 정호영 장로님의 하모니카 연주 그리고 산족인 중찬단의 특송 등으로 진행된 이날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둘째, 하나님은 태국을 넘어 중국,인도로 그 영역을 넓히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태국, 라오스, 미얀마가 메콩강을 끼고 만나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을 방문하면서 선교차원에서 큰 도전을 받았다. 라오스는 전 인구의 2%, 미얀마는 7%가 기독교인이라며 크리스찬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 곳은 과거 인간을 황폐시키는 세계적 악명높은 마약 주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던져준 저주의 땅이었던가? 이런 곳이 이제는 복음이 스며들고 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곳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다. 앞으로 선교사역이 이곳을 넘어 중국선교, 인도선교로 연결되는 아시아 복음 연결통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중국 내 많은 교회들은 해외 파송을 위한 선교사들의 교육장소로 태국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 선교센터를 통해 교육경험을 전수받길 원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중국이 경제발전해 힘입어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영적인 선교사역과 복음사역에 대해서는 한국 기독교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골든트라이앵글을 한 눈에 바라보는 태국전망대에서 김장원 선교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자 정호영 장로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음과 같은 즉석시를 낭송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태국을 교두보로 하여 인도차이나 반도 전역으로 선교의 영역을 넓혀 나간다는 큰 비전을 꿈꾸며,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지은 선교위원장 겸 해외선교부장, 정호영 장로

메콩강의 기도

메콩강에 배 띄어
 라오스를 돌아보고
 태국전망대에 올라
 미얀마 삼각주를 보네
 세 갈래 물길따라
 황금이 복음으로 변하길
 영원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셋째, 이번 선교지 방문에서 얻은 결론은 해외선교야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생명을 내던지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전 국민의 95%, 절대불교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찌 순탄하겠는가? 현지에서 동분서주 뛰고 있는 선교사의 건강과 사역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성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깨달음이 더욱 온몸에 엄습해 온다. 하나님의 은혜로 125년 전 복음에 빛진 한국교회가 그리고 어머니교회인 새문안교회가 그 빛을 갠기 위해서라도 해외선교사역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사명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모두 해외선교사역에 사랑과 기도로써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다짐해본다.

끝으로 이번 선교지 방문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신임장로님들이 매쉴어이 교육센터와 기독교관학교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수의 탁구대와 관련 비품일체를 기증하기로 하였다. 이는 이 곳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과 건전한 성장을 바라는 뜻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신임장로님들의 감동 어린 결정에 모두들 박수를 보냈다.

끝까지 저희 일행을 정성껏 안내해주신 김장원, 안임숙 선교사님께 감사드리며 시간 시간마다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 **새**

망
 끝
 까
 지

태국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금번의 10주년감사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언제나 그러듯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우리 센터에도 찾아왔습니다.



▲ 담임목사님과 함께 빈 들에서 시작하여 불과 10년만에 이루어낸 이 기적 같은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김강원 선교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사역가운데 늘 방해의 역사들이 함께 하여왔습니다. 바로 컴퓨터도난사건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사들의 마음이 낙심과 허망한 가운데 있고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센터에서 일어나야 하나 의심과 사로에 대한 불신들의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탄의 방해라는 생각이 들면서 10주년 감사예배를 앞두고 5일간 우리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모든 한 국선교사들, 저의 가족뿐만 아니라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산족의 전도사님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아침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선포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우리 새문안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나서서서

컴퓨터를 구입하여 주시고 보내주시고 하여 새로운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분이심을 더욱 확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아주 빠르게 움직여 주신 모든 하나님의 동약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0주년 감사예배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였고 센터의 실상에 대하여 보게 하셨으며 이렇게 동역자가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지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지속적으로 태국선교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새 글 | 김강원 선교사

*3.1운동은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통치 10년 만에 대한의 백성들이 하나되어 1919년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10년 동안 대한민족의 독립 의지와 정의감과 성숙한 도덕성을 세계만방에 알린 위대한 민족운동이었다. 또한 피압박 약소민족의 해방운동과 독립운동의 횃불을 밝히는 촉매 역할을 했던 세계사적 사건이었으니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무저항운동도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가 역사의식을 잃었다는 비판을 많이 듣는다. 이에 새문안지는 3.1운동 93돌을 맞아 믿음의 선배들이 보인 민족과 사회를 향한 신실한 믿음과 역사의식을 지닌 성도가 되기를 기원하며 3.1정신을 되돌아보는 좌담을 자졌다. (편집자 주)

연
중
기
획



3.1 정신과 한국교회의 사명

- 때와 곳 : 2012년 2월 19일(주일) 홍보출판부실
- 참석자 : 김혜원 공로권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공동위원장), 육철 안수집사(서무부 차장, 사단법인 민족사랑나눔 이사), 조동준 집사(대학부 지도위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윤성련 집사(7여전도회 선교부장), 이창은 형제(청년2부 회장)
- 사회자 : 윤경로 장로(당회 기획위원장, 한성대 사학과 교수)



윤경로 장로

3.1운동 주도한 한국 교회, 피해도 가장 커

윤경로 장로: 3·1운동 93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난 장소가 학교와 장터를 제외하면 대부분 교회에서 만세운동이 시

작되었고 이 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에 되새겨야 할 3.1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나누도록 하지요.

김혜원 권사: 3.1정신은 출애굽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의 삶을

떨치고 가나안을 향해 탈출하였듯이 일제의 억압에 저항하여 만민평등, 자주독립의 기치를 내걸고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한 출애굽 정신이 3.1정신과 통하기 때문이지요.

육철 집사: 믿음의 선진들이 펼친 3.1운동 덕분에 광복의 꽃을 피우고 주권국가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이란 열매를 맺어 3.1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조동준 집사: 3.1정신은 비폭력 사회운동의 정신과 협동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목표가 옳아도 폭력으로 하면 안 된다는 자세로 비폭력운동을 견지하였고 타 종교와 연합하여 다른 세력과도 협력하는 좋은 전통을 세웠다는 점에서 오늘날 폭력시위 현상은 부끄러운 일이며 많은 단체가 의견이 다른 상대와 대화하지 않고 독단에 흐름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련 집사: 개혁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선열들은 움켜잡고 지킬 것이 없었기에 온몸을 던져 희생할 수 있었던 점이 자랑스롭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오늘날 축복받아 움켜잡고 지킬 것이 너무 많아 되레 나눔과 섬김의 희생과 헌신에 소극적이 된 듯합니다.

이창은 성도: 개인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문제에 비폭력운동으로 적극적 관심을 갖고 참여한 사회참여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3·1운동에서 어떻게 주도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출애굽, 비폭력, 협력, 개혁과 사회참여의 정신 되새겨야

윤경로 장로: 당시 민족대표 33인은 기독교 16명(이승훈, 길선주 등), 천도교 16명(손병희, 오세창 등), 불교 2명(한용운 등)이었는데 인구 1700만이던 당시 2%도 안 되는 30여만 명에 불과하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민족적 독립운동으로 승화시켜 일제하 독립운동과 건국 후 근대화 과정에 기여하여 20세기 사회 변혁의 주도 세력으로 나서

게 되었으니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자금을 지원해 조직적으로 교회가 주도하였으니 1년여 지속될 수 있었지요. 이 점은 천도교도 인정합니다. 결국 세류(細流)가 대하(大河)를 이루었으니 전국 곳곳마다 만세운동이라는 작은 물줄기가 독립운동이라는 큰 물줄기를 이루어 광복을 가져온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인권, 환경 등에도 관여하여 사회참여의 범위가 넓어졌는데 3.1정신에 비추어 오늘의 교회가 반성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혜원 권사: 33인 중에도 변절하여 친일한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면 친일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기회를 놓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 으로서도 진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과 모함에 일일이 대응할 것은 없고 채찍으로 알고 겸손히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김혜원 공로권사

육철 집사: 기독교가 부흥하다 보니 사회의 비리에 기독교인이 연루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참 믿음의 사람을 찾기에 양과 염소의 심판을 비유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염소 같은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참 신자의 삶을 실천해야 하리라 봅니다.

조동준 집사: 3.1운동 당시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큰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도 사회적 영향력은 작아진 듯싶습니다. 세속화하여 물질주의에 빠져 예수님이 주신 능력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를 향해 더 큰 희생과 헌신을 실천해야 하리라 봅니다.

김혜원 권사: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회철학과 사회지도 이념이 부족하다 보니 기복주의적 축

복신앙에만 몰입한 듯 싶습니다. 교회 비판에 대해 반박하거나 변론할 생각 말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세를 보이면 좋겠습니다.



윤성련 집사

윤성련 집사: 3.1운동의 시작점에 복음으로 개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사회개혁과 정의구현에도 성령충만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에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를 지키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교회의 대형화와 사회지도계층이 많아지면서 지킬 것이 많아서인지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선배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이익에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않고 시대적 사명을 잃어지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시대를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쉽습니다.

이창은 성도: 예전에는 교회가 24시간 개방되어 오가며 기도하고 안식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문을 잠그는 시대가 되어 씁쓸합니다. 교회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져 그럴까요?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가장 많이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고 더욱 더 사회에 내놓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교인의 모습이 더욱 많아져야 하리라 봅니다.

진정 거듭나 섬기고 나누며 24시간 열려 안식 제공하는 교회되어야

윤경로 장로: 예전엔 교회가 지식과 문화에서 사회를 앞서 선도하였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뒤지고 영향력도 감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정의롭고 정직하여 가치집단을 이룬 교회였는데 우리 사회에 건강한 권위가 실종되고 과거사에 묶여 미래지향적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통일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가 많은데 교회가 어찌하여야 할까요?

김혜원 권사: 요즘 사회에는 여성과 청년의 사회참여가 높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목사, 시무장로 비율이 아직도 높지 않음은 교회가 세상보다 뒤쳐진 모습입니다. 고령화한 교회 지도층과 소통이 어려우니 청년층도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성참여 할당을 높이고 청년을 키워야 합니다.

윤경로 장로: '개미'로 유명한 최재천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가 원래 여성 중심의 모계사회였는데 후대로 오면서 남존여비로 차별받았다가 요즘 다시 모계사회로 가는 현상을 보인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교회에서부터 실천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통일 준비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해야

조동준 집사: 교회가 통일을 준비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 합니다. 개화기 이래 3.1운동 당시 교회가 축첩, 노름을 거부하고 금주, 금연을 실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였듯이 어떤 사회문제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후에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공산권 붕괴후 사회타락이 극심하였듯이 북한도 붕괴가 일어나면 혼란은 극심할 겁니다. 가령 북한군 특수부대원 다수가 조직폭력원으로 흡수될 수 있고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붕괴가 일어나 흡수통일이 저절로 일어나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각계각층이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통일대비 10% 재정 비축 등은 그래서 절실히 교회가 앞서 희생하고 국민 모두 본받아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통일은 현실화하리라 봅니다.



조동준 집사



이창은 형제

이창은 성도: 북한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을 만나 대화해 보면 언론에 비친 북한 현실과 너무 다름을 느낍니다. 경제 차이, 의식 차이가 커서 이들을 낙오자로 만드는 통일 은 오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심정적으로는 통일을 지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청년들도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윤성련 집사: 일부 교회나 공동체 사역자들은 탈북자를 수용해 사회적응을 돕는 공동체를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탈북자를 수용하고 그들의 회복을 돕는 이런 사역이야말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의 실질적이고 참여적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교회부터 통일기금 앞장서면 국민도 동참하게 될 것

윤경로 장로: 말씀을 듣고 보면 교회와 나라가 힘을 합해 통일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먹고 먹히는 통일이 아니라 한민족 상생 구조로 안착되는 길을 모색해야 하리라 봅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 인력이 결합하여 상생 통일하는 모델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외세에 좌우되고 적개심만 증폭되는 길은 막아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김혜원 권사: 민족이 하나된 3.1정신을 생각할 때 앞으로 통일기에도 3.1정신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통일문제도 적개심만 키워서는 안 되며 평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용서와 사랑을 기본으로 하므로 공개적으로 적개심을 부추기고 북한을 타도하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세습을 비판하려면 교회도 세습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되겠지요. 청소년 단기선교도 다변화하여 국제봉사기구 등에 많이 보내 기독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육철 집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헛별도 남북을 고르게 비춰 주시고 하나님도 사랑을 고르게 비추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청년들의 시대가 될 것이므로 청년들은 좌절 말고 북한의 변화가 올 때 남북상생 번영의 길이 무언지 찾아 할 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을 준비한 청년들에게만 한국의 미래는 큰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육철 안수집사

3.1 정신으로 하나 되었듯 남북통일도 3.1 정신으로 화평케 하는 교회가 앞장서야

윤성련 집사: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이라 하였습니다. 어지러운 세상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북한 땅을 위해서 실천신앙을 갖고 복음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동준 집사: 마침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윤 집사님께서 하셔서 그대로 공감합니다.

이창은 성도: 과거에도 많이 다투어 온 우리 민족이 아닌가 생각하며 화평케 하는 일을 청년들이 실천해야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북한 독재정권은 빨리 변해야 하지만, 자유를 모른 채 공포정치 속에 독재에 신음하는 동포들은 우리가 구출하고 품어야 할 동포들이란 점에서 분리하여 생각하면서 한국교회가 사랑과 화해로 기도하고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북한에도 변화가 오리라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윤경로 장로: 오늘 여러 말씀을 나누며 올해 교회 표어인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랴' 는 말씀이 곧 3.1정신을 되새기며 실천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좌담회를 마칩니다.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도편수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전문 건축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술 작품을 놓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계량하여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가장 많은 교회를 설계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매우 분명하다. 자타가 단연 1위로 손꼽는 분이 거림종합건축의 임급주 소장이다. 우리 교회의 공로장로이다. 명실 공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회건축 전문가가 바로 교우라는 사실을 아마 교인들 대부분 잘 몰랐을 것이다.

예배당을 하나하나 설계할 때 마다 영적 계시의 도움

지난해 말 건축가로서의 평생을 정리하여 《생명(生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록 겸 작품집을 발간한 임장로는 그 책에서 361개의 건축 설계 감리 실적 중 예배당 건축실적이 203개라고 밝혔다. 1956년 영남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그는 1965년 건축사법이 제정되고 나서 처음 실시한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 최초로 공인 1급 건축사 면허를 받고 당시 YMCA건물에 <임급주 건축사 사무소>를 열어 본격적인 건축설계를 시작했다. 실적 번호 361번은 용인시에 세운 구성교회인데 그 날짜가 2010년 1월이다. 1924년생으로 미수(米壽)의 나이 88세가 지났는데도 아직 현역이다. 그 비결

은 무엇일까? 회고록의 제목 그대로 생령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한 자락을 생[生]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신령한 은혜를 령[靈]이라고 한다면 재주는 없지만 평생 생과 령의 조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온 것 같습니다.”라고 감회에 젖은 임장로는 반백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지어온 대단한 업적을 모두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 크고 작은 많은 예배당 건축설계를 할 때마다 이에 적합한 창의력과 통찰력, 종합적 예술 감각을 살려 주셔서 200여 예배당을 서로 다른 특색 있는 작품으로 설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설계할 때 미리 영감을 주어 구체적으로 이루게 하신 도편수이신 하나님의 영적 계시의 도움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 피난시절 30대의 장로로, 건축가로 일하면서 문학소녀 황경운을 만나

평안남도 순천군 자산면 기탄리.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100여 리 거리에 있는 이 마을에는 임장로가 어렸을 때 이미 철도와 국도가 지나가고 있었고, 동쪽은 대동강에 면하는 부두가 있어 선교사들이 일찍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 마을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은 1897년. 새문안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되는 해다. 한 교인의 집에서 기탄교회라는 이름으로 현판을 걸고 예배를 드리다가 1936년에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60평짜리 고딕식 붉은 벽돌 예배당으로 개축했다. 교인들이 총동원되어 돌과 벽돌을 날랐던 그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임장로는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성전건축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개화된 이 지역은 일제 때는 기독교인이어서 공산치하에서는 반동분자라고 온갖 박해를 받았는데 임장로는 1·4후퇴 때 월남을 하여 대구에서 피난생활을 했다. 대구에서도 피난민들이 모여 성동교회라는 이름의 천막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성경공부와 주일학교 봉사를 하였는데



1954년 만 30세의 나이에 장로로 장립되었다. 천막교회가 부흥하여 몇 년 후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어 두 번째로 교회 건축을 경험하게 된다.

영남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1956년에 학사 졸업한 후에 대구에서 첫 직장을 얻었는데, 당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건축 전공하고 돌아온 조자용 씨의 건축연구소에서 최첨단의 서양 현대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의 기회였다. 그 때 대구 동산기독병원 종합증개축을 하는 동안 병원장인 황용운 장로의 여동생을 알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문학소녀가 지금의 황경운 공로장로다.

광림교회, 온누리교회 등 봉헌 후 큰 교회로 성장해 감회가 깊어

임급주 장로는 1960년, 10여년의 애환이 서린 대구를 떠나 서울로 와서 YMCA 회관 재건 건축위원회에 기술감독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새문안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수많은 교회 건축 중 몇 가지를 꼽으라면 우선 성결교회 최대 교회인 중앙성결교회를 들 수 있고 김선도 목사가 시무하는 광림교회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설계를 의뢰 받았던 1978년 을지로5가에 있던 광림교회는 교인수가 불과 350~400명 정도였는데 대예배실이

4,000석이고 연건평은 2,500평이었다.

“제가 설계한 광림교회 대예배당이 입당예배를 드리고 나서 불과 1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로 부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이 헤아리지 못한다 것을 깨달았으며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역사는 온누리교회로 이어진다. 최순영 장로의 소개로 하용조 목사를 만난 것은 1989년이었다. 용산동에 대지면적 789평, 연면적 2,650평, 대예배실 2,600석, 지하 3층·지상 5층의 큰 교회 구상을 하고 있었던 하용조 목사가 한남동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던 그 당시의 교인수는 불과 100여 명이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한 후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표적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당이 하나하나 기쁘게 봉헌되고 교회 마다 놀랍게 부흥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를 들어 성전 건축을 설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장로는 최근에 지은 교회 중에서 그의 철학과 예술성이 가장 잘 표현된 작품이 포항에 세운 효자교회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교회 건축을 통해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면서 일생을 보냈다고 말했다.

새성전이 시대를 뛰어넘는 역사적인 작품이 되기를

지금의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한 논의는 1966년 김병욱 장로를 위원장으로 하는 건축위원회가 조직 되고나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출석교인은 750에서 800명 정도였다. 본당의 좌석수를 1,500으로 하느냐 1,000석으로 하느냐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도심 상주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1,000석으로 확정되었다. 가장 중요한 건축가 선정은 지명 경선을 하기로 하고 두 명의 후보를 선정했다. 한 분은 대구시절부터 YMCA 재건축까지 같이 일해왔던 하버드 출신의 조자용 씨였고 다른 한 분은 비운의 황태자 영친왕 이은과 일본 황실의 공주 이방자 여사의 사이에서 태어난 황태손이며 미국의 MIT를 졸업하고 돌아온 이구 씨였다. 당대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쟁쟁한 미국 명문대 출신인 신예 건축가 두 분 중 조자용 안은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작품이었고, 이구 안은 서양식의 모던한 작품이었는데 이구 안이 채택되었다.

임장로는 1996년부터 기독교 2000년 기념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재개발을 통한 새예배당 건축을 논의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지난 16년 간의 새성전 추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 고향인 기탄교회에서 찍은 교회학교 졸업 기념사진.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임급주 청년이다.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의 평생 노후가 새문안 새성전 건축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다.

“저는 그 동안의 경륜과 지식을 토대로 지금까지 성전 건축 계획단계에서 세 번의 당회원들과의 공식 간담회에 참석하여 건축에 대한 분석, 성전건축의 방법과 순위, 성전건축 착공전에 우선하는 제반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며, 편리한 모든 시설을 갖춘 합리적인 작품으로 잘 다듬어져서 역사적이고 성경과 신학적으로 상징성을 갖춘 훌륭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2년 전 지명설계자 현상을 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본 교회의 등록교인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소는 응모를 제한했었다. 그 때문에 50년간의 교회 건축의 실적과 명성을 가진 임장로가 반세기 동안 사랑하고

봉사해왔던 새문안교회의 새성전 설계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쉬움이 당연히 있었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다 내려놓고 뒤에서 후진들을 격려하는 일만 남았다고 겸손하게 말을 마쳤다. 동네 어귀의 믿음직하고 정겨운 큰 느티나무처럼 새문안 새성전 건축을 지켜보겠다면서 마지막으로 예배당 건축의 대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예배당이 하나님께 봉헌될 예술품으로서 시대를 초월한 하나의 ‘건축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독창성, 조화와 균형, 통일성, 그리고 진실성을 가져야 하며, 건축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당 건축의 새로운 방향은 이러한 건축의 기본적인 원리 위에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새 대담·정리 | 유재현 장로

(교회건축위원회 기획행정분과 서기)

*새성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보다 구체적인 상황설명을 위한 설명회가 은퇴장로님들을 모시고 지난 2월 26일 주일 11시 제3교육관 은퇴장로실에서 열렸다. 방안 가득 움직임 틈도 없이 자리를 꽉 채우고 마치 숨소리도 절제하시는 듯 앉아 계신 장로님들의 열심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새성전 건축이 본 과도에 올라 박차를 가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글쓴이 주)

2012년, “건축 · 이전과 공간 배치 · 재정확보” 3대 과제 실천

건축위원장, 은퇴장로회에서 건축 원칙과 이전계획 설명

글 | 원영희 권사

은퇴장로회 회장이신 김경산 장로는 설명회를 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대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 감사하며 헌당할 수 있도록” 또 “은혜롭고 성스럽게 실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시무장

로들, 건축위원회의 노고를 기억하며 우리 은퇴장로들과 모든 교인들이 합심 기도하기를, 모든 일정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계획되고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간구했다.

발표자료를 미리 나눠드린 후, 건축위원





▲ 지도하는 김경산 장로



▲ 설명하는 이덕실 장로

장 이덕실 장로는 우선 2011년에는 전 교인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워크숍과 수련회, 설명회를 했다면서 지난 해 성과를 간단히 정리했다. 이어 올 해는 “건축과 이전과 공간 배치기획, 재정확보” 3대 과제를 실천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 드리며, 사회와 기독교계에 모범이 되는 교회 성전건축의 전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건축위원장은 현재 예배당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새 성전을 짓는 우리 교회의 건축은 최근에 새성전건축을 한 다른 교회보다 상황이 좀 더 어려운 부분을 성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길 당부했다.

다음은 이번 설명회에서 이덕실 위원장이 설명한 현재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큰 질문에 대한 “2012년 2월 현재까지의 계획에 의거한” 답 요약(Q & A)이다.

Q1. 건축기본계획은?

A1. 본당은 예배와 교육 중심 공간으로 기획한다.

- 약 4,232㎡(1,280평)에 연면적 약 29,627㎡(8,962평)
- 지하 5층 지상 13층으로 구성. 전체 높이 약 68m ~ 70m
- 지상 1, 2층 로비(친교, 휴게, 소통의 공간)
- 지상 3, 4, 5층 본당(예배실)
- 지상 6층 예배관련 부서

- 지상 7층~12층 교육공간
- 지하는 청년예배실, 분반공부실 주차장(105대 주차 가능), 기계실

Q2. 본당 예배석은?

A2. 예배실 규모: 총 2,840석(성도 2,700석, 찬양대 120석, 관현악단 15석)
바닥: 약 2,248㎡(약 680평/
현재와 비교해 3배 넓이)

Q3.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하나?

A3. 2012년 1월부터 도시계획구역 변경허가 준비, 교통영향평가, 정비사업시행에 따르는 사업승인, 상세설계준비. 10월까지 건축허가, 도시정비사업, 환경정비사업 승인을 얻고, 시공사 선정. 따라서 착공은 2013년 4월 중으로 계획하며, 준공은 2015년 6월, 모든 인허가가 순조로울 경우, 12월 입당 가능하다.

Q4. 총 공사비와 재정규모는?

A4. 건축자금은 약 총 880억 원 예상 (용역비, 공사비, 입주비용, 토지매입비금융비용 등등 포함).

Q5. 건축재정 조달 방안은?

A5. 건축현금, 특정현금, 건축재정 통한 기금, 외부기관, 인사들 특별현금, 지

원비, 특별 이벤트 기획

Q6. 공사 기간 중 예배 처소와 부서 배치 계획은?

A6. 모든 주일예배는 감신대(예정), 교회 교육은 언더우드교육관, 선교단체, 제직부서와 행정부처는 광화문빌딩을 사용한다는 3대 원칙에 따른다. 단, 청년예배와 새벽기도, 이른아침예배, 직장인예배, 만나예배, 금요일 밤기도회, 권찰회 등은 언더우드교육관을 사용한다. 기타 언더우드교육관의 공간 부족 시에는 임시이전 처소 예정지인 감신대에서 수용한다.

Q7. 부지매입 현황은?

A7. 많은 진척이 있는 가운데 아직도 논의 중에 있으나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새**

새성전건축 NEWS 뉴스

새성전건축 NEWS뉴스

2월 첫 수요예배에서 새성전건축을 위해 합심기도 건축위 부위원장 나순구 권사가 인도

2012년 첫 수요일 예배는 새성전 건축을 위한 2012년 2월 첫 수요일 예배는 지난 2월 1일,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로 드렸다.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인 나순구 권사 인도로 드린 예배에서 특별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선교사인 정균오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사도행전 20장 22절~24절 말씀을 근거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정 목사는 우리들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모든 것에 앞선다며, 블라디보스톡 선교문화센터 건축 과정에 대해서도 간증했다. 또한 우리 새문안에 주신 새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만큼 본문 24절 말씀처럼 “나의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헌신의 마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건축을 위한 기도회에서는 건축위 홍보팀이 준비한 한기림 찬양대 대원들 인터뷰와 기도, 동영상을 본 후 합심해 기도했다. 2교구 총무 차혜경 권사가 전 성도들의 합심과 참여, 설계자와

협력회사들의 성실한 협력을 위해 기도했고 권사회 회장 권혜진 권사가 건축 재정과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건축위원회 기획행정분과
담임목사와 당회 기획위원회 간담회개최**

이수영 담임목사와 당회 기획위원들을 초청한 건축위 기획행정분과(분과위원장 김용담 장로) 간담회가 지난 2월 23일 목요일 광화문빌딩 220호에서 있었다.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여에 걸친 회의에서는 특별히 공사 중 교회학교 운영의 문제와 준공 후 예배 순서, 헌금과 성찬식 방식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했다. 당회 기획위원장 윤경로 장로의 기도로 시작한 간담회는 기행위원장 김용담 장로의 간담회 목적 설명에 이어 기획팀장 김홍배 집사가 <공사 중 장소 사용 계획>을 발표했다. 열띤 질의응답이 있던 후 기획팀장 윤호기 집사가 <새성전 사용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표했다. 특별히 이수영 담임 목사는 교회학교 이전 대원칙을 “교사와 학생의 교육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제하며 그 외의 불편은 감수하는 쪽으로 정했다. 기행위 서기 유재현 장로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 3월 중에 교회학교 목회자 교사 연석 간담회를 열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20쪽)

**하나님이 새문안에 주시는 새 예배당
<그 은혜를 나누는 기도(1)> 발간**

건축위원회(위원장 이덕실 장로)는 새문안 성도들이 합심하여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에 더욱 힘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집을 발간 배포한다. <하나님이 새문안에 주시는 새 예배당: 그 은혜를 나누는 기도>는 우선 3권 연작으로 3월, 6월, 9월에 발간할 예정인데 각 권마다 40 여개의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제목이 실린다. 건축위 기획행정분과 홍



보팀은 교회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9월까지 125개 기도제목을 완성해 기도집으로 엮을 계획이며 모든 기도제목은 새문안교회 모바일 콘텐츠

(m.saemoonan.org)화하여 스마트폰으로 상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은퇴장로를 위한 건축현황 설명회
건축위원장 이덕실 장로가 진행**

새성전건축 현황설명을 위한 설명회가 은퇴장로님들을 모시고 지난 2월 26일 주일 11시 제3교육관 은퇴장로실에서 열렸다. 은퇴장로회 회장인신 김경산 장로는 설명회를 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대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 감사하며 헌당할 수 있도록” 또 “은혜스럽고 성스럽게 실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시무장로들, 건축위원회의 노고를 기억하며 우리 은퇴장로들과 모든 교인들이 합심 기도하기를, 모든 일정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계획되고 순직하게 진행되기를” 간구했다. 설명을 맡은 건축위원장 이덕실 장로는 건축 기본계획과 아울러 현재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6대 질문 “1.언제 착공, 언제 입당하는가?, 2.건축 규모는? 본당 예배석은?, 3.총공사비는?재정규모는?, 4.재정 조달 계획은?, 5.건축기간 중 예배 처소는?, 6.부지매입은?” 등에 대한 자세한 답과 설명을 친절히 전달했고, 모든 은퇴장로들은 박수로 격려했다. **새**

건축뉴스 기사·사진 제공 |
건축위원회홍보팀장 원영희 권사

제1차 새성전 기획행정 간담회

2월23일(목) 오후 6시30분부터 <제1차 새성전 기획행정 간담회>가 이수영 담임목사, 윤경로 기획위원장, 이덕실 건축위원장, 김용담 기획분과위원장, 조성도 재정분과위원장, 유재현 기획분과서기, 한도성 건설본부장, 김홍배, 윤호기 기획팀장, 원영희 홍보팀장이 광화문빌딩에 모여 이수영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첫 모임이 시작되었다.

먼저 김용담 기획행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성전 건축으로 인한 공사 중 공간배치문제와 새성전 사용상 결정에 참석자들의 진지한 의견을 요구했다.

김홍배 집사의 보고로 <공사 중 공간배치> 안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었다.

1) 주일예배

① 금년 1월 부별 출석통계

1부	2부	3부	4부	5부	저녁
530명	912명	1844명	1256명	882명	300명

- ② 1-4부 예배는 감리교신학대 웨슬리채플 관 본당에서 드리는데, 감리교신학대 웨슬리채플관 공간 이용시, 본당(1270석) + 소예배실(70석) + 로비(160석)으로 최대한 1,500석 가능하여 제직들은 가급적 2, 4부 예배 권장하고,
- ③ 2012년 5월부터 익년 12월까지 동대문교회가 감리교신학대 건물을 이용함으로써, 새문안교회 의견은 동대문교회가 10시-11시까지나 오후1시-2시 사이 예배를 드려야 새문안 3부예배와 중복을 피함

을 감리교신학대에 통보키로 하고

3층(언더우드홀)	4층(비전홀)	합 계
370 석	370석	740석

- ④ 언더우드교육관의 3층과 4층 예배공간은 의자 재배열시 공사 중 청년·대학생의 5부 예배와 교육을 현행대로 언더우드교육관에서 진행할 경우와 감리교신학대에서 진행 할 경우의 장단점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담당 교역자, 지도위원, 자치회임원 등과 추가간담회를 통해 장소를 결정키로 하다.

2) 교육1부 교회학교

- ① 공사 중 언더우드교육관 1층 카페를 어린이집으로 개조하여 유아부와 유치부가 사용하고
- ② 공사 중 초등부교육을 현행대로 언더우드교육관에서 진행할 경우와 감리교신 학대에서 진행할 경우를 논의한 결과 담당교역자, 교사, 학부모등과 간담회를 가져 논의 후 결정하되, 원칙은 교사와 학생의 교육 편의성에 맞추기로 하다.

3) 주차장

- ① 주일 주차대수: 700대
- ② 감리교신학대의 주차가능대수는 250대 정도로 광화문의 고려주차장과 대우빌딩 주차장도 병행운영을 검토한다.

4) 친교실 운영

감리교신학대학에서의 주일예배 참석교인들을 위한 조식과 중식 제공은 감리교신 학대와 친교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음으로 윤호기 집사의 <새성전 사용상 필요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1) 이수영 목사님의 구상으로 강단은 신비스럽고 거룩한 모습의 지성소 개념으로 10m x 10m x 10m로 건축되고 예배순서 담당자 좌석 배치는 강단을 피해 낮은 곳에 배치한다.
- 2) 준공 후의 현금방식과 현금함 위치는 현행방식을 따라서 하되 회중석 중간에도 적절히 둔다.
- 3) 새성전의 성찬식도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하며 회중석 중간에도 성찬상을 적절히 둔다.

- 4) 새성전에는 스크린 대신 LED영상패널을 두되 운영방식은 현행처럼 필요한 경우에만 천장중앙에서 내려오도록 한다.
- 5) 청년·대학생 예배 시간 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새성전에서는 청년들이 부흥할 것이며 이수영 목사님은 대예배실에서 2,700명의 청년들과의 예배를 희망하셨다.
- 6) 저녁 찬양예배시간 조정도 고려하지 않는다.

진지한 논의 끝에 9시30분경 다음회의를 기약하며 이수영 목사님의 기도로 폐회하였다. **새** 글 | 김흥배 집사



감리교신학대학교 방문

1월30일(월) 오후2시 이수영 담임목사와 새성전 기획행정분과위원장인 김용담 장로는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방문했다. 먼저 내년부터 주일에 배를 드릴 웨슬리채플관의 본당을 비롯하여 세미나실, 중강당, 강의실, 식당 등 곳곳을 둘러보고는, 김흥기 총장을 만나 내년 4월부터 3년간 사용할 장소사용 문제를 논의했다. **새**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무는 성전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성전건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문안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택하신 백성과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저희에게 새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오니 저희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옵시고, 또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먼저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교회가 먼저 기도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동안 온 성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어떠한 부정한 생각이나 불신도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의 허물 어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개인마다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새문안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전도와 선교를 향한 열정이 가득하게 하셔서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하는 것을 우리 모두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맡은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건축위원들, 또 설계자와 건축회사 등 택하신 자들을 돌아보시사 주

께서 주신 모든 지혜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수고하는 동안 저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셔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차혜경 권사(2교구 총무)

하나님 아버지! 건축하는동안 많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이 불평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또한 날씨도 주관해 주시고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변의 민원 등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막아주셔서 기간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험푼한 길로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새 성전에서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교육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길 원하오니 새 성전이 이 모든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새 성전에 그대로 이뤄지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卍

정초석, 표지석

새성전건축



(사진1) 정초석

1. 정초석

해방 후 1946년 4월 28일 당회는 “본 교회 증축은 교우 일동이 다년간 희망해 온 바 당회가 증축기로 가결하고 내[來] 5월 5일 제직회에서 결의하기로 작정한다.”고 하였고 제직회도 제3차 교회건축인 종탑예배당 증축을 결의하였다.

1946년 7월 1일 시공하고 8월 28일 정초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에 김영주 목사, 기도에 원한경 박사, 건축경과보고에 이봉희 장로, 교회약사에 노덕순 장로가 순서를 담당하며 사진의 정초석이 안치되었다. (사진 1)

2. 禮拜堂(예배당) 표지석

제3차 교회건축은 1948년 봄에 준공되었고 이 때 예배당 표지석이 부착된다. (사진 2, 3)



(사진2) 종탑예배당(1949년)



(사진3) 예배당표지석

3. 새문안 표지석



(사진4) 새문안표지석



(사진5) 개축종탑교회당(1957년)

1957년 교회 창립70주년 기념으로 벽돌예배당을 리모델링하여 교회마당에서 2층으로 통하는 옥외계단과 로비를 만들고 3개의 벽돌아치로 지지대를 설치한다. 설계는 김중업씨가 하였고, 이때 《禮拜堂》표지석 위에 강신명 목사가 쓴 《새문안》표지석이 올려진다. (사진4, 5) 새

글 | 김흥배 집사

훈훈한 고백

입춘, 우수가 지나가고 있는 데도 겨울의 싸늘한 기운이 봄기운을 등으로 밀고 버티며 물러서지를 않는다. 그래도 봄은 오고야 말거다. 더듬이를 쭉 밀어 올린다. 우리에게 훈훈한 소식이 들려 온 곳은 뜻밖의 곳이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권찰회가 개강하던 날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은 과제인 구역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활성화를 바라며 구역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는 수련회가 있었다.

구역 돌보기

수양관 담당으로 겨울방학이면 더 바쁜 최연자 권사를 어렵게 만났다. 구역장으로서 사례 발표를 하신 네 분 중에 한 분이시다. 그의 구역 돌보기는 진지하며 다양하다. 구역원의 형편을 세밀히 살핀다. 때로는 쌀을 갖다 놓기도 한다. 구역원들의 교회생활을 일일이 인도하여 자리 잡도록 한다. 주일 예배 후에는 구역예배에서 만나지 못한 구역식구들과 직접 전도한 사람들을 만나 보아야 하기에 찾느라고 늘 마당에서 두리번거린다. 식사도 대접한다. 청년들은 언더우드 카페에서 만난다. 장례식을 치른 가정에서는 그 중 믿지 않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이끈다. 사료관으로 안내하고 전도폭발 훈련에서 배운 요약적인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한다. 잘 인도 되어 집사 권사의 길로 들어서게 될 때면 너무나도 기쁘다. 구역예배의 식구가 늘어나면 구역장이 없는 곳으로 파견도 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교회일로 바빠 구역 일에 소홀해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를 제일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해보면 답은 구역일에 열심히 할 때라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만다. 이 모든 것이 삶의 처음 멘토가 되어주신 구역장에게서 온전히 배운 것이라고 한다.

신앙의 어머니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만난 한남동의 구역장, 부 구역장을 나의 신앙생활의 어머니요 영적 어머니 라고 제일 먼저 고백을 하고 싶다고 한다. 그 분들을 통해 은혜를 입었고 배웠고 훈련을 받았다. 그분들은 처음에는 목사님도 없이 심방을 오셔서 할머니처럼, 어머니처럼 인도해 주시고 늘 달래고 위로해 주셨다.

자녀도 없고 형편도 어렵고 심신이 지치고 마음은 상해 있었을 때다. 그 전에는 부부가 다 절에 다녔는데 오래 전에 늘 전도하던 옛 친구가 생각 나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로 한 때가 1982년 이었다. 첫 심방 후 내 모습이 너무 안돼 보였는지 전화를 계속 걸어주셨다.

“야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하나님께 맡겨라, 자녀가 없으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어려울 때는 더 줄이고 몸을 낮출 줄도 알아야 한다.”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역 섬기는 모습을 보여 주셨다. 아무리 좁은 집에서도 구역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하셨고 넉넉지 않아도 알뜰히 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먹이시고 목사님 대접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다. 열마를 지나니 집사 직분을 받으라고 권고하셨다. 서약서 10개



최연자 권사

조항을 읽어보니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식당문을 닫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답을 듣고 돌아가셨다. 3개월 후에 집사를 받게 되었다. 그 때에야 교회에 제대로 받을 들여 놓게 됐다. 성경공부 해라 봉사 해라 십일조 해야 된 다 알려주시니 그대로 하고 지켰다.

늘 배운 것을 기억하며 함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된다. 신앙의 선배들은 물질, 마음, 시간도 다 헌신했는데 우리들은 모두 못 한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어 어른이 못된 채 신앙의 어린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한다.

고백하는 기쁨

이야기 하는 동안 마음이 훈훈해 진다. 기억을 더듬는다. 감사할 분들이 있다. 떠오르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신앙생활의 언니가 되어 준 분도 있다. 존경스러운 신앙의 모델이신 분도 있다. 인상적인 구역장도 있다. 영적 어머니? 믿음의 형님? 이름은 무엇이라도 좋다. 이 봄에는 찾아가 그분들에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당신은 나의 OOO(!)였노라고-고백하는 기쁨, 고백을 듣는 감격이 교회안에서 훈훈한 바람이 되어 가득할 것 같다. **새**

취재 | 편집부



▲ 신앙의 어머니 김경옥, 김수경 권사

고백을 도와드립니다

‘훈훈한 고백’을 해주실 분은 심방부장(김창란 장로)과 각 교구 총무 및 홍보출판부(02-738-599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각 교구총무 명단

1교구 : 김수연 권사	2교구 : 차혜경 권사	3교구 : 김태기 권사
4교구 : 배경남 권사	5교구 : 정형자 권사	6교구 : 이영희 권사
7교구 : 조은경 권사	8교구 : 이옥실 권사	9교구 : 김옥순 권사
10교구 : 이지숙 권사	11교구 : 박범례 권사	

기드온전대 발대식을 마치고

기드온전대 발대식이 지난 2월26일 신관1층에서 어린이전대팀과 스포츠전대팀 등 20여개 전대팀으로 구성되어 성황리에 출범하였다.

2012년 표어인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실천하는 전 교회적인 차원의 전도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지난 3년간 새생명운동의 결실이 기드온전대라는 열매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담임목사님께서 매주 목요일을 “전도의 날”로 선포하시고 영하 10도의 강추위와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철에도 쉬지 않고 교회주변 광화문일대에서 10만여장의 전도지와 접촉물을 나누어주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또한 전도학교도 초급과정인 1일전도학교, 중급과정인 바울전도학교, 고급과정인 전도폭발훈련 교육과정을 통해 전도의 열정을 품은 많은 분들이 배출되고 실제 현장에서 전도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별히 각 제직부서에서 활동하는 봉사자와 전도활동이 기드온전대 안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자원봉사부의 호스피스봉사, 집짓기 봉사, 청소년문화선교부의 학원상담, 소년소녀가장 어머니 봉사 등을 전도활동으로 연결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딱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과 섬김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8·15 구국기도회시 900명이 넘는 전교인이 담임목사님과 함께 광화문, 시청역, 서대문역, 경복궁역 주변까지 흩어져 노방 전도를 하는 새문안 역사 초유의 전도운동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다. 소명받은 특정한 성도만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루에 세끼 밥을 먹듯 복음을 전해야 한다.

양육위원회에서는 매주 주일 3시에 양육위원회 사무실에서 모여 기드온전대를 위해 기도하였고 세부적인 운영계획도 수립하였다. 2012년은 새문안교회 전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기드온전대 발대식을 준비

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였다. 전교회적인 귀중한 행사를 어떻게 알리고 다양한 전대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염려가 앞섰다. 하지만 중급과정인 바울전도학교를 2월4일 토요일 개강하면서 그 염려는 사라졌다.

이두희 전도부 지도목사님의 명쾌한 말씀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통해 전도 현장에서 성경적인 이론으로 무장할 수 있었고, 강동협 목사님의 복음제시법 강의는 듣기만해도 암송해야 할 많은 글들이 자동으로 암송되는 놀라운움을 체험하고, 정인상목사님의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풍성히 열매맺는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으로 4주간 교육으로 전도현장으로 나가서 수십명의 결신자를 보면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목도하였다. 실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항상 도와 주신다는 사실을 말이다.

2월 26일 오후 4시 40분 신관 1층이 꽉 차기 시작했다. 물론 815구국기도회시와 같이 초등부, 중등부, 대학청년부 등 교육1,2부가 인접은



손세창 집사(전도부 총무)



안수집사님들이 중양은 장로님, 권사님과 전도 폭발, 바울전도학교 훈련자와 각 전대팀으로 꼭 채워졌다. 전도대 찬양팀의 열정어린 찬송, 광파례에 맞춰 기드온전대 각 팀의 기수단 행진이 이어졌고, 곧이어 전도부 부장이신 백승현 장로님의 사회로 기드온발대식 개회가 선언되었으며 전도부 차장이신 김성성 안수집사의 기도와 이두희 지도목사님의 “선포와 착한 행실로 전도하기”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다. 전체가 일어나 기드온전대 선서를 했고 이수영 담임목사님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격려사에서 이수영 담임목사님께서 기드온전대(戰隊)의 의미를 말씀하실 때 그 전자가 영적 전쟁의 전자이고, 300명이라는 소수의 기드온전사가 수만명의 적군에게 승리하는 것을 보아야 하나님께서 모두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는 것이니 정예부대인 기드온전대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가 하시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이어서 양육위원장이신 민경찬장로님의 새생명운동의 계승으로서 먼저 우리가 행복하도록 축복의 말씀하시며 그 행복을 이웃에게 전하도록 축사를 해주셨고, 전 전도부장이신 이기연 장로님께서도 우리교인이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

씀으로 축사가 마무리되었다.

뒤를 이어 김영대 안수집사와 김종현 집사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새생명운동을 돌아보면서 비전을 함께 나누었고 우리의 다짐시간에는 안지선자매와 조성우 형제를 중심으로한 마임(Mime)팀의 특별공연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지를 알게 하였으며 전도의 구호제창의 순서로 1부를 마쳤다.

2부시간에는 김계주 안수집사의 사회로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되었고 전도대별로 팀장 중심으로 팀원간에 인사를 나누면서 다음의 활동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으며, 많은 교인들이 오셨는데도 음식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 이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신 양육위원장님과 새교우부, 심방부 그리고 도와주신 전교인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오실 때까지 영혼구원의 열정으로 전도를 생활화하여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모두는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에 우뚝 세워질 새성전에 가득 차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그려본다. 복음의 열기가 식어가는 이 나라에 우리 교회가 북한을 포함한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고 또한 세계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임을 깊이 깨닫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에 영광을 돌린다. 새

텐트메이커 사역의 고뇌와 환희

1. 세무대학의 회계학 교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 진학해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대학원을 마친 후 일년 후에 국립세무대학에서 회계학을 강의하게 되었다. 이때 세무대학 캠퍼스에는 기독교학생회가 있었는데, 그 모임을 인도하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제자훈련을 하기도 했다.

2. OMF 허입

OMF(허드슨 테일러에 의해 세워진 CIM의 후신으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사역하는 전문단체)는 1865년 중국 내지 선교회(CIM)의 후신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OMF 필드는 나에게 중부 자바에 있는 유서 깊은 교육도시 족자카르타에 있는 두따와짜나 대학에서 강의하도록 연결해 주었다.

3. 두따와짜나 대학 교수

• 해매는 강의

내가 족자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두따와짜나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나를 입국하게 해 준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회계학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므로 나름대로는 틈틈이 복음을 증거 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영성한 인도네시아어로는 그 동안 가르쳐 본 회계학 강의는 박사학위나 10년의 교수 경력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강의 시작 후 30분만 지나면 상당수의 학생이 화장실에 간다며 강의실을 빠져나갔



손창남 (OMF 선교사)

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의 이상한 인도네시아 말을 흉내 내면서 놀리곤 했다. 더 비참한 일도 있었다. 하루는 조교가 찾아 와서 이번 학기말고사 문제는 자신이 내면 어떻게든 친절한(?) 제의를 해 왔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고 조용히 묻자, 그녀는 '교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학생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신이 다른 것을 가르쳤노라'고 대답했다.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 조교는 대학교 4학년이었다.

4. 인도네시아 쟁이 사역

• 영어를 배우려는 대학생들

그 후 피나는 노력 끝에 언어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에 두 명의 학생이 찾아왔다. 그들은 이곳 족자의 제일 좋은 대학인 '가자마다' 대학교 학생들이었다. 그 중 한 학생은 내가 가르치는 회계학 강의를 위해 조교가 되고 싶어서 나를 찾아 온 것이다.

영어를 가르치는 틈틈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어느 날 한 학생에게 이사야 53

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 주었는데, 그것을 들은 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몇 명의 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었다.

세 번째 학기에는 30명 정도 모여서 캠프를 했다. 대부분의 행사는 게임, 재미있는 여흥으로 꾸미고, 저녁식사 후에 한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 했다.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내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7명의 학생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했다.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있는 후 영접하였고, 사역은 크게 일어났다. 나는 이런 학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저녁이면 하숙집을 찾아다니곤 했다.

5. 전문인 사역자의 딜레마

• 총장의 꾸지람

사역지에서 7년 정도 보냈을 때 개척한 초이 학생사역이 점점 성장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 때쯤 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헌신된 형제 몇 명을 전임사역자로 세워 주셨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교수로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초창기에 비해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나 교수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따와짜나 대학교 총장님이 나는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고 총장실로 갔다. 그 전날 사랑하던 구나완이라고 하는 전임 간사 형제 한 명이 갑자기 질식사로 죽어서 마음이 심난 한 상태였다. 영문을 모르고 들어 간 총장실에서 나는 아주 의외의 꾸중을 총장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총장님은 갑자기 “손 교수는 이곳에 회계학 교수로 왔는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 93년 성탄절에 레크레이션을 인도



것보다 죠이 사역에 더 열심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손 교수님을 초대한 것은 그런 사역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회계학 교수로서 공헌을 기대해서입니다. 만약 이대로 나가면 국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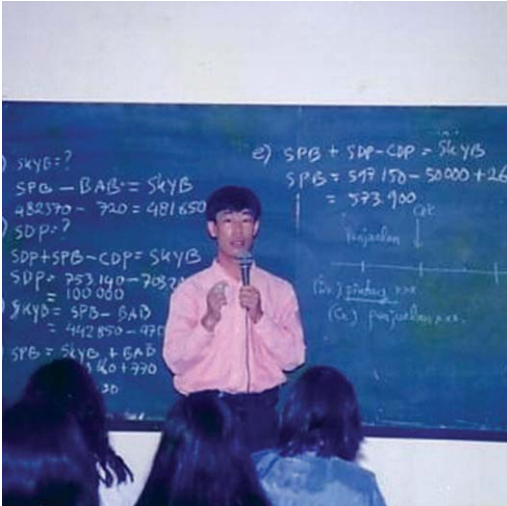
나는 총장님의 말에 어의가 없었다. 죠이 사역이 커짐에 따라 죠이 사역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 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7년 동안을 돌이켜 보면 나는 두파와짜나 대학에서 회계학 강의하는 것을 게을리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심지어 나는 안식년을 방학에만 보내고 강의를 계속할 정도로 학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총장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법 위반 운운하면서 위협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서운했다.

• 시말서 사건

총장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지 두 주일 쯤 지나서 비자연장을 하기 위한 서류에 싸인을 해 달라고 총무과 직원이 집으로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그 직원은 싸인하러 사무

실에 들르실 때 시말서를 한 장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직원은 총장님이 그러시는데, 딱 손이 다시는 죠이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두파와짜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말서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총장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때만 해도 백번을 좋게 생각해서 총장님이 나에게 대해서 기대가 있어서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말서를 쓰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곧바로 총장실로 갔다. 나는 총장님께 정색을 하고 물었다. “총장님,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그런 시말서는 범법을 한 사람에게나 요구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죠이에서 열심히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살라고 돕는 것이라는 것을 총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시말서를 쓰라고 한다면 저는 비자가 말소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강하게 말했다.

총장님은 처음에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 말을 경청하고는 생각해 보니 “손



▲ 수련회를 마친 후

교수, 내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 손 교수가 내년부터는 우리 대학에 더 헌신하겠다고 했으니 시말서 건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총장실을 나왔다. 기분을 풀고 보다 본업에 충실하려고 했으나 두파와짜나 대학에 많은 공헌을 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나는 한국 오엠에프의 대표를 맡게 되어서 부득이 두파와짜나 대학교의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6. 전문인 사역의 스펙트럼

전문인 선교사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은 경우 전문인 사역과 관련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용어들은 평신도 선교사 (Lay missionary) 전문인 선교사 (Professional missionary) 자비량 선교사 (Self-supporting missionary) 텐트 메이커 (Tent-maker)가 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는 다양한 요구가 있다. 각 영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건너와서 돕기를 원하고 있다. 기간을 고정하지 않으며, 사역의 형태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다. 목회자 선교사를 제외하면 모두 평신도 선교사다. 물론 가톨릭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오늘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에 관한 개념도 재정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문인 선교는 의료부문에 한정되었다. 평신도선교 중 유일하게 교회파송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인정된 것이 의료영역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 특히 유아교육 등 교육전반으로 확대해야 하고, 각종 시공기술자도 포함해야 한다. KOICA 등의 교육과정에는 이미 이런 영역이 포함되어 실행되고 있다.

‘자비량’은 사역자가 자신의 각종 연금이나 저축성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6개월 이상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선교사에게는 교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감독이 필수로 요구된다. 목회사역이 아니기에 사역의 정체성도 확립시켜 주어야 하고 교회와의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사역의 성과가 크기에 적어도 일정수준까지는 자비량선교사에게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 4가지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텐트메이커 선교를 지향하고자 한다. **새**

글 | 김두연 집사

몽골에 변화의 바람을

저희 내외가 몽골 울란바타르에 온 지 벌써 3년 반이 되었습니다. 차츰 몽골 사회와 몽골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하는 일에도 탄력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곳의 기온은 영하 35도, 최고기온이라도 영하 15도 안팎입니다. 잠시 한국에 나가면 오히려 서먹한 느낌이 드는 것을 보면 우리들도 모르게 몽골 생활에 적응되어가고 있나 봅니다. 공기오염도가 세계2위라는 오명을 가진 울란바타르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40년 넘게 가르치던 연세대(간호학)를

조기 정년하고 전문인 선교사로 울란바타르대학교 간호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아내(오가실)의 사역보고입니다.

선교지에 온 후 아내는 두 차례의 큰 수술(유방과 폐)로 건강이 크게 염려되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술후유증으로 지난 해 정초에 손바닥 수술을 받은 것이 마지막 건강문제인 양 지난 여름에는 몽골에서 사륜구동차를 타고 열흘 넘게 비포장도로를 2,000km 이상 달렸어도 잘 견디었습니다.

세계 2011년은 지금까지 몽골 생활 중 기념비적인 한 해일 것입니다. 간호대학 첫 졸업생을 배출한 해이며 또 간호대학도 몽골 사회 안에서 가장 좋은 평판을 받는 대학,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제1회 졸업생 전원이 간호사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받은 간호사를 배출하여 몽골 간호교육의 새 역사를 썼다는 사실로 감사하였습니다. 또 첫 졸업생 중 한 명이 금년 봄부터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합니다. 장학금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여러 교수님들이 품앗이를 해주셔서, 간호학 교수가 전무하다시피한 간호교육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물세 분 이상의 간호학 교수님들이 자비량으로 오셔서 강의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간호대학생들에게 국제적 안목을 더해 주기 위하여 두 주간의 한국 의료기관 연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원을 기도하였습니다. 고맙게도 지난 2년간 두 기관에서 도움을 주셔서 학생들이 한국 체험을 하게 되었고 우물 밖 세계를 돌아보며 꿈을 품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몽골을 방문하여 봉사하는 학생들을 돕는 일 또한 제가 하는 일에 흐뭇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을지대학교 봉사단과 한림대 의료관광 현장체험이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을 더하고 있



안경덕, 오가실 선교사

습니다. 몽골의 의료계는 아직도 러시아어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몽골어, 한국어가 병기되는 간호학 용어사전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만 독지가가 지원해 주시는 이 사업이 미래의 몽골 의학과 간호교육의 전환점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11월에는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 지원으로 미국 켄터키 루이빌에서 열렸던 의료선교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5,000명 넘는 의료선교사들, 학생들을 비롯한 선교지원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 경험을 나누고 간증하며 의료선교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선교가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의 사역임을 절감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링컨의 생가방문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뉴욕에 사시는 집안 어른들을 찾아 뵙고 한 교회에서 짧게나마 선교보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은 몽골을 열흘 넘게 여행하면서 몽골의 속살을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강인한 유목민들의 자취가 곳곳에 서려 있는 것을 보았고, 한때 이곳에 수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았다는 사실에 남다른 감회가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대학원 간호학 석사과정 개설, 한국 교수님들의 원활한 강의지원, 몽골 교수들의 해외연수, 일차 건강관리 연구소 재원 마련 등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안경덕)는 2010년 6월부터 “몽골을 일깨우자”는 표제로 교양필독서(몽골어) 발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으로 아래와 같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한국라이온스클럽에서 『라오찬 여행기』(유약), 『홍길동전』(허균), 『퀴바디스』(센케비치), 『모든 것이 무너지다』(아체베), 『고백론』(어거스틴) 등 5권을 발간하도록 도와주셨고,



2. 또 다른 두 분의 후원으로 『시편, 잠언』(몽골어) 쪽 성경 10,000부를 한국에서 제작하여 몽골의 교도소에 배포했습니다. 8,000명의 재소자들에게 복음이 스며들어 가리라는 기쁨을 감사와 함께 전합니다.
3. 몽골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몽골민족문학을 총정리한 『몽골문학 100년선집』(전5권)과 『간디 자서전』의 편집을 끝내고 후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4.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교수들의 후원으로 발간할 『이태준 전기』는 한국어판과 몽골어판을 동시에 출간할 예정으로 작가 선정을 끝냈습니다.

새해부터 저는 독립적으로 ‘대학연합출판원(Intervarsity Press of Mongolia)’을 설립하여 교양필독서 발간사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몽골인들과 함께 전국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합니다. 이미 몇 개의 대학생 독서클럽이 결성되었으며 일반인의 참여도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을 위해 의식 있는 몽골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데는 수백 년의 세월과 피나는 노력과 참여가 거름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독교 문헌의 출판과 독서운동을 통한 선교의 기본적인 토양을 만들어 몽골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

네팔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같은 하늘 아래 아프리카의 선교를 꿈꾸며 살던 두 청년이 새문안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주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 하고, 또 함께 두나미스 네팔을 통해 네팔 땅에 처음 함께 첫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두나미스 기간 중 각자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합하여 2009년 여름, 3년을 계획으로 한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네팔로 떠났지요.

위에 보시는 사진처럼 네팔엔 저리도 흥취하고 신도 아닌 헛된 것에 열심으로 경배하고 믿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보고 있노라니 안타까우면서 때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찌 저런 것들을 신이라 믿으며 마음을 다해 열심으로 믿는지……. 네팔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이 같은 거룩한 불만족 때문이었지요. 저희 부부는 네팔 두나미스로 인연이 된 타 교회 파송 김성광, 장성란 선교사님, 새문안교회 파송 최지해 선교사님과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는 신학교, 호스텔에서 컴퓨터와 음악 교육 및 교회음악 사역, 현지 교회 찬양 팀과 주일학교 사역, 음악,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현지인 및 MK 대상으로



01



02



03



04



05

- 01. 미스바 교회 주일학교
- 02. 지방 전도 여행 찐드라니커벨 주일학교 전도 프로그램
- 03. 미스바 교회 주일학교
- 04. 우상숭배하는 네팔인들
- 05. 유니온 신학대학교 사역 모습

피아노, 음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지만 2년여 네팔에서 섬기며 우리가 바라는 건 우선 네팔의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그들의 노래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를, 사회 의식과 문화의 변화 속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 청년들이 부디 그들의 가정과 이웃, 지역, 나라를 변화 시키는 주역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러한 바람에서 네팔 동역자 청년 한 명(Saran chhetri)과 함께 잠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팔을 떠나기 전, 네팔의 예배와 찬양을 이끌어 갈 일군을 심는 심정으로 9개월을 기도했고, 또 이 한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 저희 뿐 아닌 많은 기도 동역자를 동참 시키셨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훈련과 예배 및 경험을 통해 Saran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은혜와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과 음란, 혼탁한 영이 가득한 선교지에서 영적으로 많이 놀리며 쉽게 지치고 힘들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러기에 더 그분을 붙잡아야 했고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때론 말 못할 아픔과 억울함 들도 있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또한 회개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할 따름 입니다.

5개월 후 에는 네팔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와 지역으로 주저하지 않고 갈 것 입니다.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며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 입니다. **새 글 | 이광석, 김지인** 선교사

민통선 안에 봄바람 불어넣고

우리 교회 북한선교부는 "복음으로 민족통일"이라는 목표로 북한선교사역에 열심히 힘쓰고 있다. 매주 탈북성도들과 더불어 성경공부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으며, 대북지원 단체에 기도와 후원으로 북한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월9일 이수영 담임목사님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민족사랑나눔(이사장 립인식 목사) 정기총회에 다녀왔다. 보통 정기총회는 민사나 사무실에서 열리는 데 2012년 올해는 특별히 민통선안에 있는 송악기도처와 JSA교회에서 열렸다.

민사나는 북한에 있는 고아원에 빵과 두유를 보내고 있으며, 의약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이다. 새문안교회를 비롯하여 50개 교회가 이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으며 많은 의류, 제약회사들도 동참하고 있다.

송악기도처는 민통선내에 있는 송악OP(대북 감시초소)가 전진 배치 되어, 기존의 사용하던

초소가 쓸모없게 되자 그 곳을 기도처로 수리한 곳이다. 그곳에 오르면 드넓은 평지가 한 눈에 들어오고 저 멀리 북한의 위장마을도 보이며 개성공단도 희미하게 보인다. 눈앞에 북한땅을 두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다. 험벗고 굶주린 북녘동포를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하루 빨리 북한땅의 변화가 오길 간절히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우리 일행은 공동경비구역에 방문했다. 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JSA경비대대에 도착한 우리는 부대 내에 있는 안보견학관에 들러 약 20분간 JSA부대와 판문점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보며 브리핑을 받았고, 2층에 있는 전시실을 관람한 후, 판문점으로 들어 갔다. 판문점내에는 바닥의 콘크리트선과 10M 간격으로 땅에 고정된 흰 말뚝이 남과 북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다.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대치하여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인민

땅 끝까지



▲ 정기총회(송악기도처)



군들이 우리 일행을 카메라에 담아간다. 긴장감도 많이 들지만 무엇보다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비무장지대 안에는 남한의 대성동마을과 북한의 기정동마을이 있다. 불과 그 거리는 1.8km밖에 안 되지만, 국기계양대에 걸쳐 있는 각각의 태극기와 인공기를 보니 그 현실이 더 맘속 깊이 와 닿는다. 특히 북한 기정동마을에 걸쳐 있는 인공기의 크기는 가로30m, 세로 15m, 무게 275kg에 이른다고 한다. 마치 김정일의 권력을 상징하듯이 말이다. 판문점을 빠져나와 JSA교회로 와서 정기총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 다음주에는 북한선교부 제1차영성수련회를 가졌다.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인 김주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북한의 경제상황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현재 개성공단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북한도 엿볼 수 있었고, 기독교인으로서 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였다.

북한은 구조적으로 의식주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경제가 몰락하였고, 오직 삼대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해 수많은 동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두실까하는 생각이 드는 이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북한을 왜 이대로

두시는지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통일을 허락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과연 얼마나 북한 동포를 공홀히 여겼으며 그들을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 했는가? 언젠가 통일의 그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진 않았는가? 스스로 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민족사랑나눔의 이사장인 림인식 목사님의 말씀처럼 혹시라도 “저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는 조건부 신앙보다는, “남을 돕고 북한을 돕는게 경제적으로 손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북한동포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해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

그리하여 우리가 북한에 대하여 공홀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돕고자 힘 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리라 믿고, 먼저 남한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탈북성도들의 기도 또한 들어 주시리라 확신한다.

올 한 해 동안 북한선교부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어, 우리 새문안가족 모두가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세 글 | 이종범 집사**



▲ 우리 교회에는 세 분의 외국인 목회자가(좌측 두번째부터 몽골인 예배 알찬치맥 목사, 중국어 예배, 장마가 목사, 베트남인 예배 보득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다. 추위가 한풀 꺾인 2월 초, 환한 미스로 대담장을 찾은 이분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며 사역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어머니의 품 속에서, 광야에서 신앙을 키워온 사람들

- 때와 곳 : 2012년 2월 12일(주일) 오전 10시 홍보출판부
- 참석자 : 알탄치맥 목사(몽골), 장마가 목사(중국), 보득찌 전도사(베트남)
- 사회자 : 이철용 집사(홍보출판부)



이철용 집사(사회자)

날씨가 많이 풀렸지요? 세분의 국가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인데 어떻게 기독교에 입문 하셨는지요? 더욱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요?

장마가(중국) : 저는 무신론 국가에 살고 있었기에 공식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4대째 이어온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집은 마을의 예배 장소라서 어릴 적부터 할머니를 따라 예배를 드렸으며 그로인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엄격한 신앙교육 덕분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무신론 교육에 흔들리지 않았고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을 목양할 교역자가 없었기에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마태 9:37) 처럼 목자가 필요 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로 헌신해야겠다는 꿈을

키웠고, 몇 년후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대학에 진학하여 4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고향의 교회에 돌아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국의 종교 상황은 지역마다 다르고 특정 장소에서 공개적인 ‘선교활동’은 금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선교활동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득찌(베트남) : 베트남에는 1911년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어언 10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부 출신이기에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많은 교회가 세워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우리 집안 역시 내 자녀까지 5대째 내려오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모태신앙인 가족입니다. 독실한 신앙인인 어머니는 일곱명의 누이를 낳으시고 나서 간구하기를 ‘이들을 주시면 목회자로 인도 하겠다’고 주님께 약속 하셨습니다.

저 역시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인도로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탄 하지만은 않았습니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이기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의 통제를 받고 목사 안수 받기가 힘들어 저요. 해외 출국도 어

렵구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한국에 와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며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한 지는 꽤 오래 됐지만 이런 연유로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알탄치맥 목사
(몽골)

씩씩하고 활달하며 우리말이 능숙한 알탄치맥 목사는 1967년생으로 친근한 이웃집 아줌마 같은 인상으로 '한국이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1991년 몽골 국립 의대 졸업후 1999년 까지 약사로 근무, 수의사인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 남편과 사별후 기독교에 귀의. 2003년 서울 장신대학교 신학과 2학년 편입, 2006년 졸업.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이 좋다며 고국도 믿음의 자유가 만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유목민의 후예답게 고기류를 좋아한다며 한국의 불고기와 삼겹살을 꼽는다. 설악산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알탄치맥(몽골) : 저는 두 분과 다르게 몽골에서 한국 선교사를 통해 교회를 다녔지만 큰 믿음은 없었습니다. 1999년에 한국에 돈을 벌러 왔는데 이곳 생활이 너무 힘들어 몽골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녔어요. 서로 위로하고 친교하며 신앙 생활을 하다보니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님의 부르심이랄까, 믿음에 이끌려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냐며 심한 반대를 했어요. 몽골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어 생활비를 부쳐주어야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불법으로 체류 하면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느라 매우 힘들었어요.

제가 고국에서는 약사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열심히 일해도 안하는 사람과 월급에 차이가 없고 그럴바에 한국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약국을 차리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약사로 아픈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것 보다 영을 치유하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 나라의 기독교인 수와 교회는 얼마나 됩니까?

보득찌 : 베트남 인구가 8,900만명 인데 개신교만 2%입니다. 교회 수는 북부보다 남부 쪽에 훨씬 많이 있어요. 전쟁 전 미국의 선교사들이 30여 년간 헌신한 결과입니다.

알탄치맥 : 몽골에는 400개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 졌구요 신도 수는 300만 인구의 5%정도입니다.

장마가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10년 한 통계에 의하면 신도 수 1억명에 가정 교회 수는 80여 만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0년까지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2억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나라에 온지는 언제이며 교회에서의 목회 활동을 설명해 주시지요? 또 목회에서 가장 주안점(비전)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안과 치유를 통해 믿음의 싹을 키우고 싶어

알찬치맥 : 저는 꽤 오래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벌써 13년이 됩니다. 주중에는 심방을 다니며 곤경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장안동의 외국인 청소년센터에 출강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작지만 몽골인들을 위한 신학교도 세웠습니다. 주일에는 오후 3시에 몽골인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이 예배에는 4살 꼬마부터 19살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몽골에도 그렇고 이들을 인도할 목회자의 수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싶으며 가장 모범적인 교회와 선교센터를 세우고 싶습니다.

사회자 : 비전이 굉장히 크시군요. 목사님의 그 뜻이 꼭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득찌 : 저는 1998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어 학당에서 한글을 배우고 주중에는 심방을 하고 주일에는 구역예배도 드리며 주일에는 4부 예배에서 베트남 동시통역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3시에는 신관 2층에서 베트남인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으며 100여 명의 등록 성도가 있고 매주 4~5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 역시 여기에서 충분히 공부해서 고국에 돌아가 교회도 세우고 신학대학에서 목자를 길러내는 목회교수를 하고 싶습니다.



보득찌 전도사
(베트남)

우리 음식 중 김치찌개와 냉면을 좋아하는 보득찌 전도사는 1975년생, 자녀가 세명이다. 모두가 아들이다. 아직 우리말이 능숙하지는 않지만 단어를 구사하는 솜씨가 훌륭하며 준수한 용모다. 베트남에서 중,고교 대학을 마치고 1997년 호치민 사범대 물리학과를 졸업, 1998년 서울에 와서 서울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2001년 서울 장신대 신학과를 마치고 2009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석사를 마쳤다. 현재 연세연합학 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에 도전하고 있다. 기후와 풍광이 고국과 닮은 제주도를 좋아 한다고.

장마가 : 저는 2007년에 왔으니 두 분에 비해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달 가량의 중국유학생 전도를 통하여 중국인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기도회와 찬양연습을 하고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성경공부를 인도합니다. 50여 명의 인원 중 중국유학생이 30여 명, 한국인 성도도 15명 됩니다. 대부분의 중



국유학생들이 여기 오기 전에는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 잘 모릅니다. 우선 관계형성에 중점을 두고 그 단계가 지나면 복음을 제시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계절별 수련회, 야외예배, 추석연합집회, 구정만찬회 같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언어와 풍습이 다른 한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힘들었겠지만 그것을 극복한 목회자입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알탄치맥 : 저는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중,고교를 한국에서 마치고 몽골에서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0년 결혼했고 아들이 두 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보득찌 : 저는 아들만 셋 이구요. 여기에

서 다섯 식구가 함께 삽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한국말이 서툴러서 어려워 하지만 빨리 따라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 아내와는 사범대를 다닐 때 청년들을 지도하는 교회에서 만나 9년을 교제했고 결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마가 : 사역 관계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관계만은 아주 친밀합니다. 처음에 저 혼자 왔고 후에 아내와 아들이 왔습니다. 아내는 현재 세계선교신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아들은 화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모두 이름있는 기독교 가문이었습니다. 교회 지인의 소개로 연애결혼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회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 새문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운 뜻 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어



장마가 목사
(중국)

자유와 활기찬 한국의 역동성이 좋다는 장마가 목사는 1968생, 1987년 중국의 한 단대학교를 졸업하고 2001년 남경금령협화신학원과 2008년 북경대학원에서 기독교연구전공을 하고 2011년 서울의 장신대학원에서 목회자 과정을 마쳤다. 현재 주안대학원에서 신학석사를 공부하고 있다. 우리 음식으로는 삼겹살과 삼계탕을 좋아하고 인상적인 여행지는 제주도를 꼽았다.

장마가 : 최근 중국에서 한국에 온 유학생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7만여 명으로 한국에 온 유학생 전체 중 84%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앞으로 이 수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중국인 예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캠퍼스 내에서도 중국인 예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시기라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인 유학생 복음화 사역에 더욱 헌신하고 한국에서 신학박사 과정까지 공부하여 고국에 돌아가면 교회 개척과 신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새문안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어 감사했고 즐겁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어가 서툴러 제 마음을 제

대로 표현하지 못해 교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교회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 새문안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씨에 씨에(감사합니다).

보득찌 : 우리 나라에서는 종교의 제약 때문에 자료가 부족해 공부하기가 어렵지만 한국은 풍부한 자료와 서적이 있기에 공부하는데 조금도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계속 정진하여 베트남도 기독교가 성행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나라, 선교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도록 헌신하고 싶습니다. 새문안교회의 많은 지원에 감사드리며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베트남 교인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 께언(감사합니다).

알탄치맥 : 예전 징기스칸은 무력으로 세계의 절반을 점령했지만, 저는 복음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선교의 제국을 세우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위로와 치유를 받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더욱이 새문안 교회는 단순한 성전이 아닌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더욱 사랑으로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는 교회의 여러 부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이르샤

사회자 : 척박한 종교적 환경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을 뵈니까 새삼 저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는 성경 말씀처럼 복음의 결실이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난 겨울,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교회 어르신 여섯분이 일본을 다녀왔다. - 최효원 장로 (86), 이한우 장로(83), 한두석 집사(80), 유형수 장로 (78), 안경순 장로(78) 문윤수 집사 (74) - 나이순이다.

한두 사람이 모여

“우리 목사님이 일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요. 교회에서 일본 신학생을 받아 12년을 공부와 함께 사역을 하게 하시고 목사, 박사, 교수가 되도록 하신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님은 노회차원에서 또한 일본 총회차원에서 교류하고 계신 반면 우리는 밑바닥 선교차원에서 교류를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한우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한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은 숫자지만 모여보자 해서 모임의 이름을 한두회로 지었다. 그리고 보니 모인 사람 중에 한두석 집사가 있어 그 이름이 참 우연일까? 아니면 좀

젊어서일까? 한두석 집사는 회장으로 추대됐다.

규슈 사세보지역을 가다.

“일본 규슈지방은 긴 일본 열도의 최서남단으로 일본 유일한 청정 안전지역입니다. 낙도가 많고 고금의 역사 중에는 우리와 악연이 서린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나라를 침략하던 전진기지였고, 그 때 잡혀간 도공들이 14대째 도자기 가문을 이어오는 곳으로 이제는 명승지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일제 시작되기 전에는 싸스마 항에서 정한론을 주장해서 한반도가 식민지가 되는 요부꼬 전쟁기지도 거기에 있어 다녀왔습니다. 16세기에 기독교가 그 곳으로 상륙하여 막부정권이 260년 동안 금령을 내렸다가 명치 유신 때야 해금을 해 기독교가 살아남았으나 일본 국민성이 흔쾌히 용납치 않고 있지요, 이번에 가보니 40여 개 교회가 사세보 지역에 있다는 것에 고무적이었고 선교지로 기반 조성이 되어있다는 확인을 하는 기회였습니다.” 한



▲ 노익장 선교단- 왼쪽부터 문윤수 집사, 유형수 장로, 이한우 장로, 안경순 장로, 최효원 장로, 한두석 집사



▲ 삼포천주교회



▲ 일본교회 전도지
“Good News를 알려드립니다.”

두석 회장의 말이다. 순교자가 많았던 곳 그래서 순교지가 또한 많아 방문하고 기도할 곳이 많았다. 더불어 발견한 것은 마음은 있어도 잡신이 많아 교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졌다.

하늘 가기 전 사명

“내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보겠나이다. 엘리야의 기도가 생각이 나고 그 때 엘리야의 나이가 85세라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우리 나이는 은퇴하였지만 하늘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자는 사명을 감당하자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 담당, 안경순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3박 4일 동안의 예배 제목은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항해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로 정했다. 매일 시편 37: 3-6의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를 암송하고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앞사귀는 많으나 열매가 없는 삶이 되지 않게……”, “겉은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추한 세상적 탐욕으로 가득찼던 예루살렘 성전 같은 저희가 되지 않게 ……” 라는 내용으로 공동기도문을 만들어 함께 기도했다.

사세보 침례교회와, 제일 오래된-125년전에 세워진- 삼포 천주교회를 방문하고 거리에서는 전도지를 돌렸다. 천주교회 올라니스트의 아베마리아 환영 노래와 함께 2명의 일본인 명예회원도 얻었고 앞으로의 사업에 협조하겠다는 언약도 받았다.

노익장 선교단

일본에도 한국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는 꽤 많이 있다. 이 어른 선교단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들을 친구로 삼는 새로운 선교방식을 꿈꾼다. 일본어 교사 자격증이 있는 이분들은

자칭 “업그레이드 된 선교”를 구상한다. 1592년 임진왜란을 위해 진격이 시작되었던 기지, 한국문명이 전해진 그 곳, 네델란드로부터 의술, 천문학, 기독교가 전수되었던 곳, 그러나 기독교 탄압과 순교사건이 제일 처참하고 극심했던 곳- 일본의 자위대가 거주하는 곳, 중국을 향한 큰 항구로 일본에게는 달갈의 노른 자위 같은 그 곳으로 올해도 간다. 우리를 탄압했던 원수나라이지만 예수이름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지역 중에 무인도였던 한 섬으로 갈 예정이다. 규수에는 거의 100개의 섬이 있다, 그 중에 한 무인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로 인하여 이제는 700명이 살게 된 섬으로 올 여름에는 가서 함께 여행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며 친구가 될 예정이다.

젊은 세대가 향하는 선교지로 동아시아, 아프리카와는 또 다른 차별성이 있는 일본, 아니 뭔가 방향이 서지 않고 편치 않은 그 곳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아니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떠나는 노익장 선교단은 새롭다. 이분들의 기도는 갈렙의 기도와 같으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새

인터뷰 · 정리 | 이승리 권사

초대마당

3월의 넷째주
주일의 오후 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주일의 오후

피아니스트 김정은의 작은음악회



Program

- All Christmas of Our God and King - Arr. 김정은
- 가을날의 사랑 - 김정은
- Retrato de Alfredo Gótzke - Astor Piazzolla
- Cher de lune - Claude Debussy
- Le vie gresson - Claude Debussy

◎ 일시: 2012년 3월 25일 (주일) 오후 1시
◎ 장소: 새문안교회 언더우드교육관 1층
◎ 주관: 청소년문화선교부



청소년문화선교부 (부장 이혁 장로)의 문화선교팀이 마련한 “음악과 함께하는 주일의 오후” 작은 음악회가 2월 26일 (주일) 오후 1시 언더우드교육관 1층 홀에서 13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플루티스트 성해라 성도(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5교구 성세경, 장순향 집사 자제)와 피아니스트 김명현 성도(한국예술종합학교, NIV 영어예배 반주자, 1교구 김홍봉, 김미경 집사 자제)의 연주와 심현아 집사의 연주곡 해설과 함께 40분간 진행되었다. 문화선교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는 본 음악회는 매월 넷째 주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며, 이번 달은 3월 25일(주일) 피아니스트 김정은 집사(예본찬양대 피아니스트, 새벽찬양대 반주자, 6교구 오창련 권사 자제)가 직접 작곡한 곡들을 포함한 피아노 작품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새

“청소년의 자존감 증진과 건강한 진로 지도를 돕기 위한 코칭 역량의 향상을 위한 원리와 방법”

7차 좋은부모교실

성공한 선수 뒤에는 유능한 코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가장 좋은 코치입니다.
코칭이란 자녀의 자기 주도력을 향상 시키는 새로운 자녀 양육 방법입니다.

강 의 주 제

- 제1강 코칭의 목적과 믿음의 힘 3/13
- 제2강 코칭 대화 과정 3/20
- 제3강 코칭 질문법 3/27
- 제4강 청소년의 심리 이해 - 가면의 심리 4/3
- 제5강 효과적인 진로 코칭 4/10

강사 김덕범 목사
아라가족성장연구소 부소장
패밀리 코칭 전문가
사티어 가족치료 전문가

일시 2012. 3. 13 ~ 4. 10 매주 화요일 오전10-오후12시 **대상** 청소년을 둔 학부모
장소 새문안교회 언더우드교육관 4층 비전홀 **주관** 청소년문화선교부 (문의 및 신청 010. 2608. 6090)

망
끝
까
지

토요무지개학교 1학기 개강

3월 3일(토) 11시 언더우드교육관 3층 언더우드홀에서 드린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토요무지개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재개의 일곱 빛깔에 맞추어 구성된 7개 교실 중에서 **“뮤지컬 합창단”, “English Bible”, “신나는 스포츠 Part1 - 탁구”, “만나 암송교실”**이 가장 먼저 수업을 시작하고, 초등부 각 부서 별로 진행되는 **“정직 학교”와 “어린이 세계관”**은 4월 14일 첫 수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번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비전학교”**는 4월 28일을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체험학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 5일 수업 확대 시행으로 인해 토요일 각자의 시간을 보내야 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신앙교육에 집중하고, 바른 신앙과 가치관 위에 학업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토요무지개학교가 활성화되어 새문안교회의 새로운 신앙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1기 새문안 아기학교 개강

따뜻한 봄과 함께 새문안 아기학교가 3월 13일(화요일) 3월 15일(목요일) 개강합니다. 아기학교는 엄마와 함께하는 주중유아신앙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활동, 미술활동, 신체활동, 스토리텔링, 야외활동(달기따기 체험, 동물원, 도자기 만들기) 등으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기학교는 본 교회 교인 뿐만 아니라 타 교회 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주1회 화요일, 목요일으로 12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문의 - 김유리 전도사(010-7474-7897)

초등부 학부모 “온(溫) 기도회”

지난 2월 25일(토) 10시~12시까지 언더우드교육관 B317호에서 초등부 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첫 번째로 **“온(溫)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도회 이름처럼 자녀와 교회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15가정, 30명의 학생·부모와 교사, 교역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김은선 전도사(초등 123 I 부)와 교사들이 밝은 미소로 맞으며 시작된 기도회는 유승민 전도사(초등 456 I 부)의 열정의 찬양 인도와 최효정 전도사(초등 123 II 부)의 따뜻한 설교, 김성경 전도사(초등 456 II 부)의 뜨거운 기도 인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새 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축복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점점 아이들과 마음의 교감을 나누기 힘들어져가는 현실 속에서 참석한 부모님과 교사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적, 육체적 교감을 나누었고, 서로의 따뜻함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울림, 새문안 온 가족 예배”

1월 29일(주일) 초등부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울림, 새문안 온 가족 예배”**, 그 두 번째로 고등부가 2월 26일(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18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들이 본당 가

장 왼쪽 줄을 가득 채워 앉아 새문안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 드림을 통해 자녀들은 선배들의 경건한 예배의 모습과 바른 신앙을 이어받고, 어른들은 다음세대의 주역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이 예배를 통해 새문안교회에서 신앙의 대 잇기 가 잘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여~ 새벽을 깨워라! - 토요 이른아침기도회

최근에 토요일 이른아침 기도회에 참여한 새문안 성도들이라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교회학교 자녀들이 새벽을 깨워 아침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초등부 학생들이 먼저 부모들과 함께 이른 아침을 깨웠다면, 올해는 청소년들이 먼저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에서 제자훈련으로 새롭게 시작한 토요등대학교 1기 <스스로 학습법>의 시작을 이른아침기도회로 시작하여 참여할 것을 독려했고, 고등부를 중심으로 광화문빌딩 3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요 빛 독서실”**도 이른 아침 예배로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3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 토요 이른아침기도회가 더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부터는 초등부에서 다시 **“부모와 함께 하는 토요 이른아침기도회”**를 시작하여, 더 많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토요 이른아침기도회에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교회 대청소”** 등 다양한 행사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회 정문에 붙어 있는 현수막처럼 많은 새문안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멋진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2012년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 토요등대학교

주 5일 수업을 맞이하여 새문안 중등부, 고등부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제자훈련인 **“청소년 토요등대학교”**를 시작합니다. 지난 2월에 4주간 진행된 <스스로 학습법 & 스스로 영어청취>를 확대 시행하여, 3월 10일(토)부터 매주 9~12시까지 진행합니다. 9시~10시까지는 강사 이윤표 안수집사의 진행으로 **“스스로 학습법 - 수학 & 과학”**이 진행되고, 10시~12시까지는 강사 박이희 전도사의 **“스스로 영어청취”**가 이어집니다. 또한 오후 1시~3시에는 **“신나는 스포츠 Part1 - 탁구”**가 국가대표 출신 박이희 전도사의 지도로 초등부 신청자와 함께 진행됩니다. 이외 다양한 교실들을 계획하여 진행할 예정이니,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중등부 최요한 전도사 (010-4633-2672) 고등부 백상환 전도사 (010-4781-7852) ☎

※ 3월 주요행사

1. **탁아부 성경학교** - 3월 4일(주일) 오전 11시 30분 / 탁아부실
 2. **6기 새문안 교사교육원 개강** - 3월 8일(목) 저녁 7시 / 언더우드교육관 4층
- 정리 | 최요한 전도사(교육부·중등부)



유아1부 작은별 성경학교



- 01_ “참 기쁘게 예배드려요!” - 예배 성경책 만들기
- 02_ 헬륨풍선 잔치
- 03_ 신나는 자유놀이
- 04_ 작은별 예배

유치 | 부 ✦



01

02



03

- 01_ 누가누가 잘 만들었나
- 02_ 즐거운 설교시간
- 03_ 다함께 한자리에



초등 123 | 부 성경학교



- 01_ 입을 크게 벌려
- 02_ 즐거운 공과시간
- 03_ 우리는 빛의 자녀

초등 123 II부



01



02



03

- 01_ 어울림 놀이터 바구니를 뒤집어라!
- 02_ 어울림 놀이터 바람아 불어라!
- 03_ 맛있는 어울림- 사이좋게 간식도 나누어 먹어요!



초등 456 | 부 어울림 수련회



01



02



03

- 01_ 친구들과 함께 하는 뜨거운 조별 미니게임
- 02_ 무지개 방 센터학습 중 "지혜의 방" 미션 수행 중
- 03_ 신나게 열심히 눈썰매를 타는 친구들

어울림 수련회에 다녀와서

“하나님을 빛내는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17~19일까지
새문안 수양관에서 초등 456 II부 그 뜨거웠던 시간들을 돌아본다.

수련회는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올 때는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궁금하였는데 저는 수련회를 통해 정의와 정직과 믿음을 배웠습니다. (4학년, 황재욱)

나는 이 수련회에서 많은 걸 공부했다. 같은 속소에 있는 형들이 무서울 줄 알았는데 형들마다 각각 형들의 장점이 있는것 같다. 나한테 수련회는 진짜 방학이었다. (4학년, 권도윤)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사람 수가 부족해서 해보지 못한 활동들을 해서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간식배틀때 우리조가 1등을 해서 너무나 신났다.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수다를 떨다가 자는 것도 정말 오랫동안이었다. 런닝맨을 할 때는 내가 진짜로 유재석, 송지호가 된 것 같았다. 수련회를 와서 친구들과 더 친해진 것 같다. (6학년, 원유경)

4학년 애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더 친해진 것 같다. 좀더 재미있게 성경을 배운 것 같고, 영화도 재미있었다. 저스티스도 배웠는데 안중근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쫓겼다. 밤에 운동장에 가서 하늘을 보았는데 별이 너무나도 반짝거렸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아쉬웠다. 하지만 이것들이 추억에 남을 것 같다. (5학년, 이성호)

수련회는 나에게 ‘무조건 가서 놀아야지’ 이런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수련회에 왔던 것에 막심한 후회가 되었다. 사도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았는데 ...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시 다짐하였다. (6학년, 이진성)

수련회는 나에게 멋진 것이었다. 수련회를 통해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새롭게 알았고, 정의의 뜻도 깨닫게 되었다. 기상미션, 런닝맨, 올림픽, 영화감상, 저스티스...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수련

회 활동 하나하나가 정말 다 재미있었다.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 수련회 주제처럼 하나님을 빛내는 우리가 된 것 같았다. (5학년, 문혜림)

이번 수련회는 나에게 좀 특별했던 수련회였다. 왜냐하면 내 친구를 데려온 첫 수련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첫째 날 바로 어울림 런닝맨 우리조 우승!! 무척 행복했다. 기도회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김성경 전도사님이 우리를 위해 우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슴에 와 닿았다. (5학년, 길다혜)

수련회를 가기 전에는 가기 싫었다. 그런데 가고 나서 되게 재미있었다. 여러 프로그램과 많은 친구를 사귀어 좋았다. 새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았다. 정말 재미있었다. (4학년, 김윤서)

이번 수련회를 한 마디로 하면 스펀지였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우리도 유익한 많은 것들을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6학년, 이현)

수련회를 올 때는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렸다. 이게 초등부에서의 마지막 겨울 수련회라고 생각하니 무척 아쉬웠다. 수련회를 통해 무엇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빛낼 수 있는지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문상 배틀에서 내가 문상을 얻어서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재미있었던 수련회가 다시 또 오면 좋겠다. (6학년, 최재원)

이번 수련회는 새로운 4학년들과 함께 한 수련회라서 좋았다. 또한 6학년으로 수련회를 맞이해서 더 좋았다. 새로운 4학년을 알아가고 친해져가며 우정을 쌓는 것이 기뻐다. 처음 4학년들을 만났을 때 맘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수련회를 같이 하면서, 4학년 아이들의 장점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롭게 알게 되었다. 수련회는 예수님, 선생님, 친구들 그 모두를 알아가는 시간과도 같았다. (6학년, 김윤겸) 새

초등 456 II부 어울림 수련회



01



02



03



04



05

01_ 애써준 6명의 조장들 02_ 잘 먹겠습니다~ 요절암송 완료!!
03_ 우리 성경써요 04_ 우리 조는 지금 미션 중
05_ 하나님을 빛내는 우리 456 II부

수련회 후기

이번 수련회는 내가 회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준비하는 수련회였다.

그래서 그런지, 준비하는 동안 의견충돌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다. 그리고 준비하는 내내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수련회가 다가왔고, 우리는 준비한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버벅 거렸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대비를 하지 못했지만,

점점 진행할수록 좋은 반응을 들을 수 있었다.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기뻐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 우선, 임원이 되기 전에는 그냥 프로그램이 재미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불평을 했지만, 내가 임원이 되어 프로그램을 준비해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느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세상이 감당 못 할 믿음의 빛의 자녀(믿음으로 세상 보기)'라는 주제였는데, 과연 중등부 학생들 모두가 이

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도회 시간에 열심히 기도를 했고,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닌, 중등부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힘든 일도 많



손유빈 회장 (중등부)

고, 잘 되지 않았던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고, 무엇보다도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온 것 같아서 정말로 기뻐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다. 정말 중등부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나도 중등부를 위해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세**

교우동정

• 최정선 장로

2월 20일 제23회 평신도교육대학원 졸업식에서 총회 평신도지도위원장상을 받았다. 한편 이낙중, 김주현 이기연 장로는 평신도교육대학원 25기로 입학했다.

• 차주환 성도(10교구 파주1구역)

2월 22일 건국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등부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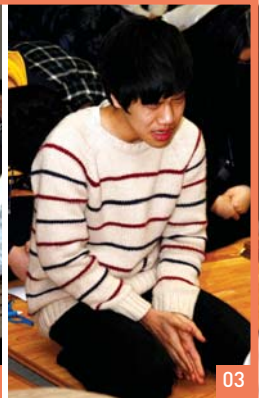
02



03

- 01_ 우리 이쁜 중등부
- 02_ 하나님께 찬양을
- 03_ 몸으로 표현하기

고등부 ✦



- 01_ 수련회 너무 재미있어요
- 02_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넘친 어울림집회
- 03_ 눈물로 기도하며
- 04_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psalm

어울림의 기쁨



김승윤

빛이 있으라! 안녕하세요, 84대 고등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승윤입니다. 저희 고등부는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어울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리에 있는 교회 수양관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작년부터 바뀐 통합반은 아직도 어색하고 생소해서 반 친구들끼리 많이 친해지지 못하여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반끼리 더욱 친해질 수 있도록 여러 반을 합쳐 가족(조)을 편성하였고, 그로 인해 그 동안 친해지지 못했던 반 친구들끼리 매우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양관에 도착하자마자 여는 예배를 드리고,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이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욱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나자마자 새문안 동계올림픽이 열렸고, 서로 협동하는 게임을 통해 가족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고, 많은 친구들이 각기 다른 종목에 출전함으로써 친구들의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시작된 집회는 백상완 전도사님의 인도로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고, 학년별 모임에서는 각 학년마다 가진 특색을 살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날에는 첫날 미처 끝내지 못한 가족 모임을 가져서 각자에게 느꼈던 첫인상을 적어 보기도 하였고, 점심을 먹고 나서는 고등부 부장 주광 장로님께서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루해할까 봐 중간중간 상품도 주셔서 유익한 말씀도 듣고, 상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임원단이 준비한 코너학습을 통해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서

로 다른 가족들을 상대로 만나면서 각 가족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예배당에 모여 조금은 생소한 포크댄스를 추는 시간도 있었는데 많은 친구들과 춤을 추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둘째날의 집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목사님께서 고등부 친구들 한명 한명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셨고, 고등부 찬양팀 쌤의 찬양으로 열기는 집회시간 내내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마지막날, 수양관에서 드린 주일예배를 통해 돌아가서도 이 감동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첫날의 어색했던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진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선 일찍부터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 덕분에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고,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은혜받은 친구들이 더욱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얻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수련회에서도 뜻밖의 시간에 우리와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 서로에게 가진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대화의 결과로 서로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수련회가 끝난 뒤 교회의 이른 아침 예배를 통해 학생들과 선생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번 가는 수련회였지만 특히 이번 수련

회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내가 얼마나 나태하였는지를 깨달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수련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진 고등부가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고, 또 이러한 수련회

를 지켜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기도에 큰 응답을 보여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2박3일 내내 저희의 식사와 간식 야식까지 손수 챙겨주신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ㄸ

기억에 남는 수련회



홍성욱 (84대 부회장)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고3이라는 부담감은 잠시나마 내려놓고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며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또 지루하고 틀에 박힌 일상 가운데 있고 있었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모든 일정이 끝나고 고3들끼리 기도회를 가졌을 때는 '내가 정말 고3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는 고3들만의 유대감이 무엇인지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수련회의 많은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포크댄스였다. 처음에 수련회 가서 포크댄스를 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무리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물론 나는 사진만 찍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재밌고 다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이번 수련회 주제와 가장 어울리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겨울수련회의 서로 어색한 분위기를 한층 풀어 주었던 것 같다.

또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집회이다. 이번 수련회의 밤은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고등부 수련회의 밤보다 훨씬 뜨겁고 은혜로웠다. 이번

집회를 통해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제목을 위해 기도해주실 때 목사님의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 은혜로운 집회를 준비한 PSALM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실 이번 수련회는 나에게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수련회였다. 고등부 임원으로서 준비하는 마지막 수련회였고 또 고등부에서의 마지막 수련회였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부회장은커녕 임원을 맡기에도 능력이 부족했고 내 능력보단 형의 배경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평소에 임원단 활동에 별로 도움을 못 줬던 것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수련회만큼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름대로 분주했던 것 같다. 비록 나는 참가하지 못하겠지만 내 동기들이나 후배들은 이번 수련회에는 참가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수련회에는 꼭 참가해서 친구들과 좀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기를 바란다. ㄸ

*새해 둘째 주 교회학교 교사헌신예배 시 30년 근속을 한 공로로 상을 받아 많은 교우들로부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받은 분이 있다. 현재 중등부 부감인 윤옥균 권사가 그 주인공이다. 것처럼 헌신을 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윤 권사님은 지난 30여 년간 가르친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는 이미 친숙한 이름이다. 현재 교사들은 물론 앞으로 교사가 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귀한 말씀을 부탁했다.(편집자 주)

돌아보니 오직 은혜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된 것인지 그리고 새문안과의 인연은 언제부터 인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일 이기에 감사할 뿐이고 오히려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 복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교사 첫 발령을 받고 1년 반 만에 전근 발령을 받아서 다른 학교로 갑자기 가게 되었어요. 그때 98학급 중에서 2명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야 하는데 희망하시는 분도 많으셨는데 조건이 맞는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발령이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그 학교에 정이 많이 들어서 다른 학교에는 안가겠다고 울기도 했는데 결국 그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근 간 그 학교에서 지금까지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지요. 그 선생님들이 서울 YWCA 청년부 성경공부 클럽인 '빈들' 회원이셨고, 그래서 '빈들' 클럽의 모든 행사에 단골손님으로 자연스럽게 예배문화를 접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도 미션스쿨을 다녔는데도 믿지 않고, 대학교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데 하나님과 같다' 라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나?'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인과응보로 사람이 성실하게 살면 결과가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움직이는 어떤 손이 있구나' 하며 하나님을 생각했죠. 그러

면서 행사 때마다 갔던 빈들클럽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라는 것이 단번에 뺨뚫렸습니다. 다 성령의 도우심이었죠.

새문안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서울

YWCA 청년부의 성경공부하는 '빈들' 클럽에서 성경공부를 지도해 주셨던 송순옥 권사님과 다시 간 학교에서 만나서 '빈들' 클럽을 알게 하신 선생님이 새문안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문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른살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곳이 새문안교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게 된 것은 새문안에 오셔서 바로 시작한 것인가요?

제가 교사교육과정 1기 졸업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교육과정을 1년을 마치고 초등부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교육부 담당이신 정태일 목사님이 학교로 전



윤옥균 권사

화하셔서 “지금 영아부에 교사가 부족한데, 보조교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는 당시 모든 것이 고맙고 ‘믿음은 순종’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때라 초등부교사를 하려던 마음을 접고 바로 영아부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영아부교사 9년과 중등부교사 7년하고 안식년 1년, 다시 중등부교사 6년하고 안식년 1년, 고등부 교사 7년하고 작년에 중등부 부감으로 발령 나서 중등부부감과 교사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늘 12월이 되면 부족함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인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도 형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못했을 텐데, 하고 싶은 마음과 할 수 있도록 형편을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할 뿐입니다.

애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육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관은 무엇인가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내 의가 가득 찬’ 내가 성경말씀으로 변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변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날 변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지배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애들한테 말씀의 달고 오묘한 맛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해요. 말씀을 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씀을 통해 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비가와도 눈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애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게 과제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교사를 하면서 12월에 느끼는 것은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들어가면 애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보게 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대안학교에서 일하신 것으로 아는 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5년 전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교장으로 가는 선배(새문안교회로 인도한)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잘 아시기에 더 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큐티를 하다가 누가복음 4장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라는 말씀에 찢렸습니다.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학교로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기가 힘들어 한 달을 기도하며 끙끙거렸습니다.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뵈던 연로하신 엄마와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핑계를 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 선생이 도와 달라 그러면 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복종하고 대안학교로 갔습니다.

초등학교나 교회 학교와는 다른 경험을 하셨네요. 차이가 많이 있지요?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게 “아, 내가 30년 이상의 교사 경험이나 지식은 아무 것도 아니구나.” 였어요. 매일 “일용할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일용할 양식’ 라는 말은 많이 했어도 ‘일용할 은혜’ 라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학교는 0교시에 큐티를 하는데 1학년 친구들과 하면서 울면서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올 2월 그만둘 때 “제가 7쪽짜리 주님의 사랑의 병풍을 가지고 왔다가 8쪽짜리 병풍을 가지고 갑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저희 가족이 하나님이 날 편애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여태껏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대안학교 시절 특히 기억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대안학교 와서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윤 선생 때문이 아니고, 제가 소개하고 전했던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퇴직하는 전 날

학교를 떠나는 나에게 우리 반 1학년 학생이 편지 밑에다가 시를 써서 나한테 주었어요. 제목은 ‘선생님은’ 이었고 내용은 “선생님은 나의 반석, 홍수가 나도 나를 지켜주세요. 선생님은 나의 보호자, 무서운 호랑이가 와도 나를 지켜주세요. 선생님은 나의 보호자, 다시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지요.” 처음 입을 때는 ‘아니, 내가 반석이라고? 내가 잘못 가르친 것 아니야?’ 라고 잠깐 생각했지요. 그런데 끝까지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 한다는 글에 울컥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와서 드린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반평생을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로 헌신하셨는데 큰 보람이 있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0년 근속 소감을 한마디로 마무리 해주시죠.

30년 이상 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사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공과공부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되고 특히 애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눈물 흘리면서 ‘아, 예수님이 내 모습 보시면서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또 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 감사기도 드릴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헤아려 보게 되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애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내가 교사를 30년 이상할 수 있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날까지 ‘학생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세** 대담 정리 | 이순자 권사(홍보출판부 차장)

어린이 빛 도서관

빛 도서관은 2011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개관 이후 빛 도서관은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다림의 공간, 만남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이른 아침 기도회를 마친 어린이들이 와서 독서를 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 성경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주일에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주로 초등부 어린이들이 방문하여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 2시 30분경에는 어린이들이 즐겨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기도 합니다. 평일에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토요 무지개학교가 개강하는 오는 3월 3일부터 '어린이 세계관 교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 문학작품을 읽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린이 빛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들은 100% 새문안 교회 성도들이 기증한 것입

니다. 빛 도서관 한편에 있는 나눔 나무에는 독서를 기증하신 분들의 이름이 적힌 나눔 열매가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유 도서가 많이 부족합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나눔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에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신간 도서들을 기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 주일이면 빛 도서관은 어린이들로 시끌벅적합니다. 그렇기에 이곳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린이들을 보살펴 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어린이들을 돌봐주실 귀한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효정 전도사

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빛 도서관의 자원 봉사자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섬김으로 어린이들이 빛 도서관에서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빛 도서관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



▲ 언더우드 교육관 2층 220호에 마련된 어린이 빛 도서관

'신앙의 대잇기' 운동 - 어울림 가족예배 : 3월 교육주제 '겸손'

* 어울림 단계별 통합교육은 월별 한 주제로 교육을 함으로 세대간 통합교육을 이루어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월별 주제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가족예배입니다. 매월 교육 주제에 따라 새문안지에 제공되는 가족 예배 순서지에 따라 한 달에 한번 온 가족이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대잇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필자 주)

인도 | 가족대표

여는 기도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죄를 지어 가까이 갈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겸손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가족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사도신경다함께
찬 양151장 만왕의 왕 내주께서.....다함께
성경 봉독.....요한복음 13장 14~17절인도자
말씀 나눔겸손을 가르쳐 주셨어요말은이
기도 나눔 및 기도다함께

부모: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우리에게 겸손의 왕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닦기를 원합니다.
부모: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지만 세상을 섬기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녀: 예수님의 겸손함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삶을 사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가족이 다함께

▶ 주제 해설 - 겸손

사람이 자신이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겸손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존재임을 안다면 겸손은 마땅히 취해야 하는 반응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의미로 '겸손'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뜻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의미의 미가에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서 있다는 의미의 시편에서의 겸손, 다른 이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긴다는 의미의 빌립보서의 겸손... 성경은 이와같은 여러 의미의 겸손을 소개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주요 덕목으로 생활 그 자체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하여 겸손의 완성을 드러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시기 위해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내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될까지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통과 치욕속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의 일생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겸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나를 낮추는 태도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3월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길을 마땅히 따르며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새문안 온 가정 되길 바랍니다.

▶ 말씀나눔

가롯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비참한 최후를 말씀하신 후 예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손님이 오면 준비해 둔 물로 발을 씻게 하든지 또는 씻어주는 습관과는 달리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행동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선생님이며, 너희들은 내 제자다. 내가 선생님이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단다”

제자들에게 서로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크고 높으신 예수님, 제자들보다 아는 것이 많고 훌륭한 예수님이 직접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겨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서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며 섬겨주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제자들보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그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과 아픔,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사람들을 높였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3월..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가족 되길 바랍니다. **새** 글/ 교육부 어울림 교육팀 제공

어울림 가정예배 현장을 찾아서 - 박주은 어린이(초등1,2,3 1부) 가정



▲ 아빠 박성태 집사, 엄마 이미화 집사, 큰아이 주은이, 작은아이 주영이 가정

우리 가정의 예배는 결혼과 함께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 부부의 기도제목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예배였기에 그러했다. 우리는 항상 저녁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둘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야근과 회식으로 인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성실치 못했다. 그리하여 예배시간을 아침으로 옮기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었다. 남편의 직장생활 중 주말부부로 지내던 그 시기에 매일 드리던 예배가 주말에만 가능할 때도 있었다. 아침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매일의 가정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이 태어난 뒤, 아이들은 아침예배 찬

송 소리에 잠에서 깨어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데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긴다. 그리고 잠결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더없이 깊어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가족과 이웃을 위한 뜨거운 중보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평일에는 출근하는 우리로 인해 아침 일찍 예배가 시작되어 부부만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준 가정 학습지의 예배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꾸준하게 드리지는 못했다. 이제 큰아이 주은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앞으로는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약속했다.

아이들의 이름 안에 든 뜻을 따라, 주님의 은혜(主恩)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主榮)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새 글 | 이미화 집사

청소년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물질적 가치를 넘어 생명의 가치를 일깨워야

2011년 12월 19일 대구 D중학교 2학년 재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수의 같은 반 학생들에게 물고문, 구타, 금품 갈취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 학생들이 심지어 피해학생의 집안까지 들어와 구타하고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올해 2월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경찰은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월 중순에 발표한 학교 폭력실태는 사회를 더욱 놀라게 했다. '한 중학생은 자신이 소년원 출신이라고 겁을 주고 동급생을 상대로 현금과 유명 메이커 등산복을 빼앗고, 둔기를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해서 구속됐고, 모 고등학생은 학교 안에서 후배를 기증기에 거꾸로 메달고 입에 개구리를 넣었으며, 샤워기에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강제로 들어가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뿐 아니라 대전에서는 중학생들이 9개 학교 42명의 학생을 모아 폭력조직을 만들고, 위력을 과시하며, 후배들을 통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상납 받고, 심지어 택배회사에서 일하게 해 돈을 빼앗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인조직폭력배를 모방해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과연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안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가? 학생을 둔 모든 부모님이면 누구나 입을 모아 던지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엇일까? 기독교계와 교회 입장에서 학교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까? 학교 폭력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면서 부모들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가정 내에서 역할의 부재,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미디어(영화,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를 통한 폭력으로 오염된 사회문화와의 무분별한 접촉과 학습, 교권의 붕괴, 심리적-정신적 병리현상, 인성교육의 부재, 학교와 교육 당국의 무관심과 가해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참된 '가치' 들을 대부분 상실했다. 그중에 첫 번째 '생명의 가치'이다. 성경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8:36)"라고 기록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가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장과 부라는 명제에 밀려 이러한 가치를 상실했다. 교육현장 또한 교육을 통해 이 가치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진학하여 직업을 구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과목 중심(국, 영, 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교, 철학, 음악, 미술 등의 인간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해주는 통찰력을 담은 과목들은 점점 소외되고 있다. 외국어는 잘하지만 인생의 의미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자신과 타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피폐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학생들은 '인간의 가치'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단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친구를 자살하게 만든 대구 D중학생의 가해자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을 더 확보하기 위한 도구으로서 친구를 보게 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은 친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 또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 인간에게는 돈과 물질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며,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육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공동체의 가치’이다. 같은 학교, 같은 학년-반 친구들이 한 몸이라는 생각이다. 거기에는 약한 지체도 있고 강한 지체들도 있으며, 서로 돕고 함께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동체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와 교육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공동체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나보다 못한 친구 또는 나보다 능력이 많고 뛰어난 친구들과 어떻게 돕고 협력하여,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학교와 학급을, 또는 모임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노력은 너무나 부족하다. 우리나라 교육이 길러낸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인재들이 국제무대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 나와 다른 장점과 재능을 가진 친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하다. 조금 느리더라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적 풍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 ‘사랑’의 가치다.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타인을 위한 ‘희생’과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이웃 사랑의 실천적 모습으로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위기19:9-10)”고 말씀 하셨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약한 사람과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공동체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명령하셨다.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도 배려 받아야 하는 약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구성원의 관심과 교육적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오히려

공동체의 같은 구성원인 친구가 가해자가 되고, 주변의 많은 학생이 방관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정의롭고, 약자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면 그리고 그 약자를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이 큰 미덕이고, 인간으로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삶의 모델로 여기지는 것이 학교와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된다면 학교폭력은 사라질 것이다.



우수호 목사

기독교계와 교회, 그리고 신앙을 가진 모든 크리스천들은 생활과 삶속에서 이러한 가치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는 과연 무엇을 더 가치있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나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일하는 일상의 모습 속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들을 과연 느끼고 있을 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 공동체, 사랑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가?’를 질문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의 터전 위에서 교육을 하고, ‘학교의 교사들의 책임있는 학생지도, 또래 친구들의 예방 역할 강조,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강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치료, 학부모와 가정 그리고 사회의 역할 강조’ 등을 생각한다면 학교 폭력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번 학교폭력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자신과 자신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삶의 여정에서부터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한다. **세**

(※필자는 청소년문화선교부 학원 선교팀(대광고)으로 사역하고 있다.)

*매스컴의 집중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로 불거진 교육현장의 갈등에 관하여 실상과 신앙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선교부에 의뢰하여 긴급하게 좌담을 하였다. (편집자 주)



‘지금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위기의 학교 현장

- 때와 곳 : 2012년 2월 19일(주일) 오후 3시 청소년문화선교부실
- 참석자 : 강정호 목사(새문안교회 부목사, 정신여교 교목), 이천경 집사(고등학교 교사), 서헌희 집사(고등학교 교사), 강은화 집사(학부모, 청장년부), 안찬울 집사(교회학교 교사), 김한별 학생(대학부 93뜨래)
- 사회자 : 김영대 안수집사(청소년문화선교부 차장, 중학교 교사)



김영대 안수집사

사회자 : 급하게 좌담회를 하게 된 이유는 주제를 보시면 대강 아시겠지만 학교 현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아보자는 데 있습니다.

첫째,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국론이 분열되는 현실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임신 출산의 인권보장(5조), 전면 체벌금지(6조), 양심·종교의 자유(16조), 집회자유외의 보장, 정치활동의 참여 허용(17조) 등 특히 우리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계에서 비성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학생인권조례 폐기운동을 전개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헌희 집사 :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후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시작되었고 서울시에서도 박노현 교육감 당선 이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TF팀을 만들고 별도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교사, 학생, 교계, 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 차원의 인권조례를 만들어 놓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갑작스런 변수가 생겼어요. 꼭 교육감이 선거 관련으로 수감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후 교육감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부교육감은 부작용을 우려하여 그동안 준비하던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학생인권조례안을 다루려고 준비하던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안이 들어오지 않자 시민사회단체에서 만들어서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만을 가지고 심의하여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 직후 수감에서 풀려나 직무로 복귀한 꼭 교육감은 의회에서 통과된 그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학생인권조례안을 서울시교육청의 안으로 공포하게 되어 학생의 동성애, 임신, 출산 보장, 집회의 자유 보장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크고 너무 앞서 나간 항목들이 포함된 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의 부령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로 하였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에 반발하면서 법적 제기를 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교육청과 교육부의 힘겨루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청 지시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칙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교육부가 제지하고 나서면서 학칙 개정을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는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정호 목사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교단에 따라 견해차가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 임신 출산의 인권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많은 이들에게 동성애와 임신 출산을 묵인

하고 나아가 조장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동성애와 임신 출산이 권리로 주장된다면 그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까?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교육이 아니라 방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란 학생들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심을 깨우치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삶의 바른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여 가르치고 지키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교육은 사회의 가치와 기준을 넘어서서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절제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선교를 제약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그럴듯한 미명 하에 학교의 설립 목적인 건학이념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인성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종립학교의 종교 교육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와 폐해를 생각한다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교육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은화 집사

강은화 집사 : 실제로 ‘청소년 임신은 연간 약 1만 5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미혼모 출산이 늘고 부모역할을 감당할 준비 되지 않은 아기가 낳아 키우겠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청소년은 이성친구들 간에 충동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관계로 임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만 신앙인으로써 이 아이들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학교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위기상태에 처해 있는 현실에 신앙인들이 아이돌보미, 가사 돌보미 역할을 해 줌으로써 학교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교육을 계속 받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가까운 시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에서도 수용자세로 대해주어야 이 아이들이 위기상황에서 희망을 갖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미혼모학생이 학교에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미혼모출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강정호 목사 : 비밀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미혼모가 생기면 학교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됩니다. 학교에서 용인한다고 해도 본인이 견뎌내기가 무척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미혼모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 학생은 출산 전후로 최소한 6개월 정도 학교를 쉬어야 합니다. 반 친구들, 근처에 사는 친구들 등등을 통하여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학교에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1년을 쉬고 학교에 오면 후배들과 같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후배들은 모를까요? 사실을 알게 되면 학생들이 이해하고 존중해 줄까요? 제도적인 면을 떠나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안찬울 집사 : 이 조항은 소수인권도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굳이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동성애나 임신 출산을 해도 된다는 것처럼 어떤 보장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어린 학생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르치고 계도해야 할 입장에서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보편 타당한 가치로 인정된다면 성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던 가장 기본적인 창조의 원리를 어기는 것이 되

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 전 순결의 개념이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성경에서는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체벌행위를 완전히 차단시켜 놓았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하여 마음 아프고 어릴적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상처로 남았던 것이 자녀들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무한정의 인권만을 강조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한다면 현재 교육현실을 볼 때 제대로된 가르침과 통제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권위만 있고 교육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를 토대로 한 교육환경 속에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반영하되 학생들이 공동생활의 규칙을 어기고 교사의 권위를 무시할 때에는 그런 경우를 최대한 세세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여 벌칙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애뜻한 관계는 옛날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고 규칙에 의해 서로를 통제하고 평가하는 학교풍토가 될 것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다분화 현대사회로 가면서 이런 현상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섬세한 제도화를 통하여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은 해소방안을 가미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한별 학생

김한별 학생 : (이 메일로 참가) 학생인권조례안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을 인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정은 펠로우

로 학생의 정신건강에 건전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것은 육체적 접촉이 행해지므로 도덕적 기본관념에서 벗어난 죄책감을 주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

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출산권리보장 같은 경우 이미 우리사회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게 잡혀있기에 그 어떤 학생도 학생의 신분으로 임신하는 것을 환영하진 않을 것입니다. 학생의 차별없는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임신출산권리보장까지 권리로 지켜져야 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판단 없이 이러한 문화를 수용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권리가 차별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긍정화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다보니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편향된 이념에서 발의가 되고 공포가 되다보니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뜻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도 논란이 생겼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언론의 단골 메뉴인 학교폭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진회, 왕따, **서들 등으로 표현되는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이 자살을 하기도 하는 현실에서 학생으로서, 학부모로서, 교사로서 바라보는 학교 폭력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강은화 집사 : 청소년들은 친구들을 좋아하고 부모하고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대화의 단절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담임과 반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는지 학부모들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교사나 학생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알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뉴스보도를 통해 짹 짹 놀라고 이미 문제가 터지고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모습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은 “우리자녀만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아이는 아닐 것이다.” 라는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아이가 그럴 수 없어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폭력이나 왕따, 교사와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쌓아가면서 청소년시기에 표출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식의 인성교육에 우선권을 두지 않고 무조건 실력향상에 치중하는 부모들의 가치관이 가정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공부하나로 예절과 영성, 도덕성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부모들로 인해 요새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학교 폭력이나 탈선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들은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대화의 장벽을 허무는데 노력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천경 집사

이천경 집사 :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가 나라 전체의 이슈가 되어 있는 이때 올해부터 제 담당 업무가 학생들의 폭력문제, 왕따, 금품 갈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모두들 어렵다고 기피하는 업무가 된 생활지도담당을 맡게 된 저는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고 과도한 입시 경쟁과 맞벌이 부부로 가정에서의 대화 부족 등 사회 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두고 볼 수만은 없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는데 올해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됨으로

마치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해야 하는 교사로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안찬울 집사

안찬울 집사 : 학교 폭력, 왕따 등은 근래 들어 학교에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인성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정마다 환경이 다르므로 가정 교육의 차이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군상들이 모인 작은 집단에서 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은 그들에게 어떤 교육과 충고를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화가 없는 학생은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와 부모와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학생의 인성을 모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학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서로 시각이 다른 부분은 원인을 생각해 보고 서로 해법을 논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작은 변화라도 이루어져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있고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별 학생 : (이메일로 참가)한동안 언론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학교폭력은 최근에 수면위로 드러난 것 뿐,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친구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큰 염려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면 중학교 선배들이 무섭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면 고등학교 선배들이 무서워 새 학교에 대한 기대보단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걱정이 저희 학생들에게 자리잡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누군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학생회장이 학교 내의 폭력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었고 교사가

그 가운데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신뢰가 없었습니다. 용기 내어 자기의 어려움을 조금 알리고자 하면 어른들의 입장에서 '클 때니 친구들과 좀 싸울 수도 있지' 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작은 감정도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정호 목사 :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은 많은 경우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과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건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지도가 부족한 것에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에서 잉태되고 커진 학생들의 문제가 학교에서 규칙을 준수하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야 하는 생활을 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적절한 돌봄과 관심 속에 자라지 못한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담임교사들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독교인 교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직으로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가져야 하고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생명들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학생들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다면 학교의 문제들은 작아지고 가벼워지리라 믿습니다.

서현희 집사 : 선생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까 이야기가 잘 나온 거 같습니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이해해준다면 아무리 독한 아이들도 사랑으로 자기를 품어주는 선생님에게는 녹아내리거든요. 다만 무례하고 불손하거나 속이러드는 아이들의 태도에 대해 이견 절대 용서 못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선생님들의 자존심과 학생들의 감정이 부딪혀 힘들어 집니다. 다만 불난 데 불구경을 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라 불 끄러 가는 게 소명이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아이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자 : ‘문제 학생은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성 교육보다는 성적 지상주의가 만연한 현실에서 학교 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선교의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어려워진 학교 현장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 사명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별 학생 : (이메일로 참가)제가 졸업한 서울사대부고는 미션스쿨은 아니지만 각 종교별로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었습니다. 제가 있던 기독교 동아리 ‘성우회’는 인원 수는 많지 않지만 한 주에 한 번 모임을 가져 각자의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나눔 공동체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동아리인데 아쉬운 점은 정식 미션스쿨이 아니다 보니 점심 밥을 허겁지겁 먹은 뒤 그 짧은 15분 내로 모든 예배를 진행하고 끝내 늘 교실로 서둘러 달려갔던 점입니다. 이렇게 늘 하다 보니 전혀 학교 안에서의 기독교모임은 소홀해지고 예배라는 개념보다는 ‘시간 아깝게 그곳에 왜 가냐’라는 인식을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여 선생님이자 목사님이신 선생님의 수업에도 늘 거부감을 갖는 학생이 늘어났었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전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제가 학교현장에서 지켜 온 바 학원선교가 걸으려는 쉬워 보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잘 파악하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90%이상은 간접적인 동아리 활동이라도 학원선교에 대한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을 집사 : 학생들을 훈계로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계를 하지 않으면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자녀의 인생에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자녀를 마땅히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훈계 이전에 자녀와의 소통과 평소의 인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와 마음을 통하며 서로를 위해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다면,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자녀가 당연히 순종할 마음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평소 자녀와 지내는 한시간 한시간이 말하지 않아도 생생한 교육이 되어 자녀의 마음에 각인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서헌희 집사

서헌희 집사 : 학원 선교의 한 축인 기독교 학생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지요. 오늘 날 학교폭력이라는 악이 이같이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은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자세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고 기독교학생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왕따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할 각오를 하고 그 아이의 편이 되어 준다거나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실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학생에게 나도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학생들이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가는 것이 다른 점이 되면 안 되고 삶에서 힘들고 따돌림을 받거나 놀림을 받는 아이들의 편이 되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은화 집사 : 이제는 공부로만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 직업이 다양해졌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눈의 여유와 기대를 가지면 아이들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기복교수님이 “아이가 어떤 성적을 받았든지 성적표를 들고 엄마하고 달려올 수 있는 아이는 건강한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존중해 주는 만큼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아비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기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시는 귀한자녀를 존중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고 세상의 가치에 끌려 다니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우선권을 두고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천경 집사 : 먼저 저는 크리스찬 교사로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에서 학교 폭력의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관심과 사랑 부족에서 오는 과격해진 태도의 아이들, 왕따 문제, 일진회 등의 일로 생활지도부에 오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먹을 것도 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서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배제된 교칙에 의한 징계만으로는 지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제가 하는 호소가 아이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우심으로 이 아이들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어느 한 해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께서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독교 교사들이 예수님 사랑 실천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학교폭력 문제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기도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강정호 목사 : 갈뻥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하여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



강정호 목사

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보다 깊은 관심과 이해와 돌봄으로 교육할 때 교육과 학생들의 문제는 작아지고 가벼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참 교육, 바른 교육은 학생인

권조례 같은 제도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회자 : 우리 교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전임 부목사를 학원선교사로 파송하고 청소년문화선교부에서도 학원선교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어머니 활동을, 남녀선교단체의 후원으로 비기독교학교의 기독교 동아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또한 기독교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다양한 연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청소년문화선교부에서 지원하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곱 번째 언더우드비전캠프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50여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수양관에 모여 ‘학교에서 쓰는 하늘의 언어’라는 주제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작지만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기, 위험하지만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스테반이 순교하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사마리아인들이 받은 복음을 성령으로 굳게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이 위기를 학원 선교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재점검하고 교회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찾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의견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말하다

지난 2월 12일 대학·청년부 연합집회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토론회가 신관 1층 집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천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에스터기도운동본부 대표인 이용희 씨의 발제와 질의응답으로 2시간여 가량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과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이어 조례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희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교수는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초·중·고생 동성애 및 임신과 출산 허용, 초등생 정치활동 합법화, 차별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특정 종교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종교적인 행사에 대한 선택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해외 사례 및 가까운 미래에 우려되는 바를 들어 조례안 시행시의 위험성을 표했다. 여기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대응전략으로 서명운동 및 쉼기 대회, 대국민 홍보 등을 덧붙였다.

이용희 교수의 발제 후에는 패널로 참석한 청년부 소속 회원들이 이번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먼저 최용원 형제는 평소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정치·이념적 문제를 떠나 기독교계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할지 신중해야할 것”이라 말



했다. 경기도 인천에 위치한 미션스쿨에서 7년째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육근선 자매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조례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는 말을 건넸다. 이어 “실제로 학교에서는 임신, 출산을 한 학생의 경우 자퇴나 권고퇴학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적 장치 없이 법적인 규율이 우선된다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더 많을 것”이라며 찬반을 떠나 각각의 교육

적 대안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송태규 형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찬성 측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 측 스스로 법 실효성에 대한 과장이 없었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권유했다. 자유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뤄진 토론 내용을 두고 객관적 수치나 통계에 대한 의문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기독교계의 올바른 시선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2부 총괄 송용원 목사는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기에 앞서 크리스천인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이슈와 대한민국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도했는지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도로 모든 시간을 마무리했다. **세**

글 | 김성영 (청년부)

기독교 학교는 양날의 검



글 | 송태규 성도(청년 2부)

과장

‘허용’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아는 사람이 “기독교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준다. 그러면 또 용서해줄 테니까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말할 필요조차 없는 말이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말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불허하면 안 된다’라는 뜻인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기독교 학교의 입학 불허하면 안 된다’라는 뜻인지 그것도 아니면 예전에 인종 차별 심한 국가에서 흑인에게 가해졌던 차별처럼 ‘식당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표현만 가지고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정도 과장이 섞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이 표현을 접했을 때 생각한 것은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입학 불허하거나 퇴학조치 시키는 행정 처리가 금지되나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

- 동성애 차별 금지법 입법 연기

뉴스파워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바른교육을 위한 교수연합 이용희 교수는 “지난 12월 27일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면서 “이번 18대 국회(2012년 5월까지)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 군 형법 92조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계간 기타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동성 부부 입양

정부에서는 입양지침을 통해 양부모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의 부부로 제한하고 있으며 결혼 후 3년이 경과되고 친자와 양자를 합하여 5명을 초과하지 않고 부부간의 연령차이는 15세 이내 이어야 하며 국내에서 국외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가정에서 입양 대상 아동과의 동거 생활을 3개월 이상 관찰(월 1회 이상 방문 상담)한 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부, 기타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부 등으로 양부모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최초의 면접에서 나타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부부 공동면접, 개별면접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즉 부부 개별면접을 통해 결혼 전 가족배경 및 생활 태도, 결혼관계, 불임여부, 건강상태, 경제상태, 종교의 유무 및 신앙태도, 입양의 동기 및 태도, 원하는 아동 및 장래계획 등을 파악하고, 부부 공동면접을 통해 내외간의 관계를 관찰하고 아동에 관한 정보를 나누며 이견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합니다. 또한 가정방문으로 부부 면접시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가족관계, 가정의 분위기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종교 학교는 양날의 검

저는 기독교인으로 태어났고 국립 초중학교

를 다니고, 기독교 계열의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종교' 라는 이름으로 목사님께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한 수업을 받았고, 일년에 한번 성가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수학여행 가기 전에는 모두 버스에 오르기 전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여러모로 감사한 3년이었으나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도 있었으나 종교 수업을 거부하는 행동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종교 계열의 학교에 가서 수능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곳곳에서 제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표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다녀야만 했던 기독교인은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 학생이 타 종교 계열의 학교에 다니면서 그 종교 교육을 강요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학할 때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학교를 희망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싫으면 전학가면 된다' 라고 간단히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입학할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어떤 계기로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기독교인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학은 학생의 학부모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학생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학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를 설득해서 전학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독교인 학생은 모두 기독교 계열 학교에 다니고 무교나 타 종교 계열 학교에는 비기독교인 학생들만 다니는 이런 분리된 결과가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앙은 수업만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설사 수업시간에 기독교 교리를 듣지 않더라도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보고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생의 롤 모델이 될만한 크리스천 교사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신앙을 바탕으로 우정을 쌓는 친구들을 곁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인 교사 킨닝 안 하는 기독교인 친구 단 한명만 그 학생의 기억 속에 남길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시간씩 갖는 무의미한 종교 교육보다 더 큰 신앙의 씨앗을 남기는 것입니다. "미션 스쿨에서 종교 수업 안 받으려

면 전학가면 된다" 라는 말은 학교 운영을 쉽게 하기 위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말일 뿐, 그 학생을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인도하려는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쫓듯 전학을 가게 만들면 그 학생은 평생 '기독교 학교에서 날 쫓아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국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할 규칙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규칙이 100%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에도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같은 극단적인 사항은 대한민국 법과 기독교 교리에도 모두 맞고 다른 거의 모든 종교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규칙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집에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거나 집에 부적을 붙여두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런 무속행위를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런 행동이 죄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낙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피임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 전염을 막기 위해 콘돔을 사용하는 것조차 교리에 어긋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허용한 피임을 가톨릭에서 금한다고 해서 가톨릭에서 죄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라는 말은 원론적인 개념일 뿐이고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서 구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출신 지역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경상도 향우회에 전라도 출신은 가입 못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기독교인만 입학할 허가하는 신학대학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단에 따라) 혼인 유무, 성별 등 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된다' 라는 말이 곧 교회에서 동성애자 목사를 허락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단상



글 | 육근선 성도
(청년 2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에 있는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7년차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 2부 육근선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교사를 대표하여 논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4가지 조항은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적용 될 때는 어떻게 나타날지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조례안의 “~할 권리가 있다. 허용한다” 라는 항목을, 이분법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학생들은 “잘못이 아니다. 해도 괜찮다” 라고 단순화시켜서 판단하게끔 하고 이런 행위들의 빈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조례안이 발효되어 재학중 두발/복장이나 임신/출산의 자유가 허용된다면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령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임신과 출산을 ‘해도 괜찮은 것’을 넘어 장려하는 것으로 까지 쉽게 확대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새문안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초, 중, 고등학교 기간 동안 어느 시기에 사춘기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중학생들 그중에서도 중2가 가장 심각하다고들 합니다. 발달 단계 과정에서의 심리적, 감정적 격동기를 보내고 있고 자아에 대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것 이외에도 아직 가치관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래 집단들과의 관계가 사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시기에는 동류의식에 휩쓸리고 쉽고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가치판단 없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일반적으로 문제라고 부르는 행동들을 별 생각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TV에서 자주 뉴스거리로 등장하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생들이 별 생각없이 행동하고,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장면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조례안으로 인해 아직까지 성숙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있어 자칫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허용’이 다른 형태로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교사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토론회 발표시 교수님이 준비하셨던 영상이 다소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아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인권보호를 둘러싼 학교와 학생간 줄다리기는 계속 되고 있지만, 조례안의 학생인권보호내용은 개인의 인권신장이라는 대의를 놓고 볼 때 총론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수많은 쟁점을 양산하며 관심을 받게 된 이 시기에 기성세대와 우리 교회, 사회는 말만 무성한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대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보다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정치적 싸움과 헤게모니 다툼으로 인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도움을 얻지 못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과 학생간 서로의 훈육과 배움이라는 본연의 책임은 간직한 채 서로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잘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소외된 이들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 낙오되지 않고 관심과 애정을 쏟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조례안 제정이 지금처럼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록 조례안이라는 명문화 된 법으로 인권향상을 이야기하게 된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번 토론을 계기로 학생들의 고충과 현장의 어려움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던 점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법이지만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떤 부분을 존중해야 할지 한 번 더 자성해보고 교회가 마땅히 기준이 되어 빛과 소금 그리고 등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껏 소외받고 존중받지 못한 이들을 끌어안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통과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

흥분하지 말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기



글 | 최용원 성도
(청년 2부)

안녕하십니까? 새문안 청년2부에 소속된 최용원 이라고 합니다.

저는 새문안교회에 2006년 2월부터 출석하여 6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며 이수영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님 동역자들의 보살핌을 통해서 신앙을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한한 가치로 흔들리던 제 인생을 잡아 준 하나님의 도구가 이곳 새문안교회이기에 이 공동체에 항상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란으로 발언의 기회를 얻게 되었

는데, 이 발언을 통해 그동안 무관심했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에 표현된 청년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불편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편함'의 이유를 찾고자 생각해 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사탄의 세력들이 학생인권 보호라는 구실적인 명분을 앞세워 동성애, 성적문란, 미션스쿨 설립의도 붕괴, 학생들의 정치적 이용을 조장하여 세상에 어둠의 가치를 확장시키려 하고 있으니 그 의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조례가 전면 철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회당에 앉은 거의 모든 사람과 소셜네트워크에 글을 올린 청년의 대부분이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사항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이 토론에 앞서 이 논란과 관련 된 자료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은 제 자신이 평소 너무 사회적 이슈에 무관심했다는 반성과 처음 생겼던 불편함과는 달리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이 많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위 사항들은 굳이 기독교적인 시점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적으로 '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치들입니다. 동성애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학교를 설립한 주체의 의도가 제한을 받은 아직 사고가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위험한 정치적 발언은 꼭 기독교가 아닌 다

른 보수단체가 꼬집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의 이번 '불편함'은 이런 부분에서 촉발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 보수단체의 주장과 한국 교계에서 주장하는 맥락의 차별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불편함이지만 교회 외부로는 한국교회가 보수주의, 집단이주의로 대변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통해 사탄의 세력이 1차적으로 노리는 것은 앞서 언급한 동성애, 성적문란, 미션스쿨 붕괴, 학생들의 정치적 이용이지만 더 나아가 2차적으로 노리는 것은 교회의 분열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내부의 불편함과 외부로 부터의 비판은 기존 신자들의 이탈과 새신자의 진입을 가로 막는 방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원론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제로 삼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라면 지금 이 순간도 반드시 존재하는 따돌림과 폭력으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하는 학생, 성적 우선주의에 괴로워하는 학생,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생이 망가진 여학생, 성적 정체성으로 고민 하는 학생들의 아픔과 고민에 대해 이 조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 보수주의 단체와는 차별된 우리 한국 기독교만의 입장은 무엇인지 여쭙어보고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환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2년 이 시점 기독교계가 한국 사회의 기독교권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임을 부인하긴 힘든데 현재 이런 위치에서 한국 교회는 어떤 목소리 내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예수의 공생애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표어에 맞춰서 홍보출판부에서 기획하는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 탐구”를 누구로 시작할까? 첫 인물 탐구여서 여간 고민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큼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물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든지 아니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봐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닮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세리나 창녀들과 같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이었다. 또한 부모에게까지 버림받았던 나병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중풍병자,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소아마비 환자, 정신 질환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다. 예수님의 치료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셨으니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압권은 자신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자신의 모든 인기와 명예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이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참으로 존경할 만하고 엄청난 업적이었지만 그 모든 삶의 정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셨고,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병환자나 중풍병자 등 질병에 고생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요즘 “노트북 종결자”라는 말에서 보듯이 ‘종결자’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원래 종결자라는 말은 최고의 수준에 오른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트북 종결자”라는 말은 노트북 중에서 최고로 성능

이 좋은 노트북이라는 말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최고의 사역을 의미하는 “예수님 사역 종결자”는 무엇일까? 필자는 단연코 ‘전도 사역’이라고 하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 사역’이다. 마가복음 1장

38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마을을 옮기셨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굶주림에 있는 자들을 먹여주셨으며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결국 전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을 알리는 첫 선포와도 동일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을 알리는 첫 선포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이다. 예수님의 삶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삶은 바로 ‘전도’였으며, 예수님에게 가장 선한 일도 ‘전도’였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가장 선한 일인 ‘전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분이셨다.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26일 <기드온 전대> 발대식을 가졌다. ‘기드온 전대’는 여러 개로 구성이 된 우리 교회 전도대이다. 이 발대식에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예수님의 삶인 ‘전도의 삶’을 이어나갈 기드온 전대 전도대원들을 격려하였다. 이제 모든 교우들이 기드온 전대 전도대원이 되어야 할 때이다. 가장 선한 일인 전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까?**



강동협 목사



새문안
올타리

디지털시대의 멀티미디어 선교전략

- 때와 곳 : 2월 19일 홍보출판부
- 참석자 : 채영문 장로(한기림찬양대대장) 이형모 안수집사(교회사료관장) 진봉률 안수집사(영상선교부장)
- 사회자 : 유재현 장로(홍보출판부장)

유재현 장로(사회자): 오늘은 전통적인 선교방식에서 나아가 어떻게 멀티미디어를 선교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교회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과제가구요. 그 다음에 디지털화한 자료를 어떻게 확산해서 선교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번 좌담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디지털 시대의 최첨단의 전문가이신 채영문 장로님이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서두를 열어주시죠.

멀티 미디어 선교의 현실은?

채영문 장로 : 5년이 좀 더 됐을 겁니다, 제가 영상선교부 일을 할 때 영상선교부 자체만으로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홍보부와 사료관과 같이 협력해서 하자고 해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문안지는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나오므로 그때 그때 교회의 새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필요한 때는 주보를 봐야하는데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많은 정보를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뉴스를 계속 제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단히 인터넷 방송 같이 인터뷰도 하고 새로운 이슈가 되었을 때 면담도 하자고 했고 젊은 학생들을 기자로 뽑아서 아나운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협조도 잘 안되고 예산도 부족하여 중단이 되기도 했죠. 문제는 볼거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터넷은 볼거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사료관의 경우는 한 번 보면 1년 동안 다시 가볼 일이 없어요.

진봉률 인수집사 : 그 당시 저도 참여했는데 e-새문안지가 협약이 되서 만들어졌어요. 그 때 업무 영역이 없어지는 걸로 생각되어 그랬는지 홍보출판부와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물론 잘 넘어갔지만, 지금은 컴퓨터 없이는 일이 안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보유한 컴퓨터만 150대입니다. 그걸 한 사람이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 당시에 상당한 아이디어를 내서 현재의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방만하게 만들어져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기 너무 어려웠고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겨우 일주일 단위로 설교부분과 찬양대 동영상 등을 업데이트 하는 정도입니다.

젊은이들은 홈페이지 내용에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고 연세가 많으신 분은 홈페이지 접속 방법을 잘 몰라서 못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흥미 유발하도록 만드는 게 영상선교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형모 인수집사 : 새문안교회는 개신교의 첫 번째 교회이고 매주 5~6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큰 교회이며 오래 된 역사를 가진 교회 중에 아직도 꿈을 가지고 더 성장하려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21세기에 맞추어 자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확장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이 과업을 수행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교회가 내년에 교회건물을 헐고 신축에 들어갑니다. 성도들이 갑자기 수십 년간 사용하던 정든 교회당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생길 거예요. 게다가 낯 모르는 신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거기에 과연 마음을 붙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건물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자기 집, 우리 예배당에도 애착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3년의 교회 건축 기간에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는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유재현 장로

유재현 장로 : 이형모 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건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보통 건축기간에 다른 곳에서 임시 예배를 드리면 신

도의 1/3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기간에 인터넷의 기능을 2배 보강하여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커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진봉률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선교부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세 부서의 상근자 및 자원봉사 인력이 협력한다면 지금의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를 매체 즉 미디어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단행본 책입니다. 두 번째가 잡지와 세 번째가 방송국 네 번째가 인터넷 홈페이지 그 다음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네트워크 (SNS)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수천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여

소식을 전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월간 잡지와 인터넷 뿐이고 그것도 잘 활용을 못하고 있지요.



이형모 안수집사

이형모 안수집사

: 그렇죠. 책을 만드는 게 복잡하기는 하지만 교회 안팎의 독자들에게 공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목표의식이 약했다고 봐요. 월간 잡지 경우 이게 새문안지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이번 달에도 나왔구나’ 홍보부원들은 ‘다행이다. 이번 달에도 숙제를 했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3년의 공백 기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확장하고 콘텐츠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공백을 못 느끼고 너무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방송국 오디오 비디오도 활용해야 합니다. 큰 돈 들여 장비를 사고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문안 교회의 우수한 인력들을 찾아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풍부한 콘텐츠를 만들고 SNS,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시의 적절하게 구사하면 가능할거라는 생각이예요. 우리 새문안 교회 자체가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재현 장로 : 단기적으로 3~4년 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우리 교인수가 만 명, 이만 명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메시지와 정보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진봉률 안수집사: 그것도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온누리교회 등의 여러 교회에서는 요즘 인터넷 방송을 잘 활용하는데 우리는 (홈페이지를) 거의 활용하지 못

하는 것 같아요. 콘텐츠를 활용한 설교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생각났는데요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설교 제목과 성경 구절, 요지 등을 띄워서 알리는 거지요.

우리 교회 예배가 매우 정통적이고 모범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저는 신학적인 배경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全)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모든 예배의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현재 중계방송을 생방송으로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 시간 방송을 볼 수 없었던 분들도 완전한 예배에 참석하는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거지요. 건축 공사 기간에 가장 필요할 겁니다.

유재현 장로 : 요즘 최첨단 매체는 SNS인데 매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제가 모니터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의외로 종교적인게 너무 많은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제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마조마 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일부 목사님, 장로님들은 완전히 사이버 선교에 집중하고 있어요. 청년 대학생들도 열광하고 있구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폭발적인 이유는 컴퓨터에 접속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뜨거든요. 메시지를 보내면 동시에 실시간으로 수십만, 수백만 명이 받고 순간적으로 답글을 올리면 다시 수백만이다 보는 거예요. 추가로 요금도 들지 않지요.

이형모 안수집사: 월간지라고 하면 감동 스토리를 이야기 하고 차분하게 두고두고 읽을 수 있는 얘기꺼리를 주고 주장도 하고 보고도 해야 하는데 소식지나 제직회 보고서 식으로 내면 누가 읽나요? 인터넷은 아까 그 ‘죽었다’는 표현을 했는데, 수많은 정보가 막 생산되어 홈페이지에 그 기사들이 곧 뜨는 시스템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

들이 매일 들어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정보생산의 능력 문제예요. 인터넷 시대의 주역인 청년 대학생들이 완전 외면하는 홈페이지를 왜 만들죠. 영상 선교부는 선교부서인데 선교에 효과가 있는지 냉정히 반성해봐야 합니다.

유재현 장로: 볼 게 없으니까 그러죠. 청년 대학생들이 자기네끼리 카페 홈페이지 만들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아무도 쓰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정보생산 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자기들이 공유하는 장이 생겨야 참여하죠. 결국 핵심은 기술적으로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니고 그 콘텐츠를 누가 생산해서 어떻게 업데이트해서 올리는가 문제입니다.

채영문 장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조직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추세인 SNS, 트위터 그쪽을 강화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잘 활용해야 해요. 지난주에 김동호 목사님 만났는데 이걸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시더군요. 페이스북 스타죠. 동안교회에서 은퇴하신 후 지금은 교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높은 뜻 연합선교회 이것이 바로 사이버 선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재현 장로: 저도 김동호 목사님을 온라인으로 자주 뵈는데요. 팬들이 참 많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교인수가 수십만 명 될 겁니다 아마.

진봉률 안수집사: 저는 우리교회에서 특별히 브랜드 가치를 따진다면 우리 담임목사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우선 잘 안 들어오니까 문제죠. 설교를 주제별로 잘 정리해서 저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목사님 설교만 잘 정리 가공해도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나오는데.

부서별 주요 과제는?

이형모 안수집사: 우리에게서 시간도 있고 봉사할 사람이 충분히 있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하면 자기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우스 사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거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기사 만드는 거 사진 찍고 디지털 카메라 쓰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쉬워요. 하여튼 기술을 가르쳐서 정보생산과 가공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수백 명 있어야 사실은 콘텐츠가 제대로 생산되는 겁니다.

유재현 장로: 외국 출장 갔을 때 세계최대의 상어 동영상상을 페이스북 북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 찍어 그날 올렸는데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었어요. 어느 순간 한 개인이 세계적인 특종도 만들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돈 없다 장비 없다가 아니에요 핸드폰만 있으면 거의 돼요.



채영문 장로

채영문 장로: 문제는 사람이지요. 사람들에게 데이터 생산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해요. 저는 운영이나 경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사무처가 있잖아요, 선교아카데미, 새문안 아카데미에 간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 생산이 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콘텐츠 제작과 배포를 전담하는 상근자도 필요합니다. 담

임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훨씬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전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답임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부목사님이나 자원 봉사자들이 그에 대해 피드백을 하면 상당한 선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영상 선교부와 홍보출판부가 우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현 장로: 부서 통합을 한다면 예를 들면 미디어선교부, 또는 멀티미디어선교부 등이 있겠네요. 멀티미디어 선교부 안에 부장을 여러 명을 두면 되는 거잖아요. 해외선교부처럼 국가 별로 다섯명의 회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부장, 잡지 부장, 출판 담당 부장, 방송국 부장, 더 나아가 SNS 담당 부장, 전자도서관장 등으로 업무를 나눌 수도 있죠. 상근 간사는 통합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이형모 안수집사: 디지털, 멀티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등등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모르니깐 그런데 솔직히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대단한 지능과 기술이 필요한 것 처럼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핸드폰이나 스마트 폰 사용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약간의 훈련만 하면 수많은 자원 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봉률 안수집사

진봉률 안수집사: 교회 내에 150~170여개의 컴퓨터가 있으니깐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였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는데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 거냐가 문제죠. 한편으로는 관련된 하드

웨어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비디오 카메라 몇 대, 프린트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

채영문 장로: 그런데 이 콘텐츠 생산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인들 중에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손끝 훈련이 안되어 머리와 마음이 손과 연결이 안되는 단점이 있는데 훈련으로 극복 시키고 그렇게 해서 고급 인력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어 작동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이형모 안수집사: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지휘자 문제예요 그러니깐 이런 멀티미디어 선교에 대한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새문안교회는 200 여명의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피곤하게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수천 명은 구경꾼이에요. 그런 자리에 나는 못들어 간다 소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필요한 힘들을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을 훈련받은 기쁨에 기꺼이 적극적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게 만들고 그런 연출이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데이터 베이스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그런 자원봉사를 훈련시켜 놓으면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진봉률 안수집사: 오늘 홍보출판부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끔가다가 한번 모이고 끝난다면 우리는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저는 시간낭비예요. 이게 계속되려면 시간을 정해서 계획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유재현 장로: 건축위원회 안에서도 40~50 명의 전문위원들을 조직하고 몇 년간 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상당한 콘텐츠가

나온 겁니다. 진짜 프로들이 헌신, 봉사하니까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진봉를 인수집사: 멀티미디어 선교의 틀을 완전히 언제까지 만들어서 전문적인 팀도 만들고 실제로 조직해서 분명하게 임무를 부여해야죠.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가?

유재현 장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 대상으로 어느 정도 폭을 가야 되는가, 우리 목표가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시죠.

이형모 인수집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건축 기간 동안 떨어져 나가는 교인 그거저는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1차적인 목표 그룹입니다. 제가 이제 43년째 다니는데 우리 새문안교회가 성장에 대한 비전이나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새문안 교회의 특정된 잘못이라는 비판보다 개인의 문제이지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식의 타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선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문안 교회가 125년이 되었어도 25살 청년처럼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7백억이 넘는 교회를 짓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우리는 10만명의 교인이 될 텐데 더 폭 넓게 선교하기 위해 교회를 지으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유재현 장로: 선교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수십만, 수백만 명을 상대로 메시지가 가고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예요.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출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신자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게 어떻게, 얼마나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되지요.

이형모 인수집사: 30개 사단의 부대를 지키는 병사가 30만 명이 있는데 공격군은 만 명도 없다면 전쟁 수행이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매체와 멀티미디어의 응용분야에서 필요한 데에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현대의 선교 전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서 참여해 이겨야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반증에 지나지 않잖아요.

유재현 장로: 사실은 아날로그식 선교, 디지털 선교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방식이 더 익숙한 거죠. 그 동안 아날로그 방식은 나름대로 엄청난 돈과 시간과 인력을 들여서 해 왔는데, 디지털 선교 방식이 성과가 더 큰 겁니다. 백 배 천 배 효과를 확대하는 길이 있으니 그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형모 인수집사: 예를 들어 월간 잡지로 한 달에 한 번씩 전쟁 벌어지는데 거기는 적군 몇 명 안 만나는데 우리의 주 인원은 거기에 다 매달려 있지요.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큰 전쟁터에 우리는 보내지 않고 있는 거지요. 자원봉사자들 중 역량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아주 유용한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훈련된 팀 들을 디지털 전투현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유재현 장로: 우리가 엄청난 정보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게 디지털화하고 확산을 해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새문안교회가 계속 뜨는 ‘살아 있는’ 정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제 새문안이 온라인 사이버 공간 속에서도 가장 활발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통하다

요즘 거리에서 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들고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사용자 2000만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2011년 11월 기준). 그리고 이러한 개인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발달한 서비스가 SNS(Social Network Service)입니다.

저 역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SNS를 활용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존 웹에서 형성되었던 카페나 클럽 등의 커뮤니티와 차이가 있다면 특정 주제에 국한되어 활동했던 닫힌 정보 공유에서 개인이 중심이 되어 관심사와 개성 등을 폭넓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SNS를 의사 소통을 도와주는 '인 미디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일반적인 의사 전달이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받지 않고-국내를 넘어 글로벌하게-같은 시간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SNS 서비스 초기에는 주로 친목도모,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이 되었으나 현재는 비즈니스 및 각종 정보 공유 등 생산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 만큼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최신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인(知人)의 지인(知人)으로 연결되어 있는 SNS 특성상, 친구의 추천으로 공유하는 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입되어 있는 SNS에서도 사람들은 다양한 주제로 글과 기사, 동영상 등을 공유함으로써 정보 제공자가 되기도 하고 수혜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진과 짧은 생각을 공유

함으로써 소통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평소 전화 통화나 만남이 쉽지 않은 지인들(특히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과도 SNS를 통해서 근황을 전할 수 있고 짧은 안부나 축하의 메시지로 쉽



황귀연 (청년2부)

게 대화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언더우드 학술강좌에 참여했던 일본, 중국 청년들과 우리 새문안 청년들과의 교류는 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하면, 외국에 계신 사역자가 사진과 글을 통하여 나누는 여러 사역들을 보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SNS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교회 내 행사를 미리 공유함으로써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한 몫을 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관심분야인 음악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제가 소속된 찬양대 동영상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아직은 미흡하고 맺힌 결실은 없으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처럼 SNS의 활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며 그 영향력이나 기능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



하고 있습니다. 이미 SNS를 활용하여 교회 내 소통의 수단으로 삼는 교회들도 있고, 선교의 통로로 삼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SNS라는 것은 기술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역기능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사

람들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시대의 신기술을 넉넉히 활용하여 공동체의 소통과 부흥에 힘을 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

새문안올타리

8억명이 참가하는 페이스북의 세계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중 하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서부에 있는 팰러앨토(Palo Alto)에 본사가 있다. 2004년 2월 4일 당시 19살이었던 하버드대학교 학생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가 학교 기숙사에서 사이트를 개설하며 창업하였고, 처음에는 하버드 학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사이트였으나, 2011년 9월 현재 전 세계 가입자 수가 8억 명이 넘었다. 한국의 경우는 현재 570만 명이 가입했고, 18세 이상 35세 미만인 68%, 35세 이상 55세 미만이 21%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온라인 사용자의 약 15%가 페이스북에서 활동하고 있다. 창립자이자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4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여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2010년 3월 발표한 세계 10대(大) 청년 부호 1위에 오른 바 있다. 13세 이상이면 누구든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기입만으로 간단하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글자 그대로 회원의 얼굴 사진(Face) 등 사진들과 메시지가 올라와 있다.

새문안동산에 대한 제언

아는 교우들도 많겠지만 모르고 있는 교우들도 많은 새문안동산은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쉬고 계시는 곳이다. 아버지 돌아가신 1984년에는 그저 평범한 교회묘지였으나 당시 내가 직접 설계하여 약간 독특한 형태의 묘를 만들고 그 후 몇 가족 따라서 바꾸거나 새로 만들었고 서로가 묘를 가꾸기 시작해서 이제 새문안 동산은 색색의 꽃들이 년중 꽃혀 있다. 수 많은 묘들이 잘 가꾸어져 있어 갈 때마다 마음이 흡족하다.

그런데 작년(2011년) 지금 새문안 동산은 당초 교회 명의로 묘지 허가를 받지 못해 그 당시 몇분 장로님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아 그동안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해 왔으나 고양시에서 일정 기간 후 더 이상의 매장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교회에서는 묘지의 부족함을 알아 제2의 새문안 동산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어쩌면 지금 새문안 동산에 계신 분들도 그곳으로 이장해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교인 가족들이 돌아가신 후에야 새문안 동산에 묘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허겁지겁 묘지를 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제1 남선교회를 곧 졸업할 나이가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결을 떠날분들이 하루가 멀게 발생하고 있어 교회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모든 생각의 길

1. 현재의 부모님을 합장한 가족묘를 독립된 납골당형태로 변경하고 부모님, 현재의 우리세대 그리고 손자 손주 세대 까지 모두 화장하여 한곳에 모시는 거다. 우리 가족은 단출해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와 남동생, 집사람들 합해봐야 6개의 유골함이면 된다.

이럴 경우 지금 같아서는 부모님 세대에 자

녀 셋을 두었다. 치고 그 세 자녀가 각각 세자녀를 두었을 경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따로따로 묘지를 쓰기 때문에 자녀세대가 이 세상을 떠난 후 그 후 세대로 가면 찾아야 할 먼저 가신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손자들 세대가 뿔뿔이 흩어진 묘를 찾을 경우 할아버지 세대의 묘는 무연고 묘가 될게 너무도 뻔하지만 내가 제안 한 대로 할 경우 최소 3세대가 한 곳에 모일 수 있게하고 당연히 히 묘는 잘 관리가 될 것이다.

2. 지금 현재 동산은 크게 두 구역으로 떨어져 있는데 각각의 구역에 지하 3층/지상 1층의 초대형 납골당을 만들어 가족별로 안치소를 정해주면 온 교인이 한가족이 될수 있을게 아닌가? 예를 들면 한가족이 함께 20개의 유골함을 원한다면 한곳에 모을 수 있고,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할 경우에는 매장 허가도 필요없고 모든 업무가

쉽게 이루어지며 뿔뿔이 흩어질수 있는 현 교인 가족들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일주일에 거의 매일 부음을 전화메세지로 듣다보니 이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교회차원의 대책과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우선 새문안지를 통해 교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교회 지도부에 알려야 할 것으로 본다. 새



김수문 안수집사



10교구 헌신예배

신앙의 달인 되자

2월 첫째 주일 밤 찬양예배는 10교구 주관 헌신예배로 드렸다. 엇그제 입춘이 지난 때문인지 추위가 한풀 누그러들어 감사한 마음이었다. 신관 1층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특송 연습을 하였다. 찬송 263장을 양철옥 집사 지휘와 이성심 권사 반주로 70여 명의 교구 식구가 한마음이 되어 찬양하였다. 이재연 권사가 청아한 목소리로 솔로를 해 주셔서 더욱 은혜로웠다. 권찰회 개강 전이라 올해 10교구를 담당하신 정영식 목사님과 첫 인사를 나누고 기도시간을 가졌다. 올해 90세를 넘기신 오윤약 집사님도 나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셨다. 10교구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찬양의 향기로 헌신을 결단하는 주일 밤 예배되기를 기원드렸다.

창세기 22장 1~12절을 김현숙 부총무가 봉독한 후 정영식 목사님이 '신앙의 달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앙의 소유자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신앙의 달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셨다. 생활의 달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이지만 새문안 교우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달인'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자고 하셨다. 온전한 믿음은 시험과 실패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강조하셨다. 순종과 인내와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다. 이삭을 드리기를 아끼지 않은 아브

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행함 있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녀 되기를 기원드렸다.

10교구는 원당3구역, 화정6구역, 일산10구역, 김포2구역, 대화1구역, 중산1구역, 탄현2구역, 파주2구역으로 8개 지역에 28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총세대수는 446세대이며 성도 수는 1,094명이다. 장로 세 분 안수집사 7분 권사 32분이 10교구를 위하여 기도와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 총무 부총무와 각 지역에 거주하는 3명의 협동총무가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여 교구식구들의 애경사에 참여하고 있다. 10교구는 지역적으로 교회와 다소 먼 거리에 있습니다. 10교구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밤 10교구 헌신예배를 통하여 세속에 물들여진 저희 마음을 회개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드렸다. 2012년은 공동체를 살리는데 헌신하고 하나님 중심과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의 헌신이 교만의 울타리를 벗어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되기를 간구하는 예배였다. 값비싼 나아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진실 되고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였다. **새**

글 | 이지숙 권사 (10교구 총무)



젊음이 출렁거리는 예배시간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예배는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열린다. 다른 부 예배와는 달리, 시작 후 30분간 연합 찬양팀의 인도로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 청년의 활력과 열정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무척이나 매력적인 일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갈 수 있음을 느낀다.

매주 예배 때는 5주 과정을 수료한 새교우들을 축하하는 시간이 있다. 예배에 참석한 지체들이 모두 일어나서 '야곱의 축복'을 부르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새교우를 환영한다. 특별히 대학부에서는 새교우에게 꽃을 선물한

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새교우를 축복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얼마 전 교육2부 담당 교역자로 송용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다. 그 후로는 출공 5부 예배 설교를 송 목사님께서 전담하신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다같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 곳에'라는 찬양을 부른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길 소망하며 노래하니 마음이 풍성해진다.

사실 처음에는 예배 중간에 찬양을 드린다는 게 조금은 낯설었다.

이전의 5부 예배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에서 이어졌는데, 이를 전환하는 시도이다.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옆자리에 앉은 지체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당에 온기가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 든다.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29-33’ 으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며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구절이다.

송 목사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에 푹 빠져 생명에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시대의 풍파와 상관없이 예수에게 푹 빠진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얼굴이 있다며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자고 권고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는 ‘평생 세례를 받으며 단계적으로 성화 과정’을 밟아야 하며 세례는 형식적 의례가 아니라 각자의 근본적인 쓴 뿌리를 태우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각자의 위치에서 물 세례, 성령 세례, 십자가 세례, 눈물의 세례, 불 세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한다고 말한다. 이에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한다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일까?

최근 5부 예배의 형식들이 조금씩 변화해가면서 예배당의 분위기에 따뜻함과 활기가 생기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변하는 걸 경험하는 요즘이다. 하나님께서 새문안 청년 대학부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매일 새롭게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새 글 | 김호진** 성도(대학부)

아버지의 노래

한때 모 작가의 《아버지》라는 책이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은 것은 할아버지 병상 밑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계신 할아버지 곁에서 한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책을 읽는 동안 얼마나 울었던지 가슴이 뻥 하도록 목메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책의 내용이 감동적이기보다는 책을 통해 할아버지와 추억을, 그리고 할아버지의 삶 속에서 가족을 위한 수고와 염려, 그리고 깊은 사랑이 짧은 순간에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힘든 농사 일이지만 자녀손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해 매일 같이 새벽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눈 내린 날이면 하얗게 덮인 논두렁길을 조심스럽게 찾아 걸으시고, 비오는 날엔 온통 질퍽해진 진창길을 걸어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묵하신 할아버지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 “내가 너희를 위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

어린 시절 보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를 통해 봅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돌보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불혹을 훌쩍 넘긴 나이에야 비로소 버거운 삶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묵묵히 바라보시며 잠자리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일년을 하루같이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또 가슴이 울컥합니다.

할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저에게 노래가 됩니다. 그 노래를 통해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



안상은 집사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을 배웁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바로 옆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노래 (Father's Song)가 들려옵니다.

Father's Song

Words and Music by Matt Redman

I have heard so many songs
listened to a thousand tongues.
But there is one that sounds above
them all.

수많은 노래 중 가장 뛰어난 노래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you sung it over me and for
eternity. It is written on my heart.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father's song.

천상의 완전한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아버지의 노래

Heaven's perfect mystery, the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And now you
are singing over me, father's song.

사랑의 왕께서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
지금, 주 당신이 부르시네, 아버지의 노래. **세**

수난의 세가지 의미

우리는 해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변민과 수모와 고통 받으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기 위하여 부활하시기 전 1주간을 고난주간(Passion Week)으로 지키고 있다. 몇 해 전에는 The Passion of The Christ 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고통 받으시던 모습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통에 동참하기도 했다.

우리가 흔히 열정, 정열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passion은 the Passion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수난,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인다. 뿐만 아니라 passion에는 걱정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걱정은 격렬한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격노하게 한다, 별척 성을 낸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걱정이란 우리 안에 있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힘이다. 이런 힘은 자신도 모르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걸모습이 된다.

걱정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를 강제하는 힘이 있다. 이러한 걱정에 떠밀려 살게 된다면, 주변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살기보다는, 크고 작은 갈등을 일으킨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더 풀기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더 심각하게 꼬이게 만들면서 불행을 자초하거나 누리고 있던 행복마저 쫓아버리게 된다. 어쩌면 예수님이 수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정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에 휘둘릴 때마다 그런 우리로 인해 그 누군가도 수난을 당하며 고통 속에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일지도 가족일지도 모른다.



최재숙 집사

걱정이라는 어두운 힘에 자신이 내맡겨지지 않도록 저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

히려 자신 안에서 견잡을 수 없이 거칠게 밀어붙이는 힘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와 행동에 제동을 거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낯선 선택을 해야 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스스로 고난을 자처해야 하는 고통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 힘으로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은총에 힘입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과 관용과 포용력으로 너그럽게 이해하고, 상대방을 가감하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걱정은 아름답고 창조적인 힘을 지닌 열정으로 작용하고 열정으로서 표출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잠재된 에너지가, 감정의 폭발이라는 걱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열정으로 드러나게 하려면, passion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수난, 걱정, 열정이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살아 있음을 깨달아야 할 듯싶다. 나의 걱정으로 인해 이 땅위에 고난이라는 아픔을 불러들일 것인지,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위에 샬롬(shalom)을 이루어갈 것인지 고난주간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싶다. ❧

묵상 포인트 사순절 묵상지

글 | 강동협 목사

Q1. 부활주일 날짜가 해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부활주일은 춘분(3월 20일경) 후 첫 만월(음력 15일)이 지나고 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합니다.

Q2. 언제 그렇게 결정했나요?

A2. 초대교회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을 금식을 했고,

매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감사를 올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4세기 초에 들어와서 니케아종교회의에서 지금의 부활주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Great Easter라고 했고, 주일은 Small Easter라고도 불렀습니다. 부활 주일은 구약의 유월절(빠스카)과 연결됩니다. 유대인들은 초봄의 만월(滿月)을 니산(Nisan)이라고 하는데 이 달 14 일을 유월절로 정했습니다. 동방교회는 바로 그날을 부활주일로 하고 주장하지만 서방 교회에서는 니산달 14 일

순서	날짜	성경말씀	찬송가	묵상포인트
1	2월 22일, 수	고전 11:23-29	341장	예수님의 삶과 피
2	2월 23일, 목	누가복음 2:1-7	108장	강보와 구유
3	2월 24일, 금	누가복음 3:21-22	85장	세례의 흔적과 하나님의 자녀
4	2월 25일, 토	누가복음 4:1-2	183장	주리심
5	2월 27일, 월	마가복음 2:13-17	509장	함께 잡수심
6	2월 28일, 화	마태복음 4:12-17	329장	전파
7	2월 29일, 수	요한복음 6:11-15	510장	표적
8	3월 1일, 목	요한복음 2:13-22	210장	성전청결
9	3월 2일, 금	마태복음 4:18-22	324장	부르심
10	3월 3일, 토	마가복음 1:35-38	364장	예수님의 기도흔적
11	3월 5일, 월	마태복음 6:5-13	363장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12	3월 6일, 화	누가복음 18:1-8	539장	끈질긴 기도
13	3월 7일, 수	요한복음 17:15-22	365장	성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14	3월 8일, 목	누가복음 22:39-46	457장	피의 기도, 눈물의 기도
15	3월 9일, 금	누가복음 19:41-44	549장	예수님의 눈물
16	3월 10일, 토	마태복음 17:1-2	421장	변형되심
17	3월 12일, 월	누가복음 18:31-43	96장	다윗의 자손
18	3월 13일, 화	마태복음 21:1-9	212장	나귀타심
19	3월 14일, 수	누가복음 20:17-18	488장	버린 돌
20	3월 15일, 목	마태복음 23:13-15	214장	화 있을찜저

을 지내지 않고 그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다음 니케아 회의(325 년)에서 춘분 후 첫 만월이 지나고 난 일요일을 부활주일로 정합니다. 부활주일은 춘분과 그리고 음력과 연결된 일자이기 때문에 그 날짜는 매년 달라집니다. 올해는 3월 20일이 춘분이며 4월 5일(음력 3월 15일)이 만월입니다. 따라서 4월 8일이 부활주일입니다.

Q3. 그렇다면 사순절 날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3.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주일을 뺀 40일을 세면 사순절 시작(재의 수요일)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과 신앙 성장의 시기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새**

순서	날짜	성경말씀	찬송가	묵상포인트
21	3월 16일, 금	마태복음 26:6-13	310장	예수님에게 좋은 일
22	3월 17일, 토	마태복음 26:1-2/14-16	214장	팔리심
23	3월 19일, 월	요한복음 13:1-6	85장	발씻기심
24	3월 20일, 화	마태복음 21:17-22	542장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25	3월 21일, 수	누가복음 21:5-9	176장	장차 될 일
26	3월 22일, 목	마태복음 26:26	198장	생명의 떡
27	3월 23일, 금	마태복음 26:27-29	228장	언약의 피
28	3월 24일, 토	요한복음 14:1-6	607장	아버지 집
29	3월 26일, 월	마태복음 26:30	338장	찬미하고
30	3월 27일, 화	요한복음 15:1-17	90장	사랑
31	3월 28일, 수	마가복음 14:26-31	461장	다 나를 버리리라
32	3월 29일, 목	누가복음 22:47-53	457장	잡히심
33	3월 30일, 금	요한복음 18:28-40	212장	재판받으심
34	3월 31일, 토	요한복음 19:1-13	145장	침묵
35	4월 2일, 월	마태복음 27:20-26	262장	채찍질
36	4월 3일, 화	마태복음 27:27-31	457장	희롱
37	4월 4일, 수	누가복음 23:26-32	144장	끌려가심
38	4월 5일, 목	요한복음 19:17-22	158장	골고다 언덕
39	4월 6일, 금	누가복음 23:44-49	150장	승리
40	4월 7일, 토	누가복음 23:44-49	324장	내가 가진 예수님의 흔적

구십평생을 은혜로 살아 온 여정

지난 2월 16일 아침 10시에 강상복 공로장로의 교회장이 새문안 교회 본당에서 엄숙하게 치루어졌다. 구십평생을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던 그의 영결식에 수많은 조문객들이 고인의 차분하면서도 화려했던 삶의 여정을 기억하고 얘기를 나누며 이별을 아쉬워했다.

같이 음악인의 길을 걸었던 안중호 장로의 기도 후, 이수영 목사님의 "복있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이어졌는데, 강 장로님이야말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주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예비된 복을 받을 분이라고 증거하셨다. 담임목사님은 이어 강 장로님이 단지 먼저 차를 타고 떠나시는 것 뿐이며, 우리도 곧 다음 차를 타고 가서 다시 만날 것이라면서 유족들을 위로했다.

고인이 생전에 즐겨 불렀던 "그리운 금강산"을 배경 음악으로 하여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실향민이 되었던 일대기에 이어, 고인이 애창했던 찬송가들을 배경으로 음악인과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단편들을 한 장 한 장 소개할 때 그리움의 물결이 잔잔하고 조용하게 퍼져 나갔다.

당회 서기 이낙종 장로의 약력 소개 후, 변우량 장로의 조사가 이어졌는데 너무도 완벽하게 사셨던 선배가 참 부럽다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해야 하는 자리라고 고인을 추모할 때 유가족 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두의 마음을 애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따뜻하게도 하는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유족으로는 세 아들, 강희광(이상복), 본 교회 시무장로인 강희문(황혜주), 강희경(이경애)과 세 딸, 강금자(지영택), 강금숙(이중세), 강금희(전황용) 등 29명이 있으며 고인의 사회 활동과 신앙 경력 소개는 변우량 장로의 조사로 가름하고자 한다. **새 글 | 편집장**



하나님 품안에서 편안히 쉬세요

조사 | 변우량 공로장로

강상복 장로님!

선배님은 참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다 가셨습니다. 최선을 다한 삶이었으니 후회없이 눈을 감았으리라 믿습니다. 조사를 부탁받고 나왔으니, 슬픔에 찬 목소리로 “오호 통재라 애재라!” 그렇게 눈물이 나오도록 말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장로님은 2월 1일이 생일이니 90년 인생을 짝 채우고, 또 승리의 삶을 살고 천국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편안하고 은혜스러웠다니 장로님은 하나님이 불러서 스카우트되어 가신 겁니다. 말하자면 타향살이 끝내고 작은 걱정도 없는 본향으로, 문자 그대로 오신 곳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아들, 딸, 사위, 손자 누구하나 걱정되는 자손이 없으니 편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흥가분하게 떠나가시는데 왜 눈물을 보입니까? 오히려 “아버지 만세! 할아버지 만세!”를 불러야지요. 기쁨의 춤을 추고 감사의 찬양을 우렁차게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상복 장로님, 저는 지금 제목은 조사라 해 놓고 축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결식장입니다만 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

오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스물 아홉 자녀 손 누구하나 못생겼거나, 못났거나, 모자라거나, 혹은 병약해서 애를 먹고 걱정시킨 자녀손이 하나도 없었다니 장로님은 긴장감도 한번 없이 살아서, 인생살이가 오히려 심심하셨겠습니다. 장로님, 참으로 부럽습니다. 어떻게 살면 그렇게 완벽하게 인생을 졸업할 수 있습니까?

강상복 회고록을 보면 장로님도 어린 시절엔 고생도 했고 눈물도 배고픔도 있었고, 일본 경찰을 피해 도망도 다니고, 공산당 때문에 3·8선을 넘다가 죽을 뻔도 하고, 해주 앞바다에서 밀선을 빌려 타고 월남할 땐 위기일발의 순간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20년간 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있을 땐 성악뿐만 아니라, 작곡도 하고 악기도 많이 다루고 해서 악성이란 말까지 들었다니 음악엔 천부의 재능을 타고 나셨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그렇게 다재다능하고 인격까지 갖춘 거목인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경희대 음악대학 동창회장을 지냈고, 대한 오페라단을 창단하고 대표를 역임했으며, 한국성악회 회장,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삼환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회장으로 기업 경영에도 성공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대통령이 수여하는 옥관 문화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한때는 세계 60여 개국을 여행하고, 그 여행기록을 책으로도 엮어내고 영화로도 제작하고, 당신의 일생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행담을 두 달 동안이나 라디오로 방송도 했습니다.

신앙은 90년간 일평생의 생활이었지만, 교회 찬양대를 지휘하고 테너 독창회도 두 번, 세계 연주여행을 또 두 번 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깨달았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또 내 안에 있음을 실감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신앙고백을 수차 하신 것을 보면 장로님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정말 소설처럼 장엄하게 살았고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살았고 시인처럼 아름답게 살다가셨습니다.

삼남삼녀가 교수고 의사고 전문경영인이고 음악인이고, 손자손녀들이 모두 장래가 촉망되는 큰 인물로 지금도 자라나고 있으니 장로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가나 재벌가보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장로님이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고 남에게 베풀면서 사신 결과입니다.

그건 그렇고 장로님이 지금 가시는 길 앞을 내다보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 돌아다보면 눈에 밝히는 손자와 손녀들이 보고 싶어 어떻게 눈을 감으셨습니까? 그 이름 불러보고 싶었을 터인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까? 금이야 옥이야 하고 곱게 곱게 키운 그 아들, 그 딸의 손을 어떻게 놓고 가셨습니까?

머지않아 5월이면 교회에서 해마다 하는 찬양 대회가 있는데, 금년에 한번 더 지휘를 해 주시고

가실걸 그랬습니다. 따님이 반주하고 아버지 장로가 지휘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해의 그 영상이 마치 어저께 있었던 일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가시는 장로님을 잘 가시라고 박수로 보내드리기엔 개운치 않은 교회문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작년 가을 어느 주일 오후였지요. 은퇴 장로실에 몇 분 장로들이 앉아있었을 때 장로님이 “요즘 이수영 목사님 너무 고생하는 것 아니냐”고 “어폐가 있지만 목사가 불쌍하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장로님, “이수영 목사님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터인데 걱정하실 것 없지 않을까요?” 그것이 교회 건축 사업을 두고 하신 말씀인줄은 압니다. 그러나 가시는 장로님은 그런 시름일랑 잊어버리시고 편안히 가세요. 교회건축은 바야흐로 젊은 교인들이 무섭게 기도하고 있으니, 온 교인이 마음을 모아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실 겁니다. 교회 걱정 그만 하고 훨훨 떠나가세요. 시름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편안히 쉬시고 그 다음엔 기쁨으로 찬양을 하시겠지요. 삼 년 전에 먼저 가신 이춘명 권사님을 천국에서 반갑게 만나시겠지요. 우리도 곧 장로님을 뒤따라갈 겁니다. 교회나 반듯하게 지어놓고 몇 년 후에 가실 분도 있고, 10년 혹은 20년 그 이후에 가실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 때, 거기서 옛이야기하며 반갑게 만나요. 장로님, 편히 가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세요. ㄸ

교정치료와 위생관리



윤형철 집사(의료선교부)

교정 치료란 단순히 비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히 하는 것을 포함,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골격적 부조화를 바로잡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구강조직 및 아름다운 얼굴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들어서 이 교정치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더해 치열을 바로잡아 좋은 인상과 만족스러운 자기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욕구의 발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정치료의 목적은 이외에도 치아의 배열이 불규칙하게 들쭉날쭉하거나 위·아랫니가 잘 맞물리지 않고 주위 근육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생길 수 있는 턱관절 이상, 잇몸병 등을 방지 해주는 것이며 또 씹는 기능, 호흡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음식을 씹기 어려워 나타날 수 있는 소화 장애와 덧니 등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발음의 장애도 해결해 줍니다.

불만을 호소하는 내원환자 중 치아로 인해 입이 돌출된 경우나 치열이 심하게 삐뚤어진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방법은 몇 개의 치아를 뺀 후 그 공간을 이용하는 술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발치하는 것에 대해 보호자분들이 많이 걱정들 하지만, 심미적인 것과 기능적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선 희생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 받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개 위아래 송곳니 바로 다음에 있는 작은 어금니(씹는데 불필요한 치아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역할이 작은)를 빼서 7~8mm 정도의 공간을 얻은 다음 이 공간으로 6개의 앞니를 밀어 넣어 발치 공간을 닫아 줌으로써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은 약 1년 6개월에서 2년정도 걸립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치아에 무리가지 않게 약한 힘으로 조금씩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환자의 인내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료시기는 중·고등학교 시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치아이동도 용이하고 재발확률도 낮기 때문입니다.

교정치료의 전체적인 과정을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

니다.

1. 구강상태와 방사선사진을 통해 진단 하기
2. 치아발치하기
3. 치아에 교정장치 붙이기
4. 가장 가늘고 탄력있는 와이어(철사)를 끼워서 치아 배열을 맞추기
5. 차츰 굵은 와이어를 끼우기
6. 빠진 발치공간으로 탄력있는 고무줄을 이용해 치아를 이동시키기
7. 가장 굵은 철사를 끼워 마무리하기
8. 교정장치 제거 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가철성장치 또는 치아 안쪽에 와이어를 붙이기
9. 정기적인 검진하게

이과정은 환자상태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수 있습니다. (간혹, 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주길 원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물론 강한 힘으로 치아를 이동시키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치아뿌리가 흡수되어 길이가 짧아져 잇몸이 안 좋을 경우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정치료로 인한 기능적, 심미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부정교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위해 영유아기에 구강과 연관된 좋지 않은 습관인 손가락 빨기, 혀 내밀기, 입술 깨물기 등이 있을 경우 조기에 발견하고 습관을 고치도록 유도하거나 습관 억제 장치를 이용해서 부정교합으로의 이행을 막아줍니다.

건강한 유치(젖니)는 건강한 영구치를 유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므로 탈락할 치아라도후속 영구치의 건강한 맹출을 위해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치가 조기 탈락하거나 유치의 병변을 방지한다면 다음에 나올 영구치의 위치가 비정상이 되면서 부정교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치가 조기 탈락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치아 우식증, 즉 충치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습관화하여 충치 예방과 조기 치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역사의 뒀안 길을 더듬으며

먼저 황산성 권사님은 1960년 경기여고 1학년 때 학교 동원령으로 주일날 출석한 후 길 건너 새문안교회를 찾은 추억으로 화두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분주히 하면서도 강신명 목사님을 자주 뵈었는데 그 때마다 목사님은 “내 친구 황 목사의 딸이야” 하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셨다고 한다. 1982년 어느 날 국회조찬기도회에 김동의 목사님이 설교자로 오시어 강단에 올라가시면서 끝자리에 앉아 있는 황 권사님을 보시고 “황 목사님 따님이시지요?”하며 인사를 하였고, 그날의 목사님 설교는 조용하면서도 내용이 참 좋았다. 그런데 그날 만남이 실마리가 되어 황권사님은 새문안에 시집을 오게 되었다고 웃으신다. 새문안에 시집일 후 사람들은 “힘들지요?”라고 인사를 하면 “아뇨, 나는 마이크를 안 잡아도 되고, 목사님 뒀안 줄줄 따라 다니면 되요. 세상에 이리도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네요. 기도만 하면 되요”라고 답변 하셨다. 초기에는 목사님을 따라 새벽기도회도 다녔고, 철야기도회에도 열심히 다니셨는데 당시는 기도 제목도 많았고, 서러운 일들도 많아 눈물의 기도회였었다. 그리고 수요일에 성가대원도 하시며 목사님의 손에 이끌리어 평범한 사모 역할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변호사, 장관의 직무도 수행하셨다.

한때는 새문안 청년들과 함께 역사의 뒀안길에서 고민하시던 추억을 더듬으시더니 이내 교회건물을 둘러보시며 김 목사님이 새문안에 오신 후 목회 비전 중 하나로 광화문 한복판에 선교 및 기독교 문화의 센터를 세우고 싶어 하셨던 계획을 말하시며, 결혼 전 김목사님 꿈에서 황 권사님이 민선시장이 되어 새문안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꿈을 꾸셨다고 말하시며 파안대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장이 아니라도 새문안 재개발에 도구로 삼으셔서 이용하시는데 왜 서울시장 출마를 권하셨냐고 낙선 후 목사님께 항의하셨다고 한다.

장관을 그만두고 목사님 뒀안 줄줄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집사 한 분이 황 사모님을 찾는다.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며 가족들을 걱정하며 “우리 집사람 잘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잘 도와주세요” 하더니, 또 며칠 후 다시 불러 같은 부탁을 한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재산이 있는데, 잘 관리해야 할텐데 하며 걱정을 하였다. 집에 돌아와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교회 앞 건물은 새문안교회가 인수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목사님의 심부름으로 병원에 가서 그대로 전하였고, 그 집사님은 쾌히 승낙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금호그룹의 이사진이 황사모님을 찾아와 그 건물을 매입하여 새문안의 한옥과 물물교환하려고 물밀작업을 하고 있었노라고 고백하며 난감해 하였다. 당시 한옥은 사찰집사 사택으로 사용하며 주일날 주일학교 공과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던 지금의 금호그룹 내 땅이었다.

그래서 교회와 상의한 후 한옥을 금호그룹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메리야스협회 건물을 새문안이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통보한다. 이 때 오장은 장로님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며 그 집사님이 허락한 제3교육관 옆 한옥 한 채가 효자노릇하며 금호그룹의 노력으로 메리야스빌딩을 구입하여 지금의 제3교육관이 탄생하였다고 전하신다. 이렇게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교인들의 헌신으로 황금덩어리 땅을 확장하였다고 권사님은 감회깊은 상념에 잠기신다. 한편 교회 옆구리에 작은





▲ 2월 19일 3부예배 후 오장은 원로장로님과 황산성 권사

자투리 땅은 벽산그룹의 소유였는데, 그 땅을 구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몇 년째 답이 없어 목사님이 속상해 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듣던 중, 마침 크리스마스기도회에서 벽산그룹 김회장 부부 그리고 김동익 목사님 부부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그 때 황사모님은 대뜸 “장로님, 대기업이 그 땅을 어디에다 쓸려고 새문안에 안 팔고 애를 먹이세요?” 하였더니, 아주 놀라고 당황한 표정으로 물렸다고 당장에 팔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하시며 이렇게 김목사님의 꿈이 하나씩 이루어져 간 것을 신기해하셨다. 김 목사님은 마지막까지도 교회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하였고, 황 사모님에게 부탁하시어, 우리다방 주인인 고집불통 허노인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매각의사를 끌어냈으나 끝내 목사님 병환으로 실패한 것이 아쉽기만 하였다. 오장은 장로님은 김동익 목사님께서서는 새문안교회 여건 마련에 노력하셨음을 힘주어 강조하시며 장기개발기금 마련에 힘쓰시며 교회예산도 절약토록 하신 정신을 상기하셨다.

여 집사들이 “남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울며 매달려도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하소연하면, 어김없이 일일이 전화하고 면담하여 교회로 인도한 일, 임종준비를 위해 가족들이 없는 사이 임종을

지킨 일들, 파탄가정을 돌이켜 화목한 가정으로 인도한 일, 목사님과 같이 시도 때도 없이 임종예배와 심방 다녔던 일들, 장로님들과 개척교회 헌지답사와 해외선교지를 방문했던 일, 경기도 일대를 헤매다가 수양관을 발견하고는 느티나무 한 그루만도 ‘억’의 가치가 있다고 기뻐 뛰었던 일, 해외의료선교 가서 봉사한 일, 해마다 송구영신예배 후 목사님이 가져오신 각 가정의 기도제목을 마루에 나와 혼자 일일이 기도하며 교구별로 분류해 드렸던 일 등 김 목사님께서 호흡이 있는 동안의 추억은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라고 하신다.

황산성 사모님은 생전에 목사님께서서는 방파선교회와 범양선교회에 관계 하시면서도 새문안교회 재건축에만 열중하시어 헌금을 한 푼도 못하셔서 목사님 별세 후 빚을 갚으셨고, 목사님 1주기 추모행사로는 신대원에서 설교대회를 하였고, 10주기 추모행사로는 장신대에서 설교학세미나를 개최하셨다.

1990년 가을 본당에서 기도 중 ‘아낌없이 바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황사모님은 장남을 목사로 양육하여, 현재 미국에서 목회 중인데 이제 그 아들 곁으로 가시고자 한다. **새**

글 | 김흥배 집사

오르간은 한 사람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 예본 오르가니스트 신동일

신동일(예본 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연주자는 지난해 12월 27일자 Star Telegram(미국 달라스 지역 주요 일간지) 문화면에 게재된 2011년 '예술계 공연 총 결산' 기사인 클래식 음악 부문에 2011년 5대 클래식 음악회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 연주는 지난 2011년 1월 미국의 반 클라이번 재단이 주최한 콘서트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파리의 미국인 (An American in Paris)"이라는 제목의 프랑스 오르간 음악을 다룬 독주회로 19, 20세기의 프랑스 낭만, 현대 오르간 음악과 미국 작곡가 William Bolcom의 오르간곡 두 곡을 연주했는데 Bolcom과 재단의 이사이자 재단 이름의 주인공인 전설적 피아니스트인 반 클라이번이 참관한 가운데 성황을 이룬 연주회이며 당시 주요 일간지인 Dallas Morning과 Star Telegram의 비평가들로부터 절찬을 받았다. 특히 팔십을 넘긴 피

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이 자리를 빛내준 영광의 음악회로 연주 후 사석에서 직접 만나는 기회도 가졌다. 거기서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은 어린 시절 음악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고백했다. (예컨대 십대 중반쯤 클라이번이 연주한 차이코프스키 협주곡 음반을 켜놓고 살기도 했다.) 그런데 클라이번은 신동일이 연주한 Dupre(프랑스 현대 작곡가)의 곡을 작곡가가 생존시 실연하는 것을 당신의 고향 텍사스에서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작곡가의 실연보다 신동일의 연주가 더 감동적이란 놀라운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다.

2011년 12월 5일 햇불선교센터와 연세대의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에서도 그의 말처럼 온몸으로 오케스트라를 움직이듯 놀라운 연주를 보여주었다.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은 다섯 살 즈음에 나이터울이 많은 누나가 피아노를 배우러 갈 때 따라가 피아노를 접하고 결국 누나는 교육학을 하고 그는 음악을 택했다. 10세에 부산시향과 협연하며 데뷔하였고, 음악이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던 중 중학교 진학과 동시 아버지가 음악을 그만 둘 것을 강하게 권유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 일년간 피아노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땐 그 선택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고,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거라 막연히 기대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 반항하고서 더 행복해졌지만요. 하하" 하지만 음악없이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를 설득하려 애쓰던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때 서울에 놀러왔다가 명동성당서 우연히 파이프오르간을 처음 접하고 작곡자나 지휘자가 되려 하던 그에게 오르간은 한 사람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같이 가슴에 와 닿았다. 부산에 돌아가 선생을 수소문해서 오르간을 배우기 시작하고 대학 졸업후 프랑스에서 5년간 유학했고, 이후 미국으로 옮겨서 십 년 가까이 양대

록을 오가며 음악가로서의 단계를 쌓으며 살았다. “오르간을 악기로 좋아해서 전공을 결심하게 되고 저의 오르간 연주가 예배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새문안교회 한국행이 결정되었을때 음악부 장로님과 연결이 되어 오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양악계는 지난 수십년간 많은 발전을 했으나 오르간의 경우 역사도 상대적으로 짧고 그 발전 속도가 느린것 같아 앞으로 오르간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싶고 해외연주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지방순회 연주를 통해 오르간을 들을 기회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베풀 생각도 하고 있다. 젊은 나이에 많은 경력을 가진 연주를 듣고 보면서 경건히 예배하며 아직도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라는 겸손한 그를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다. **세 정리 | 김현찬 권사**

감동의 중국 순회 연주



▲ 예본 지휘자 박동희

박동희 예본 찬양대 지휘자는 2월 8일~16일(9일간) 중국순회연주를 다녀왔다.

46년의 전통을 가진 대학 합창단(최훈차 창단)의 상임 지휘자로 미주순회 8회 유럽에 5차례 순회를 다녀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의 4개 도시(북경, 청도, 상해, 소주)를 크고 작은 연주 9회를 하며 순회하고 왔다. 넓은 대륙의 부분부분 성령의 불길이 일어난 한쪽으론 척박

한 중국에서의 순회는 찬양으로 선교를 하는 대학합창단의 사명에 잘 맞는 사역이 되었다. 단원 23명으로 적은 수지만 모든 연주를 최선을 다하고 매 연주 때마다 성령의 인도 하심을 받아 감동있는 찬양의 연주 시간이 되었다. 일정과 안전문제, 음식문제로 어려움을 예상하고 출발 했지만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주시고 때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연주가 되었다. 단원들 뿐아니라 듣는 성도들의 가슴에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연주였다.

대학합창단은 봄에는 고난과 부활기념음악회, 여름에는 전국순회, 가을엔 정기연주회, 겨울엔 2-3년에 한 번 씩 해외순회를 하며, 매달 서울과 근교의 교회순회를 하게된다. 박동희 지휘자는 최훈차 선생님(전 예본 지휘자)의 제자로 추천 받아 참으로 감사하고 살아있는 전통과 교회음악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교회에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가슴 설레는 일이 “2011년 2월에 사역을 시작하며 먼저는 주님께 감사 했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대원들로 가득찬 예본 찬양대를 보며 ‘감동 있는 찬양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꿈과 한국 교회음악의 모범이 되어 보자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순회에서 받은 성령충만의 각오를 보인다. **세**

정리 | 김현찬 권사

찬양을 통한 신앙고백

2012년을 시작하며 찬양대 연합 수련회를 2월 11일 토요일 오후4시에, 헌신예배는 12일 주일 찬양예배로 드렸다. 예배의 찬양을 맡은 7개 찬양대(하나, 새로핌, 예본, 새온, 한기림, 새남, 새나리) 대원들이 참석하여 음악부장 김경년 장로의 인도로 강협수 안수집사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였다. [시편 107:1-9]의 말씀으로 정영식 목사님은 「감사의 찬송」이란 제목으로 “날마다 감사해야 하며 감사의 표현은 찬송이 된다. 구속의 은혜, 응답, 바른길로 인도하심과 영혼에서 만족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로 찬양대의 귀중한 직분의 말씀을 전하신다.

김경년 장로의 인사와 각 찬양대 소개가 끝난후 강사로 모신 이화병 교수(노량진 교회 4부 찬양대 지휘자)의 특강이 이어졌다. 찬양대원이 알아야 할 교회음악사 전반에 걸쳐진 이야기다. 짧은 시간동안 긴 얘기를 하고 자료도 많이 준비하였다.

영적인 음악이란 무엇일까? 영적인 음악과 음악에 있어서 영적인 음악은 과연 존재하는가? 교회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며 교회음악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 모태적 산실을 제공한다. 간혹 우리는 교회음악 자체가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대답이 될 수 없다. 교회(사)에 있어 영적인 개념은 근본적으로 신과 연결되어 있다. 영적인 것이란 신적인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적인 것이란 증거는 무엇인가? 우선 가사에서 신을 찬양해야 하며 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서적인 논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예술은 감정의 표현이다. 혹은 사고의 표현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교회음악 혹은

예배음악은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를 단순히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음악의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함께 하모니를 이룰 때 찬양의 호소력이 강하게 발휘되어 신앙적인 차원에서 성령충만하게 된다.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해야 함을 늘 깨우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찬양을 드리는 우리는 영적인 것의 물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1. 중세 초기의 교회음악 (1-6세기)

*그레고리안 찬트, *힐데가르트 빙엔, *마쇼(노트르담 미사중 글로리아)

2.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걸작들

*팔레스트리나 (교향 마르첼리 시사: 6성부 키리에), *랏소(미사, 종교적 마드리갈 7성부), *알레그리(미세레레(불쌍히 여기소서), 9성부, 2개의 합창단), *조반니 가브리엘리 (종교적 교향곡, :합창단+Solì+관현악+오르간, *몬테 베르디 :베니스 마르코 성당 음악감독 (아도라무스테 크리스테)

3. 바로크 시대 걸작들

*피셀-웨스트 민스트 성당 오르간 주자, 궁정교회 성가대 오르간 주자, *비발디: 이태리 바이올린 주자 : 97개 바이올린 곡, 500개 협주곡, 40개 오페라(글로리아, 슬픔의 성모 마리아), *J,S. Bach(Beks조 미사중 글로리아 아, 칸타타: 나는 주님의 은총을 믿네, 성탄절 오라토리오, 마태 수난곡), *헨델(오라토리오 메시아 1,2,3부)

4. 고전시대의 교회음악

*하이든: 현악 4중주(오라토리오:천지창조), *모차르트:대관식 미사, 레퀴엠, 성육



신 되신 예수(라팅어 노래), *베토벤 : 2개의 미사곡, 오라토리오 “감람산위의 그리스도” 환희의 송가, 장엄미사 중 키리에

5. 낭만시대의 교회음악

* 슈베르트: 독일미사 중 거룩 *멘델스존: 오라토리오<바울>, 교향곡 <종교 개혁> * 브람스: 독일 레퀴엠 “당신의 처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6. 20세기의 교회음악 :

*오네게르: 오라토리오 <다윗왕> *브리튼: 전쟁 레퀴엠 *케틀비: 수도원의 정원에서 등의 음악 이론과 참고할 만한 곡들을 감상하기도 하였다.

유명한 작곡가만 열거했고 이들이 모두 교회음악작곡가 라고 지명할 수는 없으나 교회음악작품을 작곡하는 목표는 뚜렷하다. 신앙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신의 신앙고백을 나타내려 애썼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음악이 진정한 교회음악이라고 믿고 있었다. 찬양은 소리만 낼 것이 아니고 이런 특강이 기초되어 진정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인 음악이 다듬어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주일 밤 찬양대 연합헌신예배는 음악부장 김경년장로의 인도로 기도에는 임희중 장로, 새로핌 찬양대장 박광호 장로의 성경봉독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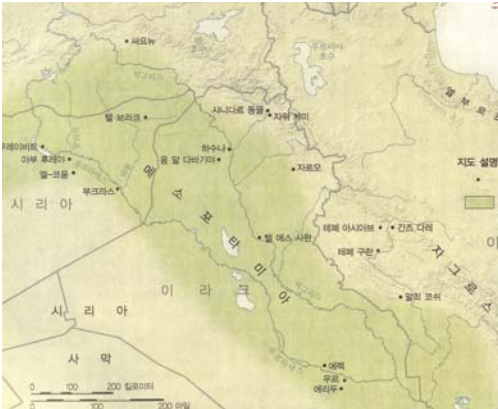
양옆 찬양대석과 앞 좌석을 꽉 채운 7개 찬양대의 연합 찬양이 이어졌다. “왕께 찬양합니다.” “시편 96편이 새운 찬양대 김경희 지휘로 그 어느때보다 영적인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정영식 목사님은 시편 96:1-9의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할지어다” 등 성경전체에서 여호와께 노래해야할 모든 조건을 다 찾아 말씀하신다. 우리의 자세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여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오게 되며 여호와께 축복을 돌리는 7개 찬양대가 되기를 기원 하여 주신다. 설교 후 특송은 예본, 한기림, 새남, 하나, 새운, 새나리, 새로핌의 순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위해 중창으로 어어졌다. 우리의 사명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6] 새



글 | 김현찬 권사

에덴동산은 어디인가?



에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기쁨'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설도 있고 바빌로니아어 '에디네(Edine)', 즉 '평원'에서 파생했거나 아니면 서부 셈어의 '물이 풍부한 곳'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창세기」2:15의 에덴동산은 생명의 물을 주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풍족하게 주셨던 기름진 땅을 말한다.

「창세기」의 기록은 동산에서 하나의 강이 흘러나온 뒤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강, 그리고 유프라테스강으로 나뉜다고 기술한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잘 알려져 있지만 비손강과 기혼강의 정확한 위치를 현재의 서아시아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학자마다 에덴동산의 위치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에덴동산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발원하는 곳에서 가까운 아르메니아 산맥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비손강과 기혼강도 아르메니아 산맥과 같은 곳에 있는 것으로 본다.

둘째로 에덴의 어원이 바빌로니아어 에디게(=평원)에서 파생했다고 보아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에덴동산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가나안에서 본다면 메소포타미아 남부는 가나안 동쪽에 있다. 그리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메소포타미아를 따라 흐른다. 그렇게 되면 비손강과 기혼강은 자그로스산맥(=이란고원 서쪽에 위치) 남쪽에서 평원으로 흐르는 강을 말한다.

중세부터 에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학, 고고학, 민족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오늘날 수많은 학설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묘사된 에덴동산은 척박한 사막과는 전혀 다른 유토피아(理想郷)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은 이 낙원에서 오래도록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 땅을 갈며 살게 된다. 이 에덴동산의 이야기는 인간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난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간의 농경생활의 시작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새 글 | 편집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섹션에 한국기독교교회음악을 주제로 한 〈기독교와 한국의 근대음악〉을 연재한다. 오랜 세월 한국 근·현대 음악 연구로 한국 음악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인 민경찬 성도가 맡아 집필한다. (편집자 주)



민경찬 성도

근대음악 선구자를 대량 배출한 송실학교

우리나라에서 서양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음악가들이 언제,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최초의 음악가는 누구이고 어디서 외래음악인 서양음악을 접하고 익혔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초기의 음악가들은 전문 음악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양성이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에게 서양음악의 기초를 습득한 후 미션스쿨의 음악반에서 활동을 하다가 독학 또는 해외유학을 통해 전문음악가로 성장하였다’는 코스를 밟았다. 즉 음악전문교육기관이 아닌 교회와 미션스쿨을 통하여 음악가들이 양성 및 배출된 것이다.

근대 음악의 선구자를 대량 배출한 곳은 1897년 평양에서 문을 연 송실학교였다. 음악 교육기관은 아니었지만 미션스쿨인 송실학교에서는 성경 이외에도 과학과 수학 그리고 음악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쳤다. ‘과학 교육’은 만물이 생성하고 발전하는 원리를 알고 나아가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엿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학 교육’은 모든 학문의 기초라는 이유로, ‘음악 교육’은 지식 및 지능계발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유 때문에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앙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조화롭게 균형이 잡힌 인간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음악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음악 교사는 선교사들이었고, 교과목으로는 찬송가와 창가 및 악보 읽는 법, 발성법, 시창청음 등이 개설되었으며, 오르간부를 만들어 음악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른바 수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음악 교육의 첫 단계에서는 음악 기초 이론과 가창을, 다음 단계에서는 악기

를 선택하여 익히는 기악 교육이 추가되었다.

송실학교의 음악교육은 단순히 음악을 위한 음악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었다. 복잡한 악보를 연주로 연결시켜 오묘하고도 신비한 음악의 세계를 이룩하는 과정을 통해 희열 속에 지식과 지능의 계발을 가져올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을 한 것이다. 이런 교육으로 말미암아 정규 음악과를 갖지 않았으면서도 한국음악계를 개척하고 또 지도해 온 음악의 선구자를 다수 배출할 수 있었다.

한국인 최초의 음악교사이자 최초의 작곡가인 김인식을 비롯하여 가곡 〈봉선화〉의 작사자이자 음악교육의 선구자 김형준, 최초의 피아니스트 김영환, 작곡가이자 합창음악을 개척한 박태준, 〈애국가〉의 작곡자 안익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설립자이자 성악가 겸 작곡가 현제명, 연가곡을 개척한 김세형, 가곡 〈가고파〉의 작곡자 김동진,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 박경호, 동요 운동의 선구자 강신명 등이 송실학교 출신이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근대음악을 개척한 음악가 상당수가 송실학교 출신이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새문안교회를 중심으로 음악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김인식, 김형준, 김영환, 강신명 등이 새문안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 근대음악을 개척하였는데, 평양에서 공부한 이들이 서울에 어떻게 오게 되었고, 왜 새문안 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하나님께서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그토록 사랑하사, 한국 기독교와 한국 음악 발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새**

두가지 보물 ; 묵상과 산책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 암송카드의 내용입니다.

2년 전, 회사내 신앙 선배분의 권유에 따라 아침에 출근하면 성경 암송카드를 한 장씩 읽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장에 성경 1구절씩 담긴 60장의 카드인데, 날이 더해 갈수록 그분이 선물한 이유를 새록새록 느끼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암송카드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어떤 의문점 하나가 풀린 듯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참으로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찾을 때 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는 말 중 어느 쪽이 더 정확한 표현일까? 등등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는 알기 쉽게 정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한 순간일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말씀에 대한 묵상이 산책만큼이나 내 자신에게도 신선함을 선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가 산책을 할 때 전체적으로 걸어야 할 길의 동선과 산책 과정에서 던졌던 발자국들

을 일일이 다 기억하면서 걸어갈 필요가 없듯이 아침의 묵상도 성경 구절을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겁고 일종의 의무감 쪽에 가깝던 묵상이 한결 편안하면서도 즐겁게 다가왔습니다.

산책의 목적이 그 길을 완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묵상의 궁극적 목적도 그 구절을 암기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 성경 암송카드를 한 장씩 읽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성경 구절을 반드시 암기해야겠다는 욕심이 앞서 반복해서 읽고 노트에 쓰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암송카드가 반복되면 될 수록 왜 이렇게 암기를 못할까 하며 자책하기도 하고 오늘날도 나는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구나라는 무거움만 더해 갔습니다. 그러니 묵상



강경완 집사

의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정작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으려는 노력도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처럼 묵상도 가볍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혹은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할 때면 아무런 계획된 내용이 없어도 걷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었고,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주변의 풍경이 주는 기쁨과 순간순간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던 예전 경험들을 기억해 냈습니다. 묵상도 그렇게 성경 구절 자체가 주는 느낌과 생각들을 맛보며 즐기면 어떨까? 그 이후 묵상에 대한 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묵상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그 내용에 대한 집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침 묵상은 그 동안 잊고 지내던 혹은 무심코 흘려보낸 것들에 대한 돌아봄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얻은 생각거리들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줍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높아지면 새로운 다짐들이 생겨나고 이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결단의 계기도 그만큼 강해지는 경험을 맛보곤 합니다. 묵상의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크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큰 공원 앞으로 집을 이사하게 되면서 산책의 습관을 갖게 된 점입니다. 요즘엔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나면 당연한 코스처럼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아내와 함께, 어떤 날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걷노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제법 자리를 잡은 나무들의 아름

다운 모습과 나뭇잎 색깔의 변화에서,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의 크기 변화에서, 잔디의 색깔이 변해 가는 모습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 옷차림의 변화에서, 하늘에서 이동하는 달의 변화 모습에서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예찬이 절로 샘솟으며 저도 덩달아 태초의 생기를 부여받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부간이라도 보통 집안에서는 서로 나누기가 망설여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내 일상 이야기도 산책 중에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주고 받으며 상호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다. 아마도 집안이었던라면 필경 큰소리가 오갔을 그런 내용들인 데도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과의 이야기도 산책하면서 나누면 전혀 다른 감정의 상태가 됩니다. 보통의 자리였으면 내색하지 않았을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고충까지도 함께 걷는 동안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또 다른 면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때로는 서로 마주보면서 하는 대화보다는 서로 동일한 곳을 바라보면서 하는 대화가 훨씬 유익할 수도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의 묵상과 저녁의 산책!

어쩌면 제 삶의 패턴을 새롭게 만들어 줄 인생의 가장 큰 두가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조금은 뒤늦게 발견하여 미약하게 실천하고 있지만 평생 간직하며 더욱 가치 있게 다듬어 가고 싶은 보물입니다.

세

새교우 Album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곽수현
|1교구 청년2부



김금화
|8교구 1여전도회
|인도자 김영희



김기훈
|3교구 7남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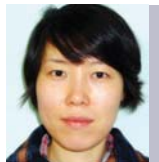
김대호
|10교구 대학부
|인도자 박현정



김선호
|2교구 청년부



김종욱
|8교구 6남선교회



김진숙
|3교구 7여전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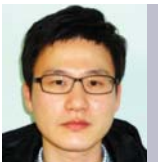
나예은
|4교구 대학부
|인도자 나은면



나예지
|4교구 대학부
|인도자 나은면



빈재경
|4교구 5여전도회
|인도자 나은면



성호진
|7교구 청년1부



안상훈
|9교구 대학부
|인도자 박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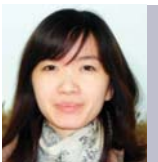
안형준
|1교구 대학부
|인도자 최혜숙



안희경
|1여전도회
|인도자 배병선



오성환
|4남선교회
|인도자 오중환



우희주
|4교구 청년1부



이경원
|4교구 청년1부



이세종
|1교구 7남선교회
|인도자 배병선



이수아
|3교구 7여전도회



이정국

곽수현 (1교구 청년2부) 교우를 포함해 29명의 교우가 2월 새교우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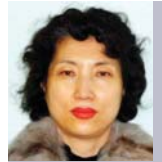
이중춘

1교구 상록남선교회



정연희(2)

9교구 대학부
인도자 남은주



정영우

9교구
인도자 유진규



정진철

8교구 청년부
인도자 강은혜



조미희

1교구 청년2부



지옥자

1교구 4여전도회
인도자 이슬



최공천

상록남선교회
인도자 송용원



최성철

3교구 청년3부



최한숙

1교구 1여전도회

변경된
기독교 용어
바로쓰기

41

전야제 → 전야 축하행사

이 용어는 ‘축제’ 라는 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미 ‘부활절 축제’, ‘성탄 축제’ 라는 용어를 ‘부활절 절기행사’, ‘성탄 축하행사’ 등으로 바꾸어 써야 할 필요성을 밝혔으므로, 부활절 전날 밤에 갖는 행사도 당연히 ‘부활절 전야제’ 대신 ‘부활절 전야 축하행사’ 라고 불러야 한다.

전야제는 전날 밤에 여는 축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각종 제사가 새벽에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앞날의 밤은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보름이나 중추절 같은 명절의 전날은 밝은 달을 바라보며 축하의 행사를 펼치기에 적절했었다. 성경에는 어떤 행사에서 전야에 모여 축하자리를 마련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에서는 부활이나 성탄처럼 새벽에 이루어진 일을 축하하기 위한 전야 행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행사를 가리키는 용어는 ‘전야제’ 대신 ‘전야 축하행사’ 라고 하여 제사의 성격을 배제하고, 밤 깊은 시간까지 축하한다는 순수한 의미를 담는 것이 좋겠다. **새**

*칼럼 (변경된 기독교 용어 바로쓰기)의 내용은 한국장로교 출판사에서 제작한 《변경된 새로운 기독교 용어》에서 발췌. (편집자 주)

“생명의 쌀을 드립니다”



▲ 성경퀴즈 정답자 추첨을 하는 출제자 서경애 권사, 1월 당첨자 장정원 집사, 정형자 권사. 2월 당첨자 권혁중 김덕례 최치숙

새문안교회는 2007년부터 생명의 쌀 나눔 기독교 운동의 협약교회입니다. 1년 중 부활주일, 환경주일, 창립주일, 추수감사주일 등 4주 네 차례 친교실에서는 생명의 쌀로 밥상을 차리기로 협약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쌀이란?



유기농으로 생산된 쌀입니다. 저농약(농약과 화학비료를 관행농법의 절반 이하로 사용), 무농약(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절반 이하 사용)의 단계를 지나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기농 쌀을 생산하려면 4~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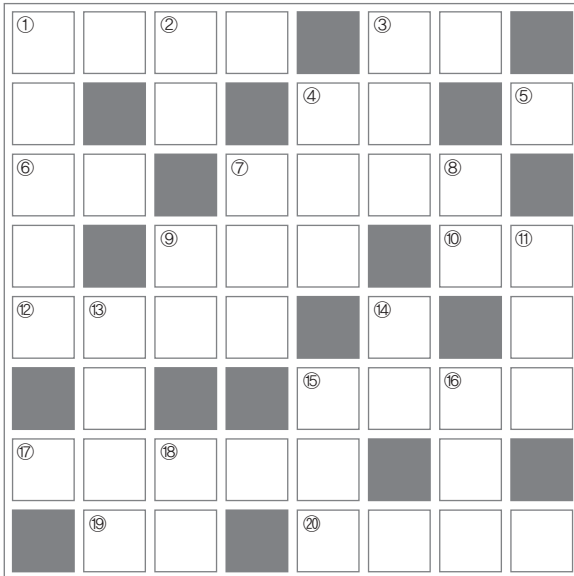
이상 꾸준한 정성을 들여야만 합니다. 농촌의 기독교 농민들 중에 '생명의 쌀'을 생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했습니다. 쌀 한 톨 속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살아 있는 먹을거리는 육

신뿐만 아니라 영을 건강하게 해 주는 기본입니다. 농촌교인과 도시교인이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농사 짓고 나누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새

성경퀴즈 Puzzle!

• 온 가족이 다 함께 풀어봅시다.

• 성경퀴즈는 <개역개정판> 성경전서에서 출제됩니다.



- 마감일 2012년 3월 25일
- 보낼 곳 제3교육관 203호 홍보출판부
- 이름
- 주소
- 연락처

가로 열쇠

- ① 사도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 신약전서 제1번째 성경.
- ③ 바벨론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돌아와 에스라의 권유로 헤어진 바니의 자손 중 하나(스10:36)
- ④ 아람의 넷째 아들(창10:23)
- 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함.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동물

- ⑥ 에브라임의 한 족장 레셉의 아들(대상7:25)
- ⑦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하나(계 1:11, 2:18)
- ⑨ 가드왕 마옥의 아들(삼상 27:2)
- ⑩ 드로아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친구(딤후4:13)
- ⑫ 고린도교회의 성도.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함께 에베소로 바울을 찾아갔다.(고전16:17)
- ⑮ 헬레스의 아들(대상2:39)
- ⑰ 남편보다 먼저 쓰임을 받은 초대교회의 지도자. 브리스가와 같은 사람.
- ⑲ 광야에서 모세를 돕기 위해 선택된 70장로 중 한 사람. 메닷과 함께 진중에 남아 예언했다.(민11:26~27)
- 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 중 한 마디로 "나를 버리십니까"의 아람 말."엘리 엘리 라마 0000"

세로 열쇠

- ① 요한 계시록 일곱 교회의 하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계3:7~8)
- ② 여호와와 사자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책망하므로 백성이 소리높여 울었던 곳(삿2:1~5)
- ③ 바사왕 아하스에르의 왕비. 왕의 청을 거역하여 폐비가 된 사람
- ④ 람의 맏아들(대상2:27)
- ⑦ 아시아 사람으로 로마의 신실한 성도(행20:4)
- ⑧ 쓸모없고 보잘 것 없는 자에게 업신 여기어 쓰는 말. "형제에 대하여 00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 ⑨ 아브람이 가나안에 들어가 벨엘과 이곳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다.(창12:8, 13:1~3)
- ⑪ 도울 목적으로 부르다 권고하다 위로하다의 뜻으로 성령, 대언자, 그리스도를 말함.(요14:16, 26, 요일2:1)
- ⑬ 천사장의 이름.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세례자 요한이 출생할 것을 예고했다.(눅1:5~20)
- ⑭ 갈대아 사람의 성읍이며 아브라함의 고향
- ⑮ 사반의 아들. 예레미야의 친구이며 포로된 동포에게 편지를 전달했다.(렘29:1~3)
- ⑯ 유다 자손의 기업 중 한 곳(수15:22)
- ⑱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이곳 어귀까지이다.(겔47:15)

2월호 정답자는 총103명입니다. 성경퀴즈 정답자분들께 생명의 쌀 나눔 기독교 운동 본부에서 유기농 쌀 10kg을 2월호부터 3분을 추첨하여 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호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열의로 계속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퀴즈 195정답

에	베	소	서		하	물	
바	라	바		데	만		여
브		더	디	오			리
로	데			빌	를	로	고
디		야	이	로		뎀	
도	도		스		스	나	아
	르	엘	라	야		무	라
미	가		엘	다	아		바

정답자 명단

- 강민희 강양자 권진 권혁중 김귀남 김귀자 김금만 김금자 김덕례 김명숙 김명자
 김복순 김복희 김상민 김순자5 김영태 김옥련 김옥순 김은숙 김정도 김정숙 김정옥2
 김정자2 김혜자1 남옥자 민영숙 박명숙6 박영숙 박옥례 박인숙 서신웅 성낙규 송선자
 송은숙 송재모 송재은 신선자 신선희 신영희 신외숙 안영원 양용식 양인석 양정웅
 양혜석 오명자 오순중 오순희 오은희 우재은 윤정숙 윤지영 윤혜정 이경자5 이경화
 이계희 이미화 이민자 이복숙 이복희 이상주 이수남 이숙봉 이은실 이재욱 이정심
 이정희3 이훈섭 임성준 장경자 장미옥 장정원 전명숙 전현숙 정명수 정수자 정옥순
 정정이 정지혜자 정형자 정홍자 정홍자 조규례 조현숙3 조현주 주영림 차의원 차일환
 채주희 최경란 최복현 최은섭 최중미 최치숙 최해연 최형표 태원식 한재홍 한창숙
 허윤옥 허윤옥 현수원 홍지영



편집 후기

♣ 새문안 지의 얼굴인 표지에 행사 사진은 이제 그만 그 대신에 앞으로는 좋은 사진이나 그래픽을 넣을 예정인데, 새문안의 촬영 작가 여러분들이 직접 찍은 작품들을 많이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인영 집사가 깊은 산골 얼음 골짜기에서 발견하여 찍은 복수초가 표지사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멀티 미디어를 잘 활용하여 디지털 시대에 선교의 지평을 사이버 공간속에서 새롭게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홍보출판부, 영상선교부, 사료관이 협력하여 이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멀티미디어선교협의회"가 당회의 허락을 얻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따뜻한 려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각 부서임원들이야 말로 취재기자이자 사진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교우들이 직접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문안 지는 우리가 같이 만드는 공동의 작품입니다 (유재현)

♣ 삼일절 정신을 가슴에 93번째로 품어본다. 가난과 남루와 설움과 고통 속에서 세계 10번째로 오르내리는 부요나라로 당당히 선 이 나라.

이 화려한 시간 속에서도 그늘 한 자락이 있다. 저 북녘 땅에도 봄은 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답하셔야 될 때이다. 이번 호에는 위기에 몰린 학교 폭력 문제와 학생 인권조례를 좌담 형식과 심층 분석으로 게재했다. 초, 중, 고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학습지도와 전인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기도의 나날로 기억되기를. (안재찬)

<독자 후기>

♣ 새문안 강단은 늘 좋다. 듣는 설교와 읽는 설교가 다른 맛을 나는 즐긴다. 2월호 새문안지는 거기에 더해서 상큼한 느낌까지 받았다. 구석 구석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생생하고 솔직한 소감, 인터뷰기사, 제목 등등 흥미가 생기고 내 이야기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공감을 느낀다. 그래서 다음호도 기대된다. (문경희 권사)



삼월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로 나아가신 사순절의 달이다. 그리고 일제 암흑기에 민족의 저항을 촉발한 3.1운동의 달이기도 하다. 언 땅을 녹이며 새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 복수초는 글자 그대로 복(福)과 수명(壽)을 겸비한 복스러운 꽃이다. 그러나 이 꽃이 피는 과정은 큰 고난의 길이다. 별명으로 얼음새 꽃이라고도 하듯이 얼음을 녹이고 그 사이로 힘차게 솟아 나오는 그 강인함 속에서 부활과 독립의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

(표지 글 | 편집장 사진 | 박인영 집사)

2012년 3월호 통권 283호

2012년 3월 4일 발행

교회창립 _ 1887년 9월 27일

3월의 교회력 | 기도의 달

4일(주일) 제직회, 복지재단, 자원봉사부(헌)

11일(주일) 남선교회연합(헌)

18일(주일) 서울노회남선교회 연합순회(헌)

25일(주일) 2남 2여 연합(헌)

발행처 _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인 _ 이수영

편집인 _ 유재현

지도목사 _ 강동협

편집장 _ 유재현

편집위원 _ 안재찬 민현식 이승리

지문위원 _ 맹정희 구말희 이순자

취재기자 _ 강선애 김규환 김두연 김현찬 안선영 이윤옥

이창진 이철용 홍덕화

교열팀 _ 민은홍 황신덕 강선애

사진팀 _ 이덕일 박인영 김범섭 한소희

디자인팀 _ 김영미 한소희 손상은

간사 _ 김혁주

등록번호 _ 서울 라09085 등록일 2001. 7. 25

인쇄처 _ 세종예술기획(02-2273-4455)

주소 _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42

전화 _ 02-731-2816, 738-5996

팩스 _ 02-733-8070

E-Mail _ hongbo@saemoonan.org

Homepage _ www.saemoonan.org



딸이면 창녀가 되거나, 아들이면 부랑배질 하다가 감옥에 갈 수 밖에 없었던 산족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흘리개지만 머지않아
태국 복음화의 용사가 될 한태선교관 어린 형제와 자매

P H O T O

News

태국 선교의 기본 전략은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현지인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순절에 감상하는 기독교 명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Jacopo Tintoretto (1518-1594)



자코포 틴토레토는 이탈리아 후기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탁월한 화가 중의 하나다. 베니스를 무대로 수많은 기독교 명화를 그린 틴토레토의 작품 중 이 "십자가형"은 최대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베니스의 스킴라 중 최대 것의 하나인 스킴올라 디 산 로코에 소장되어 있는 이 그림은 1565년에 그린 벽장식화인데 그 크기가 가로 12.2미터, 세로 5.36미터로 유화 후수로는 약 1830호나 되는 초대형작이다. 그의 뚜렷한 원근법과 강렬한 명암, 그리고 화려한 색채감은 바로크 시대를 여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 27장 : 35~38절

- 35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 36 거기 앉아 지키더라
- 37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 38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